

#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이문국 | 조준행 | 이지은 | 이현미



## 머 리 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개인에게는 빈곤, 질병, 고독 등의 고통을, 노인가족에 있어서는 노인부양의식의 희미해짐으로 인한 갈등 심화를, 국가·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의 급증에 따른 재정압박을 유발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가경쟁력 위협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른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강문제(27.1%)」, 「소일거리 없음(6.8%)」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04년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노인 4고(① 경제적문제, ② 건강문제, ③ 역할상실문제, ④ 고독과 소외감 문제) 등의 해소 또는 최소화를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정부 지원 규모면에서나 목표 사업량 측면에서도 도입시부터 최근까지(2007년) 괄목할만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참여자에 대한 일반 노인과의 특성차이를 규명한다거나 일반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사업참여실태, 사업참여효과 및 욕구 등 각 영역별로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인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던 바,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다소나마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제의 최우선 목표는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에 대한 총괄적인 기초 데이터 확보에 있다. 즉, 정책참여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참여만족도 및 추가 욕구 등의 파악을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 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후속 연구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본 보고서를 진행함에 있어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준 전국 34개 수행기관 현장조사 면담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272명에 달하는 성실한 조사원(민간수행기관 전담직원 및 실무자,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본 조사는 가능하지 않았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본 실태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낌없는 자문역할을 자임해주신 한신대 이인재 교수님 및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 장 변 재 관





## 제목 목차

요약	13
제 1 장 서론	23
제 2 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기초통계	31
제 3 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일반특성	47
제 4 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사회경제적 특성	65
제 5 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사업 참여실태	97
제 6 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효과 및 욕구	127
제 7 장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적 함의	147
제 8 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5
부록. 참여노인 실태조사 지침서 (문항별 지침)	167

## 표 목차

〈표 1-1〉 조사대상자 선정	29
〈표 2-1〉 성별 분포	33
〈표 2-2〉 연령계층별 분포	33
〈표 2-3〉 연령계층별 성별 분포	34
〈표 2-4〉 시도별 분포 1	35
〈표 2-5〉 시도별 분포 2	36
〈표 2-6〉 거주지 단위별 분포	37
〈표 2-7〉 거주지별 연령계층별 분포	37
〈표 2-8〉 기관유형별 분포	38
〈표 2-9〉 기관유형별 연령계층별 분포	39
〈표 2-10〉 직접 사업수행 지자체 소속 참여노인의 사업유형별 분포	40
〈표 2-11〉 사업유형별 분포	41
〈표 2-12〉 사업유형별 성별 분포	41
〈표 2-13〉 사업유형별 연령계층별 분포	42
〈표 2-14〉 사업유형별 거주지별 분포	43
〈표 2-15〉 사업유형별 시도별 분포	44
〈표 2-16〉 사업유형별 수행기관 유형별 분포	46



〈표 3-1〉 학력수준	49
〈표 3-2〉 학력수준 비교	50
〈표 3-3〉 학력수준별 사업유형별 분포	51
〈표 3-4〉 학력수준별 연령계층별 분포	52
〈표 3-5〉 총가구원수	53
〈표 3-6〉 가구형태별 구분	54
〈표 3-7〉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가구형태별 비교	54
〈표 3-8〉 가구형태별 연령계층별 구분	55
〈표 3-9〉 가구형태별 성별 구분	56
〈표 3-10〉 혼인상태	56
〈표 3-11〉 주관적 건강상태	57
〈표 3-12〉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	57
〈표 3-13〉 만성질환 유무	58
〈표 3-14〉 참여노인 만성질환 종류별 분포	59
〈표 3-15〉 만성질환 보유개수 분포	59
〈표 3-16〉 참여노인과 일반노인의 만성질환 보유개수 비교	60
〈표 3-17〉 만성질환 보유수별 성별 분포	60
〈표 3-18〉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61
〈표 3-19〉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별 거주지별 분포	62
〈표 3-20〉 의료시설 월평균 이용횟수	63
〈표 3-21〉 의료보장 혜택 여부	63
〈표 4-1〉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67
〈표 4-2〉 일반노인과 참여노인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비교	67
〈표 4-3〉 성별 사업유형별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68
〈표 4-4〉 자원봉사 참여 경로	69
〈표 4-5〉 활동비 수령여부	69
〈표 4-6〉 현재 자원봉사 활동 지속여부	70
〈표 4-7〉 주관적 행복감	70
〈표 4-8〉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비교	71
〈표 4-9〉 가구형태별 주관적 행복감	71
〈표 4-10〉 자원봉사 활동여부별 주관적 행복감	72
〈표 4-11〉 성별 사업유형별 주관적 행복감	73
〈표 4-12〉 최장 종사직업 직업분야	75
〈표 4-13〉 최장 종사직업 직업분류	76
〈표 4-14〉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최장 종사직업 직업분류 비교	76



〈표 4-15〉 최장 종사직업 고용형태	77
〈표 4-16〉 최장 종사직업 종사 시작시점	77
〈표 4-17〉 최장 종사직업 종사 종료시점	78
〈표 4-18〉 최장 종사직업 종사기간	78
〈표 4-19〉 최장 종사직업 분야별 종사기간	79
〈표 4-20〉 최종 종사직업 직업분야	81
〈표 4-21〉 최종 종사직업 직업분류	82
〈표 4-22〉 최종 종사직업 고용형태	82
〈표 4-23〉 최장 고용형태별 최종 고용형태	83
〈표 4-24〉 최종 종사직업 종사 시작시점	84
〈표 4-25〉 최종 종사직업 종사 종료시점	84
〈표 4-26〉 최종 종사직업 종사기간	85
〈표 4-27〉 성별 최종 무직기간별 분포	85
〈표 4-28〉 운전면허 여부	86
〈표 4-29〉 자격증 보유 여부	86
〈표 4-30〉 경력 및 기술 보유 여부	86
〈표 4-31〉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87
〈표 4-32〉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여부	87
〈표 4-33〉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여부 비교	87
〈표 4-34〉 운전면허 여부별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88
〈표 4-35〉 자격증 여부별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88
〈표 4-36〉 기술 및 경력여부별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89
〈표 4-37〉 주관적 경제형편	89
〈표 4-38〉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주관적 경제형편	90
〈표 4-39〉 주관적 경제형편별 주관적 건강상태 분포	90
〈표 4-40〉 참여노인 소득원별 기술통계량	91
〈표 4-41〉 참여노인 월평균 총소득 계층별 분포	92
〈표 4-42〉 참여노인 가구기준 월평균 총소득 계층별 분포	92
〈표 4-43〉 참여노인 및 가구소득 월평균 총소득 기술통계량	92
〈표 4-44〉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소득원별 소득수준 비교	93
〈표 4-45〉 사업유형별 · 연령계층별 참여노인 소득원 및 월평균 총소득	93
〈표 4-46〉 (근로 및 사업소득 있는) 참여노인이 하고 있는 종류의 일	94
〈표 4-47〉 참여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영농” 일 경우 참여정도	95
〈표 4-48〉 (근로 및 사업소득 있는) 참여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	95
〈표 4-49〉 2007년 참여노인 가구기준 월평균 지출액	95
〈표 4-50〉 2007년 참여노인 가구기준 월평균 지출액 계층별 분포	96



〈표 5-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100
〈표 5-2〉 연령계층별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101
〈표 5-3〉 거주지별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102
〈표 5-4〉 성별 · 거주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103
〈표 5-5〉 연령계층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104
〈표 5-6〉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105
〈표 5-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여부	106
〈표 5-8〉 성별 · 연령계층별 · 거주지별 · 사업유형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여부	106
〈표 5-9〉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연도별 참여경력	108
〈표 5-10〉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총 참여경력(2004-2006)	108
〈표 5-11〉 성별 · 거주지별 · 사업유형별 참여경력연수	109
〈표 5-12〉 (2006년 참여경력자 중에서) 2006년 실제 참여개월	110
〈표 5-13〉 2007년 본사업이 진행되기 전 (2006년과 동일한 사업내용) 활동 지속 여부	110
〈표 5-14〉 (2006년 사업참여 개월이 7개월 이상인 참여노인 중) 동일한 급여 수령 여부	111
〈표 5-15〉 (2007년에 2006년과 동일한 활동을 지속한 참여노인 중) 동일한 급여 수령 여부	111
〈표 5-16〉 사업참여방식 1	111
〈표 5-17〉 사업참여방식 2	111
〈표 5-18〉 사업참여방식 3	112
〈표 5-19〉 공익 · 교육 · 복지형 참여자 활동내용	113
〈표 5-20〉 시장형 참여자 활동내용	114
〈표 5-21〉 인력파견형 참여자 활동내용	115
〈표 5-22〉 참여자 활동 1순위(상위 10위까지)	115
〈표 5-23〉 참여자 활동 2순위(상위 10위까지)	116
〈표 5-24〉 공익 · 교육 · 복지 · 시장형 참여노인 주당 근무일수	117
〈표 5-25〉 공익 · 교육 · 복지 · 시장형 참여노인 일일 근무시간	117
〈표 5-26〉 교육형(해설사) 일일 평균 대기시간	117
〈표 5-27〉 인력파견형(고용형) 고용지속개월	118
〈표 5-28〉 인력파견형(고용형) 주당 근로일수	118
〈표 5-29〉 인력파견형(고용형) 일일 근로시간	118
〈표 5-30〉 인력파견형(파견형) 2007년 총 파견횟수	118
〈표 5-31〉 인력파견형(파견형) 일일 근로시간	118
〈표 5-32〉 노인일자리사업 월평균 참여소득	119
〈표 5-33〉 수요처 추가지급 지속 여부	119
〈표 5-34〉 성별 · 거주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소득의 주된 활용처	120
〈표 5-35〉 연령계층별 ·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소득의 주된 활용처	121





〈표 5-36〉 참여노인 소속사업단 근무관리 체계	123
〈표 5-37〉 활동처 이동 방법	124
〈표 5-38〉 활동처 이동시간	125
〈표 5-39〉 월평균 교통비	126
〈표 6-1〉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129
〈표 6-2〉 “전반적 만족도” 기준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130
〈표 6-3〉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연령계층별·거주지별·사업유형별 만족도	130
〈표 6-4〉 성별·연령계층별·거주지별·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가장 좋은 점	132
〈표 6-5〉 성별·연령계층별·거주지별·사업유형별 사업 참여에 대한 가족의 반응	134
〈표 6-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해 가족이 싫어하는 이유	136
〈표 6-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해 가족이 좋아하는 이유	136
〈표 6-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효과 문항별 기술통계량	137
〈표 6-9〉 성별·연령계층별·거주지별·사업유형별 사업 참여효과	138
〈표 6-10〉 성별·연령계층별·거주지별·사업유형별 급여수준 적절성	139
〈표 6-11〉 원하는 급여수준	141
〈표 6-12〉 동의여부	142
〈표 6-13〉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 의향	143
〈표 6-14〉 사업수행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144
〈표 6-15〉 실제 원하는 일의 형태	146
〈표 6-16〉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실제 원하는 일의 형태 비교	146

## 그림 목차

[그림 7-1]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149
[그림 7-2] 단계별 중점 정책기조	150
[그림 7-3] 『인력실태조사』에 근거한 시도별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152
[그림 7-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2인가구 기준 빈곤완화 효과	153
[그림 7-5] 교육·복지형 참여노인의 활동영역	154



# 요약







## 요 약

### □ 조사목적

-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기초 데이터 확보
  - 참여노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을 통해
    - 노인일자리사업 목표의 적정성 검토
    -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참여만족도 및 욕구 파악을 통해
    -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 □ 조사기간

- 2007. 10. 08 ~ 10. 29 (약 3주)

### □ 조사대상

-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987명
- 시도별·사업유형별 참여자수 비중을 기준(2007. 9월)으로 무작위 추출

### 〈모집단〉

(단위 : 명)

	합 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통합형
서울	14,880	7,107	1,883	4,717	415	746	12
부산	8,210	4,010	1,185	2,091	127	797	0
대구	5,771	2,937	955	1,434	109	336	0
인천	5,694	3,494	436	462	164	562	576
광주	4,208	1,728	591	1,194	201	494	0
대전	4,119	2,333	521	862	93	310	0
울산	2,269	956	315	692	152	154	0
경기	16,149	9,971	1,931	3,436	219	584	8
강원	8,052	5,139	686	1,555	40	618	14
충북	4,689	1,795	492	1,752	105	545	0
충남	7,322	4,490	439	1,585	47	761	0
전북	11,302	5,663	868	3,860	223	688	0
전남	11,432	6,210	903	3,345	38	936	0
경북	7,079	4,310	677	1,549	56	487	0
경남	9,092	4,828	585	3,220	96	363	0
제주	1,494	851	142	359	43	96	3
합 계	121,762	65,822	12,609	32,113	2,128	8,477	613

자료 : 2007년 9월 기준 참여자 통계



〈표 본〉

(단위 : 명)

	합 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통합형
서울	372 (12.5%)	174	47	125	8	18	
부산	214 ( 7.2%)	106	32	54	1	21	
대구	150 ( 5.0%)	73	26	40	3	8	
인천	114 ( 3.8%)	57	12	12	4	13	16
광주	105 ( 3.5%)	42	16	31	2	14	
대전	100 ( 3.3%)	53	14	24	1	8	
울산	59 ( 2.0%)	27	9	19		4	
경기	385 (12.9%)	229	49	91	2	14	
강원	185 ( 6.2%)	115	17	39		14	
충북	121 ( 4.1%)	47	13	46	2	13	
충남	177 ( 5.9%)	110	11	38	1	17	
전북	271 ( 9.1%)	143	23	84	4	17	
전남	289 ( 9.7%)	144	26	93	1	25	
경북	178 ( 6.0%)	110	17	40		11	
경남	234 ( 7.8%)	124	17	83	2	8	
제주	33 ( 1.1%)	15	4	10	1	3	
합 계	2,987 (100%)	1,569 (52.5%)	333 (11.1%)	829 (27.8%)	32 (1.1%)	208 (7.0%)	16 (0.5%)

□ 조사내용

- 참여자 일반특성(교육수준, 가구특성, 건강상태 등)
- 사회경제적 특성(직업력, 경제상태, 자원봉사활동 등)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참여경로, 활동내용, 근로조건, 교통이용 등)
- 참여효과 및 욕구(참여 만족도 및 욕구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원

- 272명(수행기관 전담인력 및 실무자 252명, 공무원 20명)

□ 응답률

- 94%(2,808명/2,987명)



□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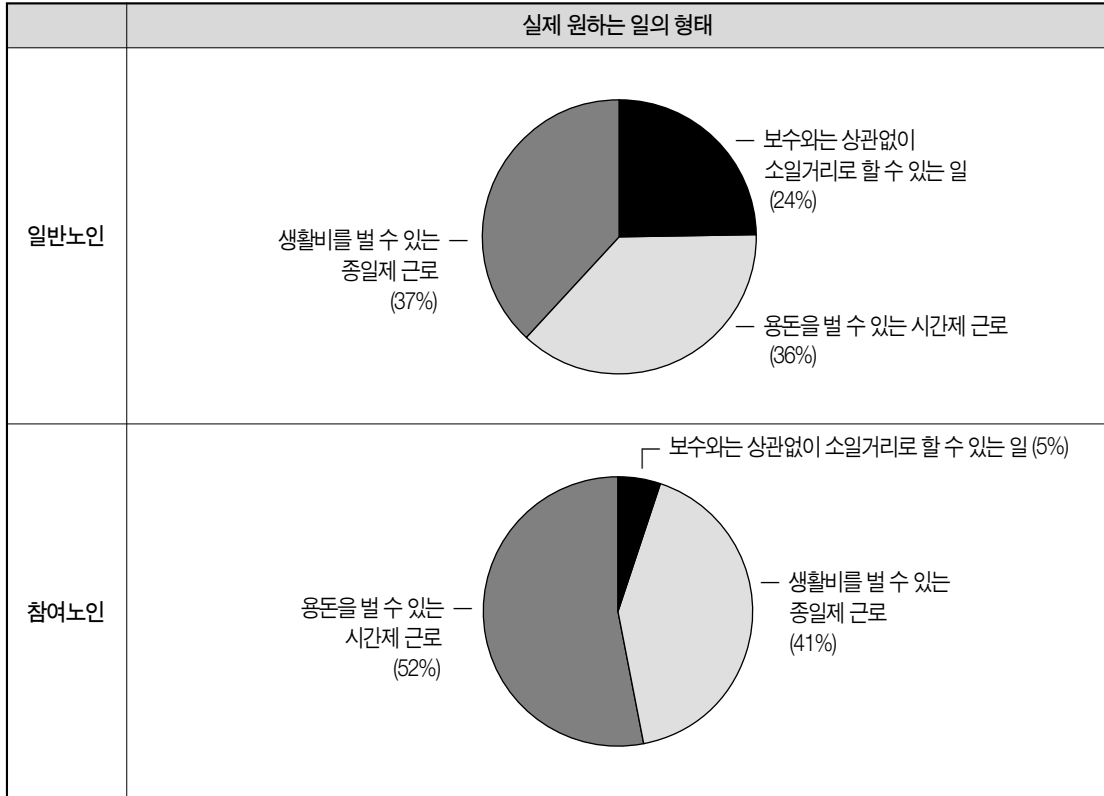
1. 일반 및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일반노인 VS 참여노인)

	일반노인	참여노인
성	<p>여성 (59%) — 남성 (41%)</p>	<p>여성 (54%) — 남성 (46%)</p>
연령 (65-84)	<p>전기 고령자 (71%) — 후기 고령자 (29%)</p>	<p>전기 고령자 (74%) — 후기 고령자 (26%)</p>
거주지	<p>읍 (11%) — 면 (26%) — 동 (63%)</p>	<p>읍 (12%) — 면 (23%) — 동 (65%)</p>
가구형태	<p>기타 (6%) — 노인독신 (21%) — 노인부부 (34%) — 자녀동거 (39%)</p>	<p>기타 (6%) — 노인독신 (23%) — 노인부부 (41%) — 자녀동거 (30%)</p>



	일반노인	참여노인
교육 수준	<p>초등 (35%) 전문대 (6%) 중고등 (19%) 글자모름 (19%) 글자해독 (21%)</p>	<p>초등 (39%) 전문대 (9%) 글자모름 (10%) 글자해독 (17%) 중고등 (26%)</p>
만성 질환	<p>없음 (9%) 1개 (17%) 2개 (19%) 3개이상 (55%)</p>	<p>없음 (45%) 1개 (37%) 2개 (14%) 3개이상 (5%)</p>
경제 상태	<p>노인소득: 53.1 만원 가구소득: 98.2 만원</p>	<p>노인소득: 46.4 만원 가구소득: 86.6 만원</p>
자원 봉사	<p>경험없음 (85%) 현재참여 (4%) 과거참여 (11%)</p>	<p>경험없음 (78%) 과거참여 (8%) 현재참여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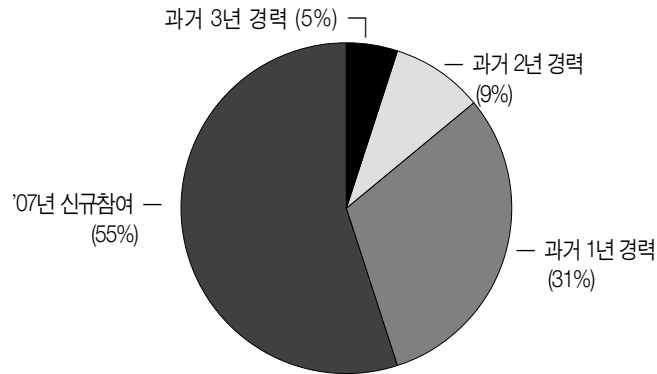


- 참여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남성 및 전기고령자, 동지역 거주자, 교육수준, 건강수준, 자원봉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 및 가구기준 소득수준 등의 경제상태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참여노인은 노인독신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가구형태 비중이 일반노인에 비해 높으며, 실제 원하는 일은 생활비나 용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 및 시간제 근로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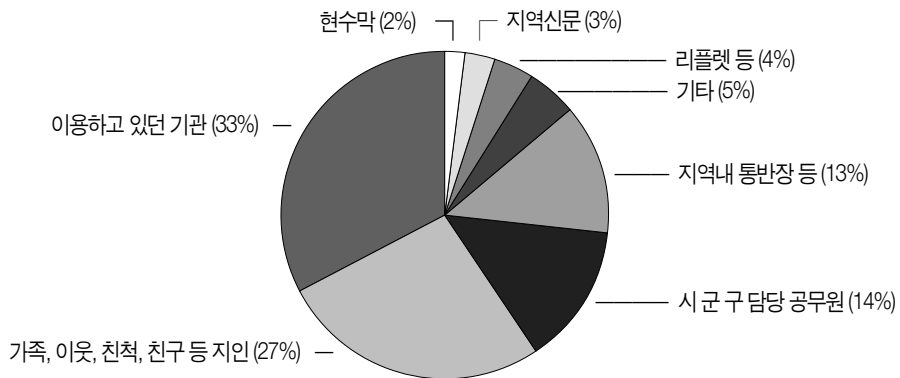


##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 가. 참여 경력 및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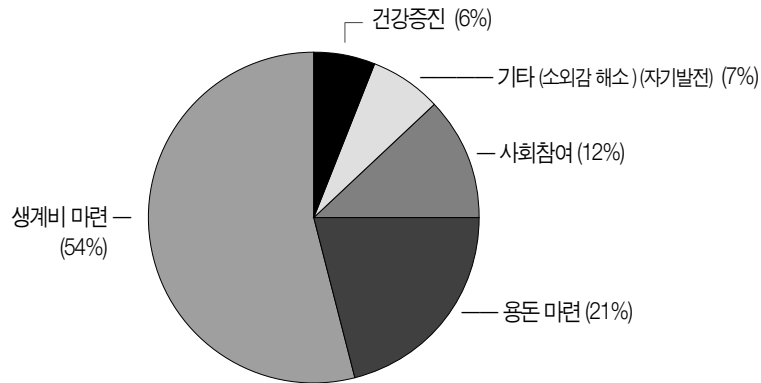
-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5%는 과거 참여경력이 있는 반면 신규 참여자는 5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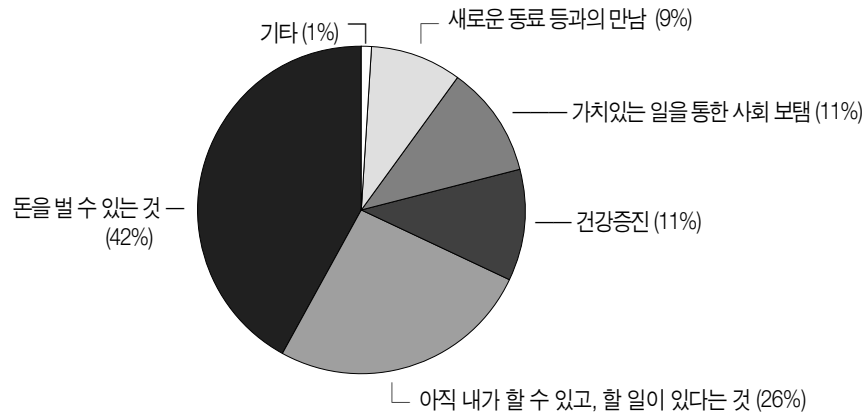
- 전체 참여자의 참여경로를 보면 “이용하고 있던 기관”이나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및 “지역내 통반장”을 통한 참여가 73%에 이르고 있어, 비공식적인 경로가 주를 이루어 참여자 모집정보의 폐쇄성 등 정보 비대칭이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나. 참여 동기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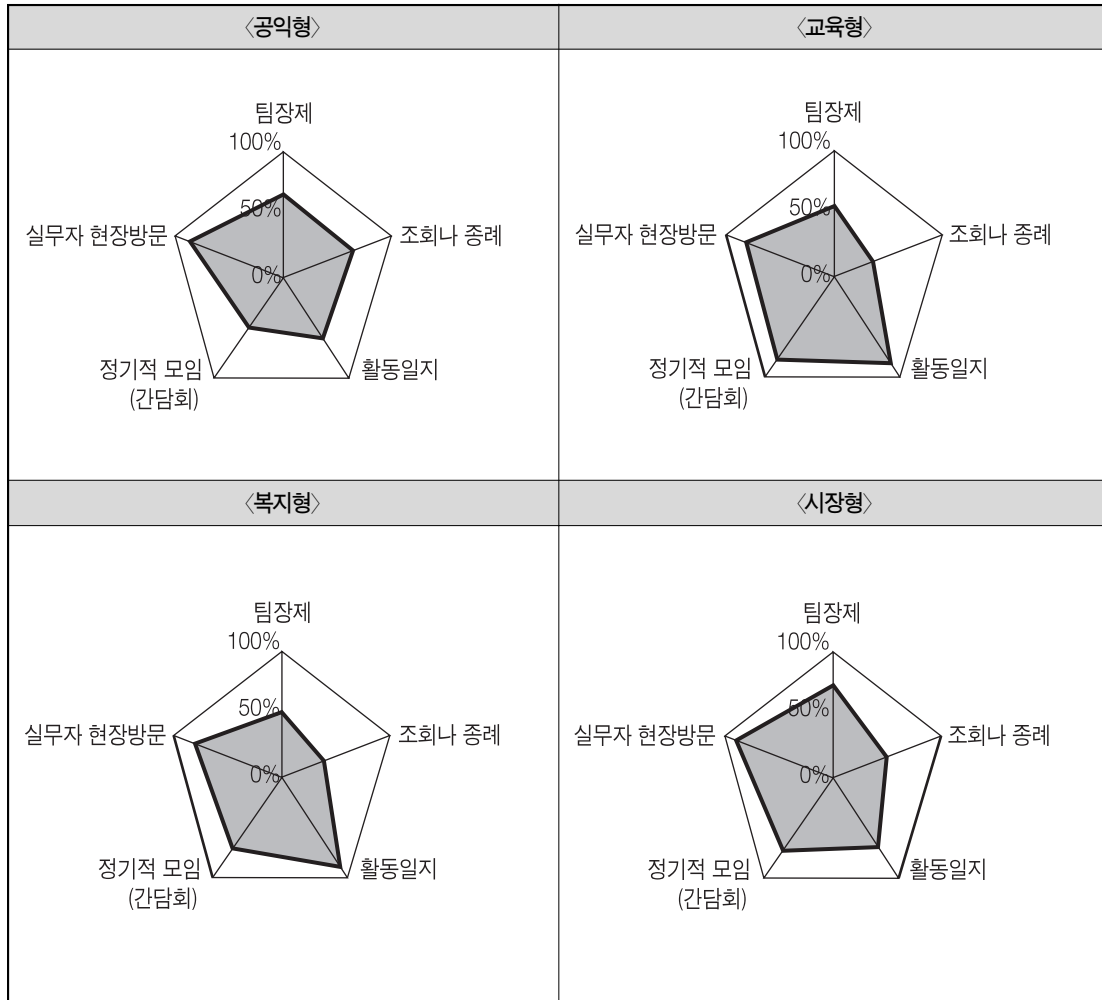
○ '07년 참여노인의 참여동기는 생계비 및 용돈 마련이 전체의 75%를 차지한 반면,



○ 참여결과로 가장 좋은 점에 있어서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응답한 참여노인이 42%에 불과해 참여전의 기대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보탬이 크지 못했거나, 참여전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자존감 및 건강증진 등의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져,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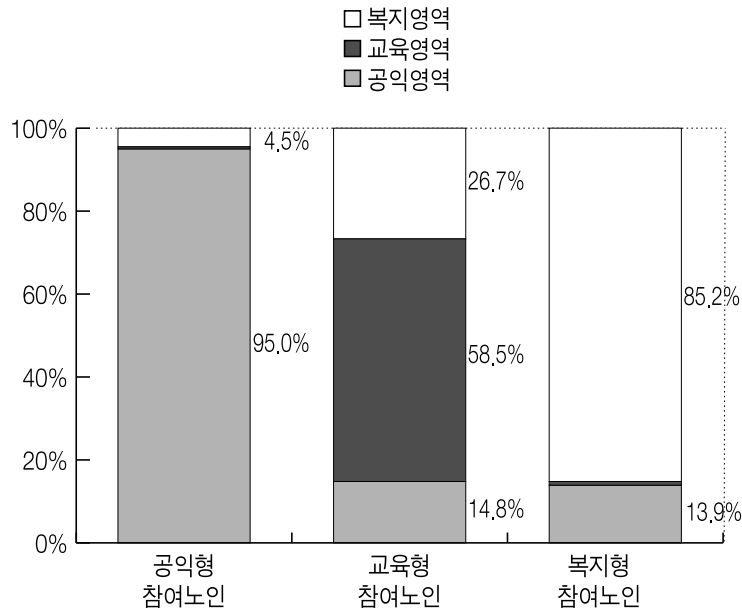


## 다. 근무관리 체계



- 노인일자리아업 유형별 주된 근무관리 체계를 보면, 공익형은 “실무자 현장방문”, 교육형은 “활동일지”, “정기적 모임”, “실무자 현장방문”, 복지형은 “활동일지”, 시장형은 “실무자 현장방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실무자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의존도가 높은 공익형, 시장형의 경우 실무자의 현장방문이 주된 사업관리 도구임에 비해, 수혜자나 수요처가 따로 존재하는 복지형 및 교육형의 경우 주로 활동일지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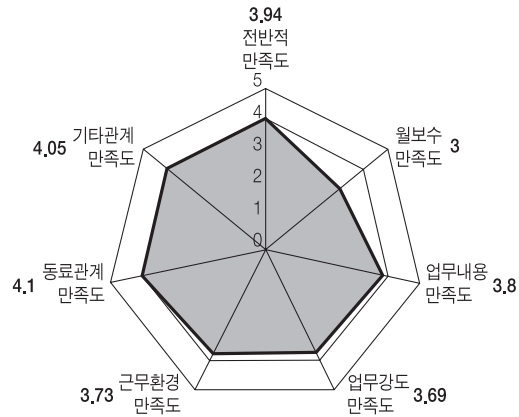
## 라. 공익·교육·복지형 참여노인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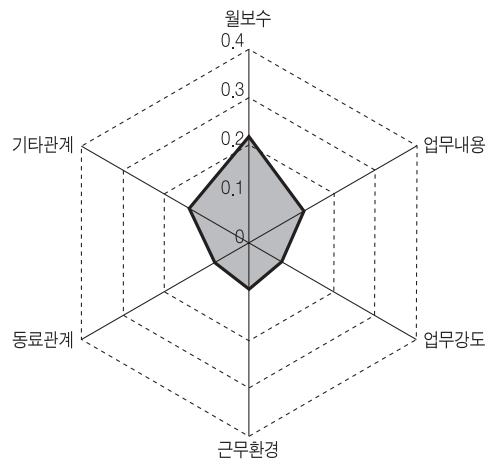
- 공익형 참여노인의 실제 활동내용을 보면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에 종사한 비율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순수하게 공익형에 분류된 사업내용에 참여한 비율이 95%에 이르고 있고, 약 5%에 해당하는 참여노인은 복지영역으로 분류된 활동 내용도 수행하고 있음
- 복지형 참여노인의 활동내용은 “가사지원”이나 “정서지원”이 44.4%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경로당 포함)”나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 등과 같이 공익형으로 분류된 사업내용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도 13.9%나 존재하고 있음
- 특히, 교육형 참여노인의 경우 “학습지도”나 “전문해설” 등과 같은 고유영역의 활동 내용은 58.5%에 불과하고, 복지형으로 분류된 사업에 26.7%, 공익형으로 분류된 사업에 14.8%나 참여하고 있어, 중복응답이 허용된 문항임을 감안하더라도 교육형 참여노인의 활동 영역에 대한 규정과 현실사이의 괴리 및 지역별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 충족여부 논란은 불가피해 보임



###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및 상관관계



- 참여노인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3.94점』으로 100점 만점 기준 환산 시 79점이며, 동료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월보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반적 만족도와 개별항목에 대한 만족도의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본 결과 월보수 수준이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2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월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여타 항목에 비해 가장 낮게 나온 위의 조사결과는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안마련<sup>1)</sup>에 시사하는 바가 큼

1) 이명박 정부 대통령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급여수준과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고령자 층의 실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가 몰고 온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입장에서는 노인 4고의 문제, 그리고 국가·사회 측면에서는 부양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잠재성장 동력의 위협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층 이상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은 국가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보충적 소득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관계 개선 및 건강증진 등이 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최근(2007년)까지 괄목할만한 성장기조<sup>2)</sup>를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에 대한 통합적 기초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 및 욕구·만족도 등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sup>3)</sup>만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에 대한 통합적 기초 데이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정책참여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악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실태, 참여만족도 및 욕구 파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조사는 기존조사와 비교할 때 크게 4가지의 차별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정부예산측면에서는 5.4배(2004년 292억원 → 2007년 1,590억원)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목표 일자리 수에 있어서는 3.1배(35천자리 → 110천자리)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음.

3) 조사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개인의 건강증진·경제적 자립 등의 효과가 있고 사업참여 적극 의지 표명자가 10명중 9명으로 매우 높은(93%)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하고 사회 참여기회가 낮은 계층(고연령자, 여성)일수록 효과 및 만족도가 높았으며, 월 희망 임금은 30~40만원, 근무형태는 연중참여, 주 5일 및 일 4시간근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전후로 구분 비교한 의료시설 이용 빈도를 보면 의료기관 이용 감소사례 3,424건, 증가 700건, 변화없음 13,317건으로 노인의료비 부담 감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건강상태가 대부분 좋아지고 있고(67.9%),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78.5%) 가족 및 사회관계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71.6%) 나타남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기본적인 특성과 참여실태, 욕구·만족도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실시, 결과 분석 및 일반노인과의 비교를 통한 정책적 제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 표집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가진다. 표집과 관련된 편의(bias)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통보함으로써 편의발생 가능성을 줄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둘째, 조사내용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조사의 경우 활동내용 및 근무관리 체계 등의 참여실태에 관한 내용들은 제외되어 있었던 반면, 본 조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에 대한 설문항목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에 대한 통합적 기초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셋째, 조사방법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의 경우 참여노인이 직접 설문작성을 하도록 개발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조사원의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조사항목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심층적으로 구성(총 40문항)할 수 있었다.

넷째, 결과분석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가진다. 경제상태, 건강수준, 가구형태, 삶의 만족도 등의 분야별 관점에서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특성을 상호비교해 현(現)정책참여자의 특성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목표 점검이나 정책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본 조사의 조사표 설계는 참여자의 일반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참여효과 및 욕구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반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주로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문항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참여 실태나 효과 및 욕구 등의 영역은 주로 참여집단 내 상호비교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아업 참여노인의 비교집단으로 설정된 ‘일반노인’은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주된 근거<sup>4)</sup>로 하였다. 이 조사자료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초점을 둔 전국규모의 조사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와 사회구성원의 노인 및 자신의 노년기에 대한 태도, 욕구를 수집·분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가구자료와 가구원인 노인 개인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전국 3,278명의 노인 개인조사 자료를 ‘일반노인’으로 간주하고 노인일자리아업 참여노인과 비교분석 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일반특성 영역의 경우 교육수준 및 가구 특성,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특성 등 8개 문항(1~8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특성 영역은 사회활동(자원봉사 활동 포함), 삶의 질, 과거 직업이력 및 경력·기술, 경제상태 등의 9개 문항(9~17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실태 영역의 경우 인지경로 및 동기, 참여경력, 참여현황(사업유형별 활동내용, 근무관리 체계 등), 교통관련 등 12개 문항(18~29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효과 및 욕구 영역은 참여만족도, 효과 및 욕구, 문제점 및 제안 등 11개 문항(30~40번)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구분	조사내용	조사 세부내용
일반 특성 영역	기본인적특성	· 성 · 연령 · 교육수준
	가구특성	· 동거가구수 및 동거가구원 · 혼인상태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 만성질환
	의료이용 특성	· 주이용 의료시설 및 의료이용횟수 · 의료보장형태
사회경제적 특성 영역	사회활동	· 과거 및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삶의 질	· 삶의 질
	과거 직업 이력	· 최장 및 최종사직업의 특성 · 직업분야, 직업분류, 고용형태, 종사기간 및 월소득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경험 · 구직경험

4) 한국노인연구원 주최로 2006년 처음 실시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경우 45세 이상 10,000명의 표본 수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비교미국 HRS, 유럽 SHARE도 가능한 최근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별항목(일반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비교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첫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고용의 국제비교연구(장지연 외,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선진국의 고령자와 구별되는 4가지 특징으로 첫째, 한국 고령자는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고령자간 소득의 불균등 분포 정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심하며, 셋째, 연로해 감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기울기도 가파르며,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관계로 고령자 가족의 근로 소득 의지경향은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계속〉

사회경제적 특성 영역	경력 및 기술	· 보유 자격증 · 보유 경력 및 기술
	경제상태	· 주관적 경제상태 · 가구 및 개인 월평균 소득액 · 기타소득활동 및 사유 · 가구 월평균 지출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 영역	인지경로 및 동기	· 인지경로 · 참여동기
	참여경력	· 과거 참여연도 · 과거 참여 개월수 · 과거 참여급여 및 비예산기간 급여
	참여현황	· 활동내용 · 근무조건 · 급여액 및 급여 활용처 · 근무관리체계
	이동수단	·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 월 소요 교통비
참여효과 및 육구영역	참여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항목별 만족도 - 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와의 관계, 수혜자·수혜기관·수요처와의 관계 만족도 · 참여하면서 가장 좋은 점 · 가족의 반응
	효과 및 육구	· 참여로 인한 효과 - 가족관계변화, 급여의 가계기여, 건강상태 변화, 인간관계 변화 · 급여수준의 적절성 및 희망급여수준 · 자원봉사 의향 · 사업수행시 가장 큰 어려움 · 희망하는 일의 형태
	문제점 및 제안	· 개선사항 및 제안사항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 표집을 위하여 본원 정보통계팀의 협조를 얻었으며, 2007년 9월 기준 참여자 통계<sup>5)</sup>를 기초로 시도별·사업유형별 참여자수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2,987명을 추출하였다.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표 1-1〉 조사대상자 선정

(단위:명)

	합 계		공약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통합형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서울	14,880	372	7,107	174	1,883	47	4,717	125	415	8	746	18	12	
부산	8,210	214	4,010	106	1,185	32	2,091	54	127	1	797	21	0	
대구	5,771	150	2,937	73	955	26	1,434	40	109	3	336	8	0	
인천	5,694	114	3,494	57	436	12	462	12	164	4	562	13	576	16
광주	4,208	105	1,728	42	591	16	1,194	31	201	2	494	14	0	
대전	4,119	100	2,333	53	521	14	862	24	93	1	310	8	0	
울산	2,269	59	956	27	315	9	692	19	152		154	4	0	
경기	16,149	385	9,971	229	1,931	49	3,436	91	219	2	584	14	8	
강원	8,052	185	5,139	115	686	17	1,555	39	40		618	14	14	
충북	4,689	121	1,795	47	492	13	1,752	46	105	2	545	13	0	
충남	7,322	177	4,490	110	439	11	1,585	38	47	1	761	17	0	
전북	11,302	271	5,663	143	868	23	3,860	84	223	4	688	17	0	
전남	11,432	289	6,210	144	903	26	3,345	93	38	1	936	25	0	
경북	7,079	178	4,310	110	677	17	1,549	40	56		487	11	0	
경남	9,092	234	4,828	124	585	17	3,220	83	96	2	363	8	0	
제주	1,494	33	851	15	142	4	359	10	43	1	96	3	3	
합계	121,762	2,987	65,822	1,569	12,609	333	32,113	829	2,128	32	8,477	208	613	16

## 2) 조사수행체계

조사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현장방문, 자문회의, 사전조사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2007년 5~6월에 걸쳐 전국 34개 수행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 기본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7월 중 일반특성 영역, 사회경제적 특성 영역, 참여실태 영역, 참여효과 및 욕구 영역의 기초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07년 8월)를 통해 수정·보완 및 5개 수행기관 참여노인 12명에 대한 사전조사(pre-test)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표 설계를 완료하였다.

조사 실시 이전 조사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조사원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민간수행기관의 전담인력 및 실무자 위주로 구성(전국 272명)되었으며, 3차례에 걸친 조사원 교육(참석률 85%)을 실시해 원활한 일대일 면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조사는 조사원에 의해 3주(10.08~10.31)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수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2,987명 중 2,808명이 응답하여 9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후 11월초 자료입력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 3) 분석방법

마지막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4.0』의 통계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각 영역별 조사 문항에 대한 분석작업이 이루어졌다.

### 4)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성, 연령계층, 거주지, 참여유형, 참여수행기관 등 참여노인에 관한 기초통계를 다루고 있다. 한편, 3장부터 6장까지는 참여노인의 일반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사업참여실태, 참여효과 및 욕구 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장과 8장에서는 정책적 함의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 제2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기초통계









성별, 연령계층별, 시도별, 거주지단위별, 소속기관유형별, 사업유형별 등의 기초적 통계 분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일반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참여 실태 및 효과나 욕구 분석의 기본적인 분석단위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성(gender)이나 연령계층(age cohort)과 같은 생물학적 구분이나 시도 및 거주지 단위(읍면동) 등의 지리학적 구분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 참여노인과 일반노인의 특성을 구분 짓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며, 사업유형, 소속기관유형 등과 같은 통계적 구분은 주로 참여노인 내에서의 집단간 분석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표 2-1〉 성별 분포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 성	1,257	44,8	44,9	44,9
여 성	1,544	55,0	55,1	100,0
합 계	2,801	99,8	100,0	
시스템 결측값	7	0,2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성별 분포(〈표 2-1〉)에 따르면 『4.5(남성) : 5.5(여성)』<sup>6)</sup>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노인<sup>7)</sup>의 성별 분포 『4(남성) : 6(여성)』와 비교할 때 남성의 비중이 다소 높다고 인식될 수 있으나, 성별 기대수명<sup>8)</sup> 및 건강수준, 일하고자 하는 욕구 등을 감안하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 2-2〉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64세	231	8,2	8,3	8,3
65~69	808	28,8	29,1	37,4
70~74	1,056	37,6	38,0	75,4
75~79	533	19,0	19,2	94,6
80~84	120	4,3	4,3	98,9
85~89	27	1,0	1,0	99,9
90세 이상	3	0,1	0,1	100,0
합 계	2,778	98,9	100,0	
시스템 결측값	30	1,1		
표본수	2,808	100,0		

6) 2007년 10월 실적보고서(개발원)에 의하면 총 누적참여자(125천명)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5천명)

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4,365천명으로 남성은 1,736명, 여성은 2,629명

8) 2006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성별 기대수명은 각각 75.1세(남성), 81.9세(여성)



〈표 2-2〉의 연령계층별 분포는<sup>9)</sup> 『70~74세(38%) → 65~69세(29%) → 75~79세(19%) → 64세 이하(8.3%)』로 나타나 후기고령자(75세 이상)에 비해 전기고령자(65~74세)의 비중(67%)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7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sup>10)</sup>”에 따르면 참여노인 선발 공통기준(65세 이상의 노인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노인)의 예외적 조치로 사업 운영형태 및 상황에 따라 60~64세인 자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차지하는 비중이 8%를 상회하고 있어 예외적 조치의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표 2-3〉 연령계층별 성별 분포

(단위: 명)

	일반노인*			참여노인		
	남 성	여 성	계	남 성	여 성	계
전기고령자 (65~74)	1,270,190	1,662,611	2,932,801	816	1,046	1,862
	43%	57%	100%	44%	56%	100%
	76%	68%	71%	70%	77%	74%
후기고령자 (75~84)	407,337	791,792	1,199,129	347	305	652
	34%	66%	100%	53%	47%	100%
	24%	32%	29%	30%	23%	26%
계 (65~84)	1,677,527	2,454,403	4,131,930	1,163	1,351	2,514
	41%	59%	100%	46%	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표 2-3〉의 연령계층별·성별 분포에 따르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의 비중은 일반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계층 기준일 경우에도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에 대한 일반노인의 구성비(71 : 29)와 비교할 때 참여노인의 구성비는 74 : 26을 보이고 있어 전기고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기고령자 및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건강수준 등 일할 수 있는 전제조건 및 일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9) 2007년 12월 누적참여자 기준 연령계층별 분포(개발원 내부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순위에는 변동이 없으나 구성비율은 『35.6% → 33.5% → 16.8% → 8.9%』로 전기고령자(65~74세) 내에서의 비중은 상이함

10) 14 page



〈표 2-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시도별 분포 1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시스템 결측값	49	1,7	1,7	1,7
강 원	154	5,5	5,5	7,2
경 기	362	12,9	12,9	20,1
경 남	222	7,9	7,9	28,0
경 북	151	5,4	5,4	33,4
광 주	104	3,7	3,7	37,1
대 구	141	5,0	5,0	42,1
대 전	96	3,4	3,4	45,5
부 산	202	7,2	7,2	52,7
서 울	340	12,1	12,1	64,9
울 산	57	2,0	2,0	66,9
인 천	106	3,8	3,8	70,7
전 남	283	10,1	10,1	80,7
전 북	247	8,8	8,8	89,5
제 주	22	0,8	0,8	90,3
충 남	159	5,7	5,7	96,0
충 북	113	4,0	4,0	100,0
표본수	2,808	100,0	100,0	

〈표 2-4〉의 시도별 참여노인 분포에 따르면, 당초 표본선정이 시도별·사업유형별 참여자 수 비중을 기준(2007. 9월)으로 무작위 추출되었기 때문에 '07년 사업량 시도별 분포와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서울·경기의 비중이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전국 일반노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시도별 분포 2

(단위:명)

	일반노인*		참여노인**		기 타***		
					일반노인중 취업 욕구 있는 노인	'07년 확정내시 사업량	수요 충족률
강 원 도	177,435	4.3%	154	5.6%	14,643	6,732	46.0%
경 기 도	712,639	17.2%	362	13.1%	50,016	15,031	30.1%
경상남도	314,314	7.6%	222	8.0%	17,215	7,717	44.8%
경상북도	352,504	8.5%	151	5.5%	12,967	6,755	52.1%
광주광역시	95,542	2.3%	104	3.8%	8,064	3,932	48.8%
대구광역시	187,806	4.5%	141	5.1%	14,678	5,475	37.3%
대전광역시	95,449	2.3%	96	3.5%	8,736	3,147	36.0%
부산광역시	291,280	7.0%	202	7.3%	24,652	7,815	31.7%
서울특별시	673,224	16.3%	340	12.3%	49,501	14,419	29.1%
울산광역시	52,842	1.3%	57	2.1%	5,105	2,294	44.9%
인천광역시	169,442	4.1%	106	3.8%	13,000	4,155	32.0%
전라남도	302,348	7.3%	283	10.3%	15,644	10,212	65.3%
전라북도	238,015	5.8%	247	9.0%	15,984	8,549	53.5%
제 주 도	50,953	1.2%	22	0.8%	2,935	1,248	42.5%
충청남도	252,523	6.1%	159	5.8%	10,964	6,742	61.5%
충청북도	165,614	4.0%	113	4.1%	9,772	4,428	45.3%
전 체	4,131,930	100.0%	2,759	100.0%	273,876	108,651	39.7%

\* 65~84세, 200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유효표본(2,808) 중에서 연령구분 없이 응답자(2,759) 대상

\*\*\* 통계청의 '인력실태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추정치이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한 자료(57만명)와 상이할 수 있음

한편, 〈표 2-5〉와 같이 전국 일반노인(65~84세)의 시도별 분포에 의하면 그 절대규모는 『경기 → 서울 → 경북 → 경남 → 전남 → 부산』 순이나, 참여노인의 시도별 분포인 경우에는 『경기 → 서울 → 전남 → 전북 → 경남 → 부산』 순으로 경상권과 전라권의 순위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노인 중에서 취업욕구가 있는 노인과 '07년 확정내시 사업량을 비교하는 '수요충족률'<sup>11)</sup> 기준인 경우에는 『전남 → 충남 → 전북 → 경북 → 광주』 순으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즉, 노인의 절대규모가 아닌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 경기, 서울에 비해 전남, 충남 등 지방권역에의 수요충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인력실태조사(통계청)를 근거로 하는 수요충족률 전국 평균은 39.7%이나,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 미취업 사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인 비율 11.8%)으로는 19%에 불과하여 많은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가 본 보고서에서 비교 준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한 이유는 시도별 통계구분의 용이성에 따른 결과임을 밝혀둔다.



〈표 2-6〉 거주지 단위별 분포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읍	310	11,0	11,6	11,6
면	598	21,3	22,4	34,0
동	1,764	62,8	66,0	100,0
합 계	2,672	95,2	100,0	
시스템 결측값	136	4,8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행정구역상 거주지는 농어촌지역(읍·면)이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도시지역(동)이 6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7〉 거주지별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명)

	일반노인*				참여노인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전기고령자 (65~74)	306,297	746,698	1,879,806	2,932,801	199	384	1,200	1,783
	10%	25%	64%	100%	11%	22%	67%	100%
	70%	69%	72%	71%	70%	69%	77%	74%
후기고령자 (75~84)	130,785	340,946	727,398	1,199,129	85	174	365	624
	11%	28%	61%	100%	14%	28%	58%	100%
	30%	31%	28%	29%	30%	31%	23%	26%
계 (65~84)	437,082	1,087,644	2,607,204	4,131,930	284	558	1,565	2,407
	11%	26%	63%	100%	12%	23%	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00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표 2-7〉에서와 같이 거주지별 분포에 따라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을 비교해보면 참여노인이 상대적(2%p)으로 도시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계층별에 의하면 참여노인의 경우 일반노인에 비해 전기고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노인 후기고령자의 읍·면·동 거주지별 분포는 비교적 균형적(30:31:28)인 반면, 참여노인의 경우에는 일반노인에 비해 농어촌지역(읍·면)의 후기고령자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30:31:23)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농촌(읍면)지역의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18.6%로 도시(동)지역의 7.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65세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 5.5%에서 2005년 7.2%로 1.7%p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은 2000년 14.7%에서 2005년



18.6%로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전체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18.5%인 것에 비해, 65세이상 인구의 경우에는 그 두 배인 37.1%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표 2-8〉 기관유형별 분포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지자체	1,112	39.6	40.4	40.4
노인복지관	532	18.9	19.3	59.8
종합복지관	194	6.9	7.1	66.8
시니어클럽	267	9.5	9.7	76.5
대한노인회	399	14.2	14.5	91.0
노인복지센터	104	3.7	3.8	94.8
자활후견기관	9	0.3	0.3	95.1
노인학대예방센터	5	0.2	0.2	95.3
실버인력뱅크	39	1.4	1.4	96.7
지방문화원	18	0.6	0.7	97.4
기타	72	2.6	2.6	100.0
합계	2,751	98.0	100.0	
시스템 결측값	57	2.0		
표본수	2,808	100.0		

〈표 2-8〉에 제시되고 있는 참여노인의 소속기관 유형별 분포<sup>12)</sup>는 『지자체 → 노인복지관 → 대한노인회 → 시니어클럽』 순으로 상위 4개 소속기관 참여노인이 전체 참여노인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12) 2007년 10월 기준 실적(개발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자체(41.4%), 노인복지관(18.9%), 대한노인회(14.0%), 시니어클럽(10.7%) 순으로 나타남

〈표 2-9〉 기관유형별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명)

	기관 유형											전 체
	지자체	노인 복지관	종합 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복지 센터	자활후견 기관	학대예방 센터	실버인력 은행	지방 문화원	기 타	
64세 이하	37	78	24	40	19	12	0	1	3	4	10	228
	16.2%	34.2%	10.5%	17.5%	8.3%	5.3%	0.0%	0.4%	1.3%	1.8%	4.4%	100.0%
	3.4%	14.7%	12.5%	15.0%	4.8%	11.5%	0.0%	20.0%	7.7%	22.2%	13.9%	8.3%
65~69	296	168	65	89	95	38	3	2	9	5	25	795
	37.2%	21.1%	8.2%	11.2%	11.9%	4.8%	0.4%	0.3%	1.1%	0.6%	3.1%	100.0%
	26.9%	31.6%	33.9%	33.3%	24.1%	36.5%	37.5%	40.0%	23.1%	27.8%	34.7%	29.1%
70~74	434	179	76	96	162	37	5	2	18	8	24	1,041
	41.7%	17.2%	7.3%	9.2%	15.6%	3.6%	0.5%	0.2%	1.7%	0.8%	2.3%	100.0%
	39.5%	33.6%	39.6%	36.0%	41.1%	35.6%	62.5%	40.0%	46.2%	44.4%	33.3%	38.1%
75~79	256	86	21	29	92	15	0	0	8	1	12	520
	49.2%	16.5%	4.0%	5.6%	17.7%	2.9%	0.0%	0.0%	1.5%	0.2%	2.3%	100.0%
	23.3%	16.2%	10.9%	10.9%	23.4%	14.4%	0.0%	0.0%	20.5%	5.6%	16.7%	19.0%
80~84	60	19	5	9	21	2	0	0	1	0	1	118
	50.8%	16.1%	4.2%	7.6%	17.8%	1.7%	0.0%	0.0%	0.8%	0.0%	0.8%	100.0%
	5.5%	3.6%	2.6%	3.4%	5.3%	1.9%	0.0%	0.0%	2.6%	0.0%	1.4%	4.3%
85~89	16	2	1	2	5	0	0	0	0	0	0	26
	61.5%	7.7%	3.8%	7.7%	19.2%	0.0%	0.0%	0.0%	0.0%	0.0%	0.0%	100.0%
	1.5%	0.4%	0.5%	0.7%	1.3%	0.0%	0.0%	0.0%	0.0%	0.0%	0.0%	1.0%
90세 이상	1	0	0	2	0	0	0	0	0	0	0	3
	33.3%	0.0%	0.0%	66.7%	0.0%	0.0%	0.0%	0.0%	0.0%	0.0%	0.0%	100.0%
	0.1%	0.0%	0.0%	0.7%	0.0%	0.0%	0.0%	0.0%	0.0%	0.0%	0.0%	0.1%
전체	1,100	532	192	267	394	104	8	5	39	18	72	2,731
	40.3%	19.5%	7.0%	9.8%	14.4%	3.8%	0.3%	0.2%	1.4%	0.7%	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관유형별·연령계층별 분포(〈표 2-9〉)에 따르면 64세 이하 참여노인은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큰 비중인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이 17.5%로 두 기관의 합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고령자(65~74세)일수록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후기고령자(75~84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자체와 대한노인회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직접 사업수행 지자체 소속 참여노인의 시도별 사업유형별 분포(〈표 2-10〉)에 의하면,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sup>13)</sup>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공익형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전라권역에서는 복지형의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형식적으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0〉 직접 사업수행 지자체 소속 참여노인의 사업유형별 분포

(단위: 명, %)

	사업유형						전 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통합형	
무응답	8	1	0	0	0	0	9
	88.9%	11.1%	0.0%	0.0%	0.0%	0.0%	100.0%
강 원	53	1	2	1	0	0	57
	93.0%	1.8%	3.5%	1.8%	0.0%	0.0%	100.0%
경 기	125	0	8	0	0	0	133
	94.0%	0.0%	6.0%	0.0%	0.0%	0.0%	100.0%
경 남	104	4	34	0	1	0	143
	72.7%	2.8%	23.8%	0.0%	0.7%	0.0%	100.0%
경 북	54	4	16	0	0	0	74
	73.0%	5.4%	21.6%	0.0%	0.0%	0.0%	100.0%
대 구	60	1	0	0	0	0	61
	98.4%	1.6%	0.0%	0.0%	0.0%	0.0%	100.0%
대 전	35	0	0	0	0	0	35
	100.0%	0.0%	0.0%	0.0%	0.0%	0.0%	100.0%
부 산	36	1	3	0	0	0	40
	90.0%	2.5%	7.5%	0.0%	0.0%	0.0%	100.0%
서 울	91	0	10	0	0	0	101
	90.1%	0.0%	9.9%	0.0%	0.0%	0.0%	100.0%
울 산	13	0	1	0	0	0	14
	92.9%	0.0%	7.1%	0.0%	0.0%	0.0%	100.0%
인 천	57	2	8	0	0	1	68
	83.8%	2.9%	11.8%	0.0%	0.0%	1.5%	100.0%
전 남	106	6	39	6	0	0	157
	67.5%	3.8%	24.8%	3.8%	0.0%	0.0%	100.0%
전 북	108	0	26	5	0	0	139
	77.7%	0.0%	18.7%	3.6%	0.0%	0.0%	100.0%
제 주	2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100.0%
충 남	54	0	6	1	0	0	61
	88.5%	0.0%	9.8%	1.6%	0.0%	0.0%	100.0%
충 북	8	0	0	0	0	0	8
	100.0%	0.0%	0.0%	0.0%	0.0%	0.0%	100.0%
전 체	914	20	153	13	1	1	1,102
	82.9%	1.8%	13.9%	1.2%	0.1%	0.1%	100.0%

13)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2007) '공익형의 경우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운영 가능(12page)'





〈표 2-11〉 사업유형별 분포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공익형	1,462	52.1	52.4	52.4
교육형	339	12.1	12.2	64.6
복지형	772	27.5	27.7	92.3
시장형	184	6.6	6.6	98.9
인력파견형	29	1.0	1.0	99.9
통합형	2	0.1	0.1	100.0
합 계	2,788	99.3	100.0	
시스템 결측값	20	0.7		
표본수	2,808	100.0		

〈표 2-11〉의 사업유형별 참여노인 분포를 보면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의 '07년 사업 방향에 제시된 유형별 비율(공익형 45%, 교육형 15%, 복지형 25%, 시장형 10%, 인력파견형 5%)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익형의 경우 7%p 이상 초과하고 있는 반면,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7%p 가량 부족하며, 교육형과 복지형의 경우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 2~3%p 범위내에서 초과하거나 부족한 현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2〉 사업유형별 성별 분포

(단위: 명)

	성 별		Total
	남 성	여 성	
공익형	746 51.2% 59.7%	712 48.8% 46.4%	1,458 100.0% 52.4%
교육형	209 61.7% 16.7%	130 38.3% 8.5%	339 100.0% 12.2%
복지형	211 27.4% 16.9%	559 72.6% 36.5%	770 100.0% 27.7%
시장형	60 32.6% 4.8%	124 67.4% 8.1%	184 100.0% 6.6%
인력파견형	22 75.9% 1.8%	7 24.1% 0.5%	29 100.0% 1.0%
통합형	1 50.0% 0.1%	1 50.0% 0.1%	2 100.0% 0.1%
전 체	1,249 44.9% 100.0%	1,533 55.1% 100.0%	2,782 100.0% 100.0%



성별에 따른 사업유형 참여분포(〈표 2-12〉)를 보면 공익형만 유일하게 비교적 남녀 균형을 유지(51.2% : 48.8%)하고 있을 뿐, 복지형과 시장형은 여성이, 교육형과 인력파견형은 남성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형별 전문영역이 성별에 따라 비교적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13〉 사업유형별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명)

	사업유형						전 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통합형	
64세 이하	43	63	95	21	9	0	231
	18.6%	27.3%	41.1%	9.1%	3.9%	0.0%	100.0%
	3.0%	18.8%	12.4%	11.5%	31.0%	0.0%	8.4%
65~69	357	113	263	54	12	1	800
	44.6%	14.1%	32.9%	6.8%	1.5%	0.1%	100.0%
	24.7%	33.6%	34.4%	29.5%	41.4%	50.0%	29.0%
70~74	593	109	274	68	5	1	1,050
	56.5%	10.4%	26.1%	6.5%	0.5%	0.1%	100.0%
	41.1%	32.4%	35.8%	37.2%	17.2%	50.0%	38.1%
75~79	345	40	113	30	2	0	530
	65.1%	7.5%	21.3%	5.7%	0.4%	0.0%	100.0%
	23.9%	11.9%	14.8%	16.4%	6.9%	0.0%	19.2%
80~84	85	9	16	8	1	0	119
	71.4%	7.6%	13.4%	6.7%	0.8%	0.0%	100.0%
	5.9%	2.7%	2.1%	4.4%	3.4%	0.0%	4.3%
85~89	20	1	3	2	0	0	26
	76.9%	3.8%	11.5%	7.7%	0.0%	0.0%	100.0%
	1.4%	0.3%	0.4%	1.1%	0.0%	0.0%	0.9%
90세 이상	1	1	1	0	0	0	3
	33.3%	33.3%	33.3%	0.0%	0.0%	0.0%	100.0%
	0.1%	0.3%	0.1%	0.0%	0.0%	0.0%	0.1%
전 체	1,444	336	765	183	29	2	2,759
	52.3%	12.2%	27.7%	6.6%	1.1%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연령계층에 따른 사업유형 분포(〈표 2-13〉)를 보면 6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복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이르고 있어, 앞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수행기관 분포 중 노인복지관에서 64세 이하의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64세 이하의 참여노인 중 상당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복지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후기고령자 계층에 진입할수록 공익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 교육·복지형 및 인력파견형은 이와 반대로 64세

이하이거나 전기고령자 집단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형만 전연령계층 내에서 편중되지 않은 채 비슷한 수준(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사업유형별 거주지별 분포

(단위:명)

	거주지			전 체
	읍	면	동	
공익형	184	340	870	1,394
	13.2%	24.4%	62.4%	100.0%
	59.5%	57.7%	49.5%	52.5%
교육형	23	36	261	320
	7.2%	11.3%	81.6%	100.0%
	7.4%	6.1%	14.8%	12.0%
복지형	82	172	484	738
	11.1%	23.3%	65.6%	100.0%
	26.5%	29.2%	27.5%	27.8%
시장형	18	37	119	174
	10.3%	21.3%	68.4%	100.0%
	5.8%	6.3%	6.8%	6.6%
인력파견형	2	4	22	28
	7.1%	14.3%	78.6%	100.0%
	0.6%	0.7%	1.3%	1.1%
통합형	0	0	2	2
	0.0%	0.0%	100.0%	100.0%
	0.0%	0.0%	0.1%	0.1%
전 체	309	589	1,758	2,656
	11.6%	22.2%	66.2%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에 따른 사업유형 분포(〈표 2-14〉)를 보면 전체적인 읍·면 비율(11.6%, 22.2%)에 비해 공익형의 경우 읍·면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13.2%, 24.4%)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형 및 인력파견형, 특히 교육형의 경우 동지역 거주 참여노인의 비중이 평균 수준을 크게 앞서고 있어, 교육형의 수요기반 및 공급능력 등 사업여건이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이 앞서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5〉 사업유형별 시도별 분포

(단위:명)

	사업유형						전 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통합형	
무응답	19	5	14	10	0	0	48
	39.6%	10.4%	29.2%	20.8%	0.0%	0.0%	100.0%
강 원	97	17	28	11	1	0	154
	63.0%	11.0%	18.2%	7.1%	0.6%	0.0%	100.0%
경 기	212	48	83	13	1	0	357
	59.4%	13.4%	23.2%	3.6%	0.3%	0.0%	100.0%
경 남	118	17	79	6	2	0	222
	53.2%	7.7%	35.6%	2.7%	0.9%	0.0%	100.0%
경 북	93	16	36	6	0	0	151
	61.6%	10.6%	23.8%	4.0%	0.0%	0.0%	100.0%
광 주	40	18	30	14	2	0	104
	38.5%	17.3%	28.8%	13.5%	1.9%	0.0%	100.0%
대 구	67	25	39	9	1	0	141
	47.5%	17.7%	27.7%	6.4%	0.7%	0.0%	100.0%
대 전	48	14	24	7	1	0	94
	51.1%	14.9%	25.5%	7.4%	1.1%	0.0%	100.0%
부 산	98	30	53	20	0	0	201
	48.8%	14.9%	26.4%	10.0%	0.0%	0.0%	100.0%
서 울	163	50	107	10	9	1	340
	47.9%	14.7%	31.5%	2.9%	2.6%	0.3%	100.0%
울 산	21	14	18	4	0	0	57
	36.8%	24.6%	31.6%	7.0%	0.0%	0.0%	100.0%
인 천	57	10	20	12	4	1	104
	54.8%	9.6%	19.2%	11.5%	3.8%	1.0%	100.0%
전 남	140	26	85	25	0	0	276
	50.7%	9.4%	30.8%	9.1%	0.0%	0.0%	100.0%
전 북	133	22	74	14	4	0	247
	53.8%	8.9%	30.0%	5.7%	1.6%	0.0%	100.0%
제 주	10	3	7	1	1	0	22
	45.5%	13.6%	31.8%	4.5%	4.5%	0.0%	100.0%
충 남	103	10	33	10	1	0	157
	65.6%	6.4%	21.0%	6.4%	0.6%	0.0%	100.0%
충 북	43	14	42	12	2	0	113
	38.1%	12.4%	37.2%	10.6%	1.8%	0.0%	100.0%
전 체	1,462	339	772	184	29	2	2,788
	52.4%	12.2%	27.7%	6.6%	1.0%	0.1%	100.0%



시도별 사업유형별 참여노인 분포(〈표 2-15〉)를 보면 공익형의 경우 충남(65.6%), 강원(63.0%), 경북(61.6%), 경기(59.4%) 등의 순으로 지역별 사업량 중에서 공익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울산(36.8%), 충북(38.1%), 광주(38.5%) 등이 타시도에 비해 공익형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형의 경우 울산(24.6%)이 전국에서 타시도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충남(6.4%)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형의 경우 강원(18.2%), 인천(19.2%), 충남(21.0%), 경기(23.2%), 경북(23.8%)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준비율(25%)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충북(37.2%)이나 경남(35.6%)이 상대적으로 타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형은 광주지역이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13.5% 수준이며, 인천(11.5%), 충북(10.6%), 부산(10.0%)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기준치인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별 사업량 비율의 양적기준 충족여부나 과부족 정도만으로 전체적인 사업진행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업의 질적 수준 및 지역별 특성(인적·물적 인프라 등)과 같은 주요한 변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16〉 사업유형별 수행기관 유형별 분포

(단위:명)

	사업유형						전 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통합형	
지자체	914	20	153	13	1	1	1,102
	82.9%	1.8%	13.9%	1.2%	0.1%	0.1%	100.0%
	64.0%	6.1%	20.0%	7.2%	3.4%	50.0%	40.3%
노인복지관	127	173	193	29	8	0	530
	24.0%	32.6%	36.4%	5.5%	1.5%	0.0%	100.0%
	8.9%	52.4%	25.2%	16.1%	27.6%	0.0%	19.4%
종합복지관	49	26	107	11	1	0	194
	25.3%	13.4%	55.2%	5.7%	0.5%	0.0%	100.0%
	3.4%	7.9%	14.0%	6.1%	3.4%	0.0%	7.1%
시니어클럽	78	48	62	70	9	0	267
	29.2%	18.0%	23.2%	26.2%	3.4%	0.0%	100.0%
	5.5%	14.5%	8.1%	38.9%	31.0%	0.0%	9.8%
대한노인회	194	37	129	33	5	0	398
	48.7%	9.3%	32.4%	8.3%	1.3%	0.0%	100.0%
	13.6%	11.2%	16.8%	18.3%	17.2%	0.0%	14.6%
노인복지센터	8	5	85	3	0	1	102
	7.8%	4.9%	83.3%	2.9%	0.0%	1.0%	100.0%
	0.6%	1.5%	11.1%	1.7%	0.0%	50.0%	3.7%
자활후견기관	0	0	8	1	0	0	9
	0.0%	0.0%	88.9%	11.1%	0.0%	0.0%	100.0%
	0.0%	0.0%	1.0%	0.6%	0.0%	0.0%	0.3%
노인학대예방센터	0	3	2	0	0	0	5
	0.0%	60.0%	40.0%	0.0%	0.0%	0.0%	100.0%
	0.0%	0.9%	0.3%	0.0%	0.0%	0.0%	0.2%
실버인력뱅크	19	5	10	4	0	0	38
	50.0%	13.2%	26.3%	10.5%	0.0%	0.0%	100.0%
	1.3%	1.5%	1.3%	2.2%	0.0%	0.0%	1.4%
지방문화원	0	9	5	4	0	0	18
	0.0%	50.0%	27.8%	22.2%	0.0%	0.0%	100.0%
	0.0%	2.7%	0.7%	2.2%	0.0%	0.0%	0.7%
기 타	39	4	12	12	5	0	72
	54.2%	5.6%	16.7%	16.7%	6.9%	0.0%	100.0%
	2.7%	1.2%	1.6%	6.7%	17.2%	0.0%	2.6%
전 체	1,428	330	766	180	29	2	2,735
	52.2%	12.1%	28.0%	6.6%	1.1%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6〉의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유형별 참여노인 분포에 따르면, 공익형은 「지자체(64%) → 대한노인회(13.6%) → 노인복지관(8.9%) → 시니어클럽(5.5%)」, 교육형은 「노인복지관(52.4%) → 시니어클럽(14.5%) → 대한노인회(11.2%)」, 복지형은 「노인복지관(25.2%) → 지자체(20%) → 대한노인회(16.8%) → 종합복지관(14%)」, 시장형은 「시니어클럽(38.9%) → 대한노인회(18.3%) → 노인복지관(16.1%) → 지자체(7.2%)」, 인력파견형은 「시니어클럽(31%) → 노인복지관(27.6%) → 대한노인회(17.2%)」 순으로 나타나 각 수행기관의 인프라 특성 등에 따라 대표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3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일반특성









###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           |              |           |
|-----------|--------------|-----------|
| ① 글자 모름   | ② 무학이나 글자 해독 | ③ 서당      |
| ④ 초등학교 중퇴 | ⑤ 초등학교 졸업    | ⑥ 중학교 중퇴  |
| ⑦ 중학교 졸업  | ⑧ 고등학교 중퇴    | ⑨ 고등학교 졸업 |
| ⑩ 대학교 재학  | ⑪ 대학교 중퇴     | ⑫ 대학교 졸업  |
| ⑬ 대학원 재학  | ⑭ 대학원 중퇴     | ⑮ 대학원 졸업  |

〈표 3-1〉 학력수준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글자모름	280	10,0	10,0	10,0
무학이나 글자해독	442	15,7	15,8	25,8
서 당	24	0,9	0,9	26,6
초등학교 중퇴	320	11,4	11,4	38,1
초등학교 졸업	760	27,1	27,1	65,2
중학교 중퇴	122	4,3	4,4	69,6
중학교 졸업	255	9,1	9,1	78,7
고등학교 중퇴	61	2,2	2,2	80,9
고등학교 졸업	289	10,3	10,3	91,2
대학교 재학	5	0,2	0,2	91,4
대학교 중퇴	40	1,4	1,4	92,8
대학교 졸업	164	5,8	5,9	98,6
대학원 중퇴	2	0,1	0,1	98,7
대학원 졸업	36	1,3	1,3	100,0
합 계	2,800	99,7	100,0	
시스템 결측값	8	0,3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학력수준 분포(〈표 3-1〉)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27.1%), 무학이나 글자해독(15.8%), 초등학교 중퇴(11.4%), 고등학교 졸업(10.3%), 글자 모름(10%), 중학교 졸업(9.1%), 대학교 졸업(5.9%) 순으로 나타나, 참여노인의 65%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 이하로 절대적인 학력수준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로 파악된다.



〈표 3-2〉 학력수준 비교

학력수준	일반노인*	참여노인
글자모름	19.2%	10.0%
글자해독	20.9%	16.6%
초등학교	35.0%	38.6%
중·고등학교	19.4%	26.0%
전문대 이상	5.6%	8.8%
합 계	100.0	100.0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2〉의 일반노인과 참여노인 학력수준 비교표에 따르면 문맹률의 경우 참여노인(10.0%)이 일반노인(19.2%)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학력수준 또한 일반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노인의 사업유형에 따른 학력수준(〈표 3-3〉)에 따르면, 공익형 「초졸(28.4%) → 글자해독(17.8%) → 글자 모름(13.4%)」, 교육형 「대학교 졸업(28.1%) → 고졸(28.1%) → 초졸(10.7%) → 대학원졸(6.8%)」, 복지형 「초졸(30.6%) → 글자해독(18.7%) → 초등학교 중퇴(13.1%) → 중졸(10%)」, 시장형 「초졸(37.2%) → 중졸(14.2%) → 글자해독(12.6%) → 글자모름(10.4%) → 초등 중퇴(9.3%)」, 인력파견형 「대졸(27.6%) → 중졸(17.2%) → 초졸(17.2%) → 대학원졸(10.3%) → 고졸(10.3%)」으로 나타나, 교육형 및 인력파견형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고, 공익·복지·시장형은 비교적 학력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공익형을 제외하면 전체 일반노인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력파견형의 경우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시험감독관 등 인력파견형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노인의 연령계층에 따른 학력수준(〈표 3-4〉)은 전기고령자일수록 학력수준이 높고, 후기고령자일수록 학력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64세이하 : 초졸(23.5%) → 고졸(16.1%) → 대졸(14.8%) → 중졸(14.8%)
- 65~69세 : 초졸(28.4%) → 무학, 글자해독(14.3%) → 초등 중퇴(13%) → 중졸(9.4%)
- 70~74세 : 초졸(24.4%) → 무학, 글자해독(17.3%) → 초등 중퇴(12.5%) → 중졸(9.1%)
- 75~79세 : 초졸(32.8%) → 무학, 글자해독(16.9%) → 글자모름(14.8%) → 초등중퇴(10.3%)
- 80~84세 : 무학, 글자해독(25%) → 초졸(20.8%) → 글자모름(15.8%)
- 85~89세 : 초졸(48.1%) → 글자모름(22.2%) → 무학, 글자해독(22.2%)

최근 9개월 동안 함께 거주하시는 가구원의 인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가구원	인 원	가구원	인 원
1) 배우자	( )명	5) 미혼자녀	( )명
2) 기혼자녀	( )명	6) 형제 및 자매	( )명
3) 기혼자녀의 배우자	( )명	7) 노부모	( )명
4) 손자녀	( )명	8) 기타	( )명
9) 본인 제외 총 가구원수	( )명		

〈표 3-5〉 총가구원수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명	626	22.3	23.2	23.2
2명	1,283	45.7	47.6	70.8
3명	320	11.4	11.9	82.7
4명	175	6.2	6.5	89.2
5명	159	5.7	5.9	95.1
6명 이상	132	4.7	4.6	100.0
합 계	2,695	96.0	100.0	
시스템 결측값	113	4.0		
표본수	2,808	100.0		

〈표 3-5〉의 총가구원수 규모를 보면 2명(47.6%), 1명(23.2%), 3명(11.9%) 순으로 전체 참여 노인가구의 23%가 독거노인가구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3-6〉 가구형태별 구분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노인독신가구	626	22.3	23.2	23.2
노인부부가구	1,107	39.4	41.1	64.3
자녀동거노인가구	799	28.5	29.6	94.0
기타노인가구	163	5.8	6.0	100.0
합 계	2,695	96.0	100.0	
시스템 결측값	113	4.0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가구형태에 따른 분류(〈표 3-6〉)에 의하면 노인부부가구가 전체 참여노인가구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혼 및 기혼자녀와 같이 사는 자녀동거노인가구가 29.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7〉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가구형태별 비교

	일반노인*	참여노인
노인독신가구	20.6%	23.2%
노인부부가구	34.4%	41.1%
자녀동거노인가구	38.6%	29.7%
기타노인가구	6.4%	6.0%
합 계	100.0%	100.0%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노인의 가구형태를 일반노인과 비교하는 경우, 참여노인가구의 특징은 일반노인가구에 비해 미혼 또는 기혼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비율은 낮은 반면, 노인독신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가구형태별 연령계층별 구분

	가구형태				전 체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노인가구	기타노인가구	
64세 이하	28	80	99	12	219
	12.8%	36.5%	45.2%	5.5%	100.0%
	4.5%	7.3%	12.5%	7.4%	8.2%
65~69	161	326	241	59	787
	20.5%	41.4%	30.6%	7.5%	100.0%
	26.1%	29.7%	30.5%	36.4%	29.5%
70~74	242	443	265	59	1,009
	24.0%	43.9%	26.3%	5.8%	100.0%
	39.2%	40.4%	33.6%	36.4%	37.9%
75~79	148	200	132	25	505
	29.3%	39.6%	26.1%	5.0%	100.0%
	24.0%	18.2%	16.7%	15.4%	18.9%
80~84	32	36	42	5	115
	27.8%	31.3%	36.5%	4.3%	100.0%
	5.2%	3.3%	5.3%	3.1%	4.3%
85~89	6	10	9	2	27
	22.2%	37.0%	33.3%	7.4%	100.0%
	1.0%	0.9%	1.1%	1.2%	1.0%
90세 이상	0	2	1	0	3
	0.0%	66.7%	33.3%	0.0%	100.0%
	0.0%	0.2%	0.1%	0.0%	0.1%
전체	617	1,097	789	162	2,665
	23.2%	41.2%	29.6%	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8〉과 같이 참여노인의 가구형태를 연령계층별 구성비로 구분하는 경우, 가구형태와 연령계층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독신가구 : 70~74세(39.2%) → 65~69세(26.1%) → 75~79세(24%)
- 노인부부가구 : 70~74세(40.4%) → 65~69세(29.7%) → 75~79세(18.2%)
- 자녀동거노인가구 : 70~74세(33.6%) → 65~69세(30.5%) → 75~79세(16.7%)
- 기타노인가구 : 70~74세(36.4%) → 65~69세(36.4%) → 75~79세(15.4%)



〈표 3-9〉 가구형태별 성별 구분

(단위:명)

	가구형태				Total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노인가구	기타노인가구	
남 성	123	697	332	75	1,227
	10.0%	56.8%	27.1%	6.1%	100.0%
	19.7%	63.0%	41.8%	46.0%	45.6%
여 성	502	409	463	88	1,462
	34.3%	28.0%	31.7%	6.0%	100.0%
	80.3%	37.0%	58.2%	54.0%	54.4%
전 체	625	1,106	795	163	2,689
	23.2%	41.1%	29.6%	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참여노인의 성별에 따른 가구형태 분포(표 3-9)를 살펴보면 남성일 경우에는 노인부부가구가, 여성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독신가구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성별 비중이 63(남성) : 37(여성)인 점에 비추어볼 때, 노인독신가구의 성별 비중은 19.7(남성) : 80.3(여성)으로 성별 편중현상이 여타 가구형태에 비해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년기에 결혼관계를 상실하고 홀로 살게 된 독거 여성노인들은 독거에 의하여 지위나 권위가 흔들리고 수입원천 상실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며, 배우자 상실에서 오는 상실감, 소외감 등의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에 대하여 취약한 집단이다. 이러한 여성 독거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사회적, 정서적 효과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어르신들의 혼인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유배우자      ② 사별      ③ 별거 또는 이혼      ④ 미혼      ⑤ 기타

〈표 3-10〉 혼인상태

(단위: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배우자	1,635	58.2	58.4	58.4
사 별	1,041	37.1	37.2	95.6
별거 또는 이혼	86	3.1	3.1	98.6
미 혼	9	0.3	0.3	99.0
기 타	29	1.0	1.0	100.0
합 계	2,800	99.7	100.0	
시스템 결측값	8	0.3		
표본수	2,808	100.0		





〈표 3-10〉에 의한 참여노인의 유배우율은 58.4%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유배우율 54.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일반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의 유배우율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어르신 건강상태는 어떠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약간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다    ⑤ 매우 좋다

〈표 3-11〉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나쁘다	137	4.9	4.9	4.9
약간 나쁘다	561	20.0	20.1	25.0
보통이다	1,003	35.7	35.9	60.9
약간 좋다	581	20.7	20.8	81.7
매우 좋다	512	18.2	18.3	100.0
합계	2,794	99.5	100.0	
시스템 결측값	14	0.5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25%가 ‘나쁘다(매우 나쁘다+약간 나쁘다)’라고 응답한 반면, 35.9%가 ‘보통이다’, 39%가 ‘좋다(약간 좋다+매우 좋다)’라고 응답함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참여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

	일반노인*	참여노인
매우 나쁘다	11.7%	4.9%
약간 나쁘다	26.8%	20.1%
보통이다	27.8%	35.9%
약간 좋다	25.4%	20.8%
매우 좋다	8.3%	18.3%
합계	100.0(3,029)	100.0(2,794)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12〉에 제시된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에 따르면, 참여노인의 경우 일반노인에 비해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13.5%p 낮게,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5.4%p 높게 응답함에 따라 참여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은 일반노인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르신께서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표 3-13〉 만성질환 유무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예	1,540	54.8	56.0	56.0
아니오	1,210	43.1	44.0	100.0
합 계	2,750	97.9	100.0	
시스템 결측값	58	2.1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만성질환 유무에 대한 분포를 보면 전체 참여노인 중에서 56%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되는 만성질환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암
- ②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 ③ 소화기계 질환(소화성 궤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 ④ 내분비, 대사성(당뇨병, 갑상선 질환)
- ⑤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저혈압, 중풍, 뇌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 ⑥ 호흡기계 질환(폐결핵, 결핵, 만성기관지염, 천식)
- ⑦ 눈, 귀 질환(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 ⑧ 만성신장질환
- ⑨ 빈혈
- ⑩ 피부병
- ⑪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 ⑫ 기타(    )

〈표 3-14〉 참여노인 만성질환 종류별 분포

(단위: 명)

만성질환 종류	빈 도	퍼센트
암	22	1.5%
근골격계 질환	715	47.5%
소화기계 질환	122	8.1%
내분비, 대사성	244	16.2%
순환기계 질환	681	45.2%
호흡기계 질환	59	3.9%
눈, 귀 질환	113	7.5%
만성신장질환	19	1.3%
빈 혈	33	2.2%
피부병	11	0.7%
골절, 탈골 등	49	3.3%
기 타	105	7.0%
합 계	1,505	100%

주: 만성질환 유무를 묻는 항목에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1,540명) 중에서 1,505명(98%) 응답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종류별 분포(〈표 3-14〉)를 보면 관절염, 요통, 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47.5%)”과 고혈압, 저혈압, 중풍,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증 등의 “순환기계 질환(45.2%)”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만성질환 보유개수 분포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개	1,003	35.7	66.6	66.6
2개	368	13.1	24.5	91.1
3개	108	3.8	7.2	98.3
4개	21	0.7	1.4	99.7
5개	4	0.1	0.3	99.9
6개 이상	1	0.0	0.1	100.0
합 계	1,505	54.8	100.0	
시스템 결측값	1,303	46.4		
표본수	2,808	100.0		

한편,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에서 만성질환 보유개수 분포(〈표 3-15〉)를 보면 1개의 만성질환만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66.6%로 가장 높았고, 2개 이내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노인이 전체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의 91%로 참여노인의 만성 질환 보유개수는 비교적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3-16〉 참여노인과 일반노인의 만성질환 보유개수 비교

	일반노인*	참여노인**
없다	9.1%	44.6%
1개	17.1%	36.9%
2개	19.0%	13.6%
3개 이상	54.8%	4.9%
합 계	100,0(3,209)	100,0(2,715)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1,540명) 중에서 만성질환 종류에 응답하지 않은 35명 제외

참여노인과 일반노인의 만성질환 보유 현황(〈표 3-16〉)을 살펴보면 참여노인은 44.6%가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노인은 9.1%에 그치고 있어 만성질환 유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에서도 그 보유개수 현황을 보면 일반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3-17〉 만성질환 보유수별 성별 분포

(단위:명)

	성 별		전 체
	남 성	여 성	
0개	16	19	35
	45.7%	54.3%	100.0%
	2.8%	2.0%	2.3%
1개	414	585	999
	41.4%	58.6%	100.0%
	72.5%	60.7%	65.1%
2개	106	262	368
	28.8%	71.2%	100.0%
	18.6%	27.2%	24.0%
3개	30	76	106
	28.3%	71.7%	100.0%
	5.3%	7.9%	6.9%
4개	5	16	21
	23.8%	76.2%	100.0%
	0.9%	1.7%	1.4%
5개	0	4	4
	0.0%	100.0%	100.0%
	0.0%	0.4%	0.3%
6개 이상	0	1	1
	0.0%	100.0%	100.0%
	0.0%	0.1%	0.1%
전 체	571	963	1,534
	37.2%	62.8%	100.0%
	100.0%	100.0%	100.0%



성별에 따른 참여노인의 만성질환 보유현황 <표 3-17>을 보면 남녀 모두 1개만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만성질환 보유개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일반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전제하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참여노인의 만성질환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르신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무엇입니까? ●

- ① 종합병원                      ② 병원
- ③ 동네의원                      ④ 한방병원 및 한의원
- ⑤ 보건소                              ⑥ 기타(                              )
- ⑦ 전혀 이용하지 않음

<표 3-18>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종합병원	354	12.6	12.7	12.7
병 원	695	24.8	25.0	37.7
동네의원	915	32.6	32.9	70.6
한방병원 및 한의원	108	3.8	3.9	74.5
보건소	389	13.9	14.0	88.5
기 타	50	1.8	1.8	90.3
전혀 이용하지 않음	271	9.7	9.7	100.0
합 계	2,782	99.1	100.0	
시스템 결측값	26	0.9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주된 이용 의료시설을 묻는 항목(<표 3-18>)에는 전체 참여노인 중에서 32.9%의 참여노인이 동네의원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병원(25%)이나 보건소(14%)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하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참여노인도 9.7%나 있었으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이용자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9〉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별 거주지별 분포

(단위:명)

	거주지			전 체
	읍	면	동	
종합병원	27	51	259	337
	8.0%	15.1%	76.9%	100.0%
	8.8%	8.6%	14.8%	12.7%
병 원	77	180	401	658
	11.7%	27.4%	60.9%	100.0%
	25.2%	30.5%	22.9%	24.8%
동네의원	111	169	593	873
	12.7%	19.4%	67.9%	100.0%
	36.3%	28.6%	33.8%	33.0%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13	27	64	104
	12.5%	26.0%	61.5%	100.0%
	4.2%	4.6%	3.7%	3.9%
보건소	50	125	194	369
	13.6%	33.9%	52.6%	100.0%
	16.3%	21.2%	11.1%	13.9%
기 타	6	8	32	46
	13.0%	17.4%	69.6%	100.0%
	2.0%	1.4%	1.8%	1.7%
전혀 이용하지 않음	22	30	209	261
	8.4%	11.5%	80.1%	100.0%
	7.2%	5.1%	11.9%	9.9%
전 체	306	590	1,752	2,648
	11.6%	22.3%	66.2%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에 따른 주된 이용 의료시설 분포(〈표 3-19〉)를 보면 우선 면지역에서는 평균(22.3%)에 비해 보건소 이용률(33.9%)이 가장 높고,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및 병원의 이용률도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지역 거주자 참여노인의 경우 종합병원 이용자가 76.9%에 이르고 있어 평균수준인 66.2%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의 80% 가량이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노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의원, 보건소, 한방병·의원 등) 의료시설 이용 횟수는 월평균 몇 회 정도입니까?

\_\_\_\_\_ 회



〈표 3-20〉 의료시설 월평균 이용횟수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이용하지 않음	355	12.6	13.9	13.9
2회 이하	1,524	54.3	59.6	73.4
3~5회	495	17.6	19.3	92.8
6~10회	138	4.9	5.4	98.2
11회 이상	47	1.7	1.8	100.0
합 계	2,559	91.1	100.0	
시스템 결측값	249	8.9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의료시설 월평균 이용횟수를 보면 “2회 이하”라고 응답한 참여노인이 전체 참여노인 중 60%에 근접하고 있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 참여노인도 13.9%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노인의 대부분의 의료시설 이용횟수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르신께서는 현재 국가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 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 ②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
- ③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 ④ 기타(구체적으로 : )

〈표 3-21〉 의료보장 혜택 여부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건강보험 혜택	2,403	85.6	87.0	87.0
의료급여 혜택	244	8.7	8.8	95.8
보험료 체납	33	1.2	1.2	97.0
기 타	83	3.0	3.0	100.0
합 계	2,763	98.4	100.0	
시스템 결측값	45	1.6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의료보장 혜택 여부(〈표 3-21〉)를 보면 전체 참여노인 중 87%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8.8%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의 계층 및 그 밖의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 운동 관련인 및 가족 등에 해당되는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4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사회경제적 특성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직전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표 4-1〉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있 다	609	22,1	22,2	22,2
없 다	2,135	77,4	77,8	100,0
합 계	2,744	99,5	100,0	
시스템 결측값	13	0,5		
표본수	2,757	100,0		

참여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표 4-1〉)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22.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주기적 자원봉사활동’의 기준은 2개월에 1회 이상 특정 조직에 속하여(또는 동일한 대상자 또는 기관을 위하여) 참여한 자원봉사활동(무급 및 실비 자원봉사 포함)을 의미하므로, 그 기준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일반노인과 참여노인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비교

	일반노인*	참여노인
있 다	14,7%	22,2%
없 다	85,3%	77,8%
합 계	100,0(3,029)	100,0(2,744)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7%는 “현재 하고 있다” 4.0%와 “과거에 참여했다” 10.7%의 합으로 구성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에 대한 비교(〈표 4-2〉)를 보면 참여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7.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참여노인 그룹이 일반노인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3〉 성별 사업유형별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단위:명)

성 별	사업유형별	자원봉사경험		Total
		있 다	없 다	
남 성	공익형	116	626	742
		15.6%	84.4%	100.0%
		42.3%	66.2%	60.9%
	교육형	95	114	209
		45.5%	54.5%	100.0%
	34.7%	12.1%	17.1%	
복지형	57	153	210	
	27.1%	72.9%	100.0%	
	20.8%	16.2%	17.2%	
시장형	6	52	58	
	10.3%	89.7%	100.0%	
	2.2%	5.5%	4.8%	
	소 계	274	945	1,219
		22.5%	77.5%	100.0%
		100.0%	100.0%	100.0%
여 성	공익형	88	622	710
		12.4%	87.6%	100.0%
		26.3%	52.5%	46.7%
	교육형	70	60	130
		53.8%	46.2%	100.0%
	20.9%	5.1%	8.6%	
복지형	159	396	555	
	28.6%	71.4%	100.0%	
	47.5%	33.4%	36.5%	
시장형	18	106	124	
	14.5%	85.5%	100.0%	
	5.4%	9.0%	8.2%	
	소 계	335	1,184	1,519
		22.1%	77.9%	100.0%
		100.0%	100.0%	100.0%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는 남녀 모두 대략 “2(있다) : 8(없다)” 비율로 나뉘어짐에 따라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업 유형별로 보는 경우에는 남녀 공히 교육형일 경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경로로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① 종교단체활동을 통해서                      ② 이용기관(경로당, 복지관 등)을 통해서  
 ③ 기타 소속단체 활동을 통해서              ④ 지인의 권유로  
 ⑤ 기타(    )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를 받으셨습니까?

① 받았다(      월                      원)              ② 받지 않았다

현재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표 4-4〉 자원봉사 참여 경로

(단위:명)

참여경로					전 체
종교단체활동	이용기관	기타소속단체	지인의 권유	기 타	
110(18.8%)	243(41.6%)	107(18.3%)	57(9.7%)	68(11.6%)	585(100%)

주: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를 묻는 항목에 "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615명) 중에서 585명(95%) 응답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그 참여경로를 묻는 질문(〈표 4-4〉)에는 노인복지관 등 평소 이용하고 있던 기관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 단체활동(18.8%)이나 기타소속단체(1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활동비 수령여부

(단위:명)

활동비		전 체
받았다	받지 않았다	
98(17%)	477(83%)	575

주: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를 묻는 항목에 "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615명) 중에서 575명(93%) 응답

한편,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에서 활동비 수령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받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83%에 이르고 있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참여노인 대부분은 무급자원봉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현재 자원봉사 활동 지속여부

(단위:명)

지속여부		전 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355(62.6%)	212(37.4%)	567

주: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를 묻는 항목에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615명) 중에서 567명(92%) 응답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에서 현재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표 4-6〉)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된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와 관련하여 일정한 해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참여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자원봉사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도 일반노인의 4%와 비교해 13.8%<sup>14)</sup> 수준으로 3배 이상임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논거가 빈약하다고 보여진다.

○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현재 어르신 삶의 질(행복감)은 어떤 편이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표 4-7〉 주관적 행복감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낮다	132	4.7	4.7	4.7
낮은 편이다	405	14.4	14.5	19.3
그저 그렇다	1,281	45.6	46.0	65.3
높은 편이다	775	27.6	27.8	93.1
매우 높다	193	6.9	6.9	100.0
합 계	2,786	99.2	100.0	
시스템 결측값	22	0.8		
표본수	2,808	100.0		

〈표 4-7〉에 제시된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해서는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19.2%임에 비해, 높은 편이거나 매우 높다라는 응답이 34.7% 수준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2.2% 중에서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비율 63%만 고려  
계산식:  $0.22 \times 0.63 = 0.138$

〈표 4-8〉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비교

	일반노인*	참여노인
매우 낮다	6.3%	4.7%
낮은 편이다	18.0%	14.5%
그저 그렇다	32.7%	46.0%
높은 편이다	39.3%	27.8%
매우 높다	3.8%	6.9%
합 계	100.0(3,011)	100.0(2,786)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비교표(〈표 4-8〉)에 따르면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인 경우 참여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5.1%p 낮게 나타난 반면, 높은 편이거나 매우 높은 경우에도 일반노인에 비해 8.4%p 낮게 나타남에 따라, 참여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일반노인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9〉 가구형태별 주관적 행복감

(단위:명)

주관적 행복감	가구형태				Total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노인가구	기타노인가구	
매우 낮다	37	35	38	15	125
	29.6%	28.0%	30.4%	12.0%	100.0%
	6.0%	3.2%	4.8%	9.3%	4.7%
낮은 편이다	130	133	101	20	384
	33.9%	34.6%	26.3%	5.2%	100.0%
	20.9%	12.1%	12.7%	12.4%	14.4%
그저 그렇다	285	508	367	73	1,233
	23.1%	41.2%	29.8%	5.9%	100.0%
	45.9%	46.3%	46.2%	45.3%	46.1%
높은 편이다	137	332	240	40	749
	18.3%	44.3%	32.0%	5.3%	100.0%
	22.1%	30.2%	30.2%	24.8%	28.0%
매우 높다	32	90	48	13	183
	17.5%	49.2%	26.2%	7.1%	100.0%
	5.2%	8.2%	6.0%	8.1%	6.8%
전 체	621	1,098	794	161	2,674
	23.2%	41.1%	29.7%	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9〉에 의한 참여노인 집단내의 가구형태별 주관적 행복감 분포에 따르면 가구형태별 평균치에 비해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이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높은 편이거나 매우 높은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구형태에 따른 참여노인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상이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4-10〉 자원봉사 활동여부별 주관적 행복감

(단위:명)

주관적 행복감	자원봉사경험		Total
	있 다	없 다	
매우 낮다	13	119	132
	9.8%	90.2%	100.0%
	2.1%	5.5%	4.8%
낮은 편이다	42	361	403
	10.4%	89.6%	100.0%
	6.9%	16.8%	14.6%
그저 그렇다	217	1,047	1,264
	17.2%	82.8%	100.0%
	35.5%	48.8%	45.8%
높은 편이다	252	514	766
	32.9%	67.1%	100.0%
	41.2%	24.0%	27.8%
매우 높다	88	104	192
	45.8%	54.2%	100.0%
	14.4%	4.8%	7.0%
전 체	612	2,145	2,757
	22.2%	77.8%	100.0%
	100.0%	100.0%	100.0%

참여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여부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표 4-10〉)에 의하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참여노인일수록 자원봉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인과관계의 구조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1〉 성별 사업유형별 주관적 행복감

(단위:명)

성 별	사업 유형별	삶의 질					Total
		매우 낮다	낮은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편이다	매우 높다	
남 성	공익형	43 5,8% 78,2%	122 16,5% 69,3%	350 47,2% 61,4%	182 24,6% 51,9%	44 5,9% 49,4%	741 100,0% 59,7%
	교육형	3 1,4% 5,5%	8 3,8% 4,5%	92 44,0% 16,1%	75 35,9% 21,4%	31 14,8% 34,8%	209 100,0% 16,8%
	복지형	7 3,3% 12,7%	38 18,1% 21,6%	92 43,8% 16,1%	62 29,5% 17,7%	11 5,2% 12,4%	210 100,0% 16,9%
	시장형	2 3,4% 3,6%	6 10,3% 3,4%	26 44,8% 4,6%	22 37,9% 6,3%	2 3,4% 2,2%	58 100,0% 4,7%
	인력파견형	0 0,0% 0,0%	2 9,1% 1,1%	9 40,9% 1,6%	10 45,5% 2,8%	1 4,5% 1,1%	22 100,0% 1,8%
	통합형	0 0,0% 0,0%	0 0,0% 0,0%	1 100,0% 0,2%	0 0,0% 0,0%	0 0,0% 0,0%	1 100,0% 0,1%
	소 계	55 4,4% 100,0%	176 14,2% 100,0%	570 45,9% 100,0%	351 28,3% 100,0%	89 7,2% 100,0%	1,241 100,0% 100,0%
	여 성	공익형	61 8,7% 83,6%	143 20,3% 64,4%	332 47,1% 47,1%	134 19,0% 31,9%	35 5,0% 35,4%
교육형	2 1,5% 2,7%	5 3,8% 2,3%	51 39,2% 7,2%	59 45,4% 14,0%	13 10,0% 13,1%	130 100,0% 8,6%	
복지형	6 1,1% 8,2%	61 11,0% 27,5%	253 45,8% 35,9%	192 34,7% 45,7%	41 7,4% 41,4%	553 100,0% 36,4%	
시장형	4 3,3% 5,5%	13 10,6% 5,9%	63 51,2% 8,9%	34 27,6% 8,1%	9 7,3% 9,1%	123 100,0% 8,1%	
인력파견형	0 0,0% 0,0%	0 0,0% 0,0%	6 85,7% 0,9%	1 14,3% 0,2%	0 0,0% 0,0%	7 100,0% 0,5%	
시장형	0 0,0% 0,0%	0 0,0% 0,0%	0 0,0% 0,0%	0 0,0% 0,0%	1 100,0% 1,0%	1 100,0% 0,1%	
소 계	73 4,8% 100,0%	222 14,6% 100,0%	705 46,4% 100,0%	420 27,6% 100,0%	99 6,5% 100,0%	1,519 100,0% 100,0%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남성 참여노인일 경우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해 집단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사업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성별 구분 없이 공익형 참여노인의 경우 비교적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편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교육형 참여노인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동일 집단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형과 인력과건형의 경우에도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여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최장 종사직업) 및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업(최종 종사직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최장 종사직업	(2) 최종 종사직업
1) 직업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2) 직업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참고		
3) 고용형태 ※ 고용형태분류 참고		
4) 종사기간	① _____년부터 ② _____년까지 ③ 총 _____년간	① _____년부터 ② _____년까지 ③ 총 _____년간
5) (그만두기 직전)월소득	약 _____만원	약 _____만원

〈표 4-12〉 최장 종사직업 직업분야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농업, 수렵업, 임업	659	23,5	29,9	29,9
어 업	27	1,0	1,2	31,1
광 업	33	1,2	1,5	32,6
제조업	217	7,7	9,8	42,4
전기, 가스 및 수도	29	1,0	1,3	43,7
건설업	153	5,4	6,9	50,7
도매 및 소매업	173	6,2	7,8	58,5
숙박음식점업	109	3,9	4,9	63,4
운수업	61	2,2	2,8	66,2
통신업	22	0,8	1,0	67,2
금융 및 보험업	49	1,7	2,2	69,4
부동산 및 임대업	12	0,4	0,5	70,0
사업서비스업	91	3,2	4,1	7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0	5,3	6,8	80,9
교육서비스업	139	5,0	6,3	87,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	0,6	0,8	88,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1	0,4	0,5	88,5
기타공공수리 및개인서비스업	136	4,8	6,2	94,7
가사서비스업	114	4,1	5,2	99,8
국제 및 외국기관	4	0,1	0,2	100,0
합 계	2,207	78,6	100,0	
시스템 결측값	601	21,4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분야별 분포(〈표 4-12〉)를 보면 농업, 수렵업, 임업(29.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9.8%), 도매 및 소매업(7.8%), 건설업(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최장 종사직업 직업분류

(단위: 명, %)

직업분류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9	2.5	3.3	3.3
전문가	139	5.0	6.7	1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1	4.0	5.4	15.4
사무종사자	124	4.4	6.0	21.4
서비스종사자	144	5.1	7.0	28.4
판매종사자	186	6.6	9.0	37.3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610	21.7	29.5	66.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8	3.8	5.2	72.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	1.0	1.4	73.4
단순노무종사자	427	15.2	20.6	94.1
군 인	27	1.0	1.3	95.4
기 타	96	3.4	4.6	100.0
합 계	2,070	73.7	100.0	
시스템 결측값	738	26.3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분류별 분포(〈표 4-13〉)에 따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가 전체 참여노인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종사자(20.6%), 판매종사자(9%), 서비스종사자(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최장 종사직업 직업분류 비교

(단위: %)

직업분류	일반노인*	참여노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8	3.3
전문가	3.9	6.7
기술공 및 준전문가	4.6	5.4
사무종사자	2.0	6.0
서비스종사자	5.1	7.0
판매종사자	9.1	9.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38.8	29.5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4	5.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	1.4
단순노무종사자	20.5	20.6
군 인	-	1.3
기 타	0.0	4.6
합 계	100.0(2,757)	100.0(2,070)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이력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분류별 분포에 따르면

참여노인의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비율이 일반노인에 비해 9.3%p 낮은 반면에, 사무종사자(4%p), 전문가(2.8%p), 서비스종사자(1.9%p) 비율에서 8.7%p 가량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노인의 학력수준이 일반노인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과 교육형 참여노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15〉 최장 종사직업 고용형태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상용직	815	29.0	39.5	39.5
임시직	98	3.5	4.8	44.3
일용직	195	6.9	9.5	53.7
고용주	87	3.1	4.2	57.9
자영업자	604	21.5	29.3	87.2
무급가족종사자	177	6.3	8.6	95.8
기 타	87	3.1	4.2	100.0
합 계	2,063	73.5	100.0	
시스템 결측값	745	26.5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고용형태별 분포(〈표 4-15〉)에 따르면 상용직이 전체 참여노인 중에서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29.3%), 일용직(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6〉 최장 종사직업 종사 시작시점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년대 이전	123	4.4	6.8	6.8
50년대	372	13.2	20.5	27.2
60년대	524	18.7	28.8	56.1
70년대	361	12.9	19.9	75.9
80년대	266	9.5	14.6	90.6
90년대	143	5.1	7.9	98.5
2000년대	28	1.0	1.5	100.0
합 계	1,817	64.7	100.0	
시스템 결측값	991	35.3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최초 종사시점별 분포(〈표 4-16〉)에 따르면 1960년대에 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1950~1970년대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4-17>에 의한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최종 종사 시점별 분포에 따르면 1990~2000년대의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7> 최장 종사직업 종사 종료시점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950년대 이전	6	0,2	0,3	0,3
1950년대	12	0,4	0,7	1,0
1960년대	45	1,6	2,5	3,5
1970년대	125	4,5	6,9	10,3
1980년대	307	10,9	16,8	27,2
1990년대	650	23,1	35,7	62,8
2000년대	678	24,1	37,2	100,0
합 계	1,823	64,9	100,0	
시스템 결측값	985	35,1		
표본수	2,808	100,0		

<표 4-18> 최장 종사직업 종사기간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년 이내	142	5,1	7,0	7,0
6~10년 이내	292	10,4	14,4	21,4
11~15년 이내	207	7,4	10,2	31,6
16~20년 이내	298	10,6	14,7	46,3
21~30년 이내	407	14,5	20,1	66,4
31~40년 이내	333	11,9	16,4	82,8
41년 이상	349	12,4	17,2	100,0
합 계	2,028	72,2	100,0	
시스템 결측값	780	27,8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종사기간별 분포를 보면 21년 이상이 라고 응답한 참여노인이 5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9〉 최장 종사직업 분야별 종사기간

(단위: 명, %)

	최장 종사기간							Total
	5년 이내	6~10	11~15	16~20	21~30	31~40	41년 이상	
농업, 수렵업, 임업	6 1.1% 4.5%	11 2.1% 3.9%	21 3.9% 10.4%	47 8.8% 16.0%	87 16.4% 21.6%	106 19.9% 32.9%	254 47.7% 75.1%	532 100.0% 27.0%
어업	1 3.7% 0.8%	1 3.7% 0.4%	4 14.8% 2.0%	4 14.8% 1.4%	7 25.9% 1.7%	8 29.6% 2.5%	2 7.4% 0.6%	27 100.0% 1.4%
광업	0 0.0% 0.0%	7 22.6% 2.5%	5 16.1% 2.5%	7 22.6% 2.4%	8 25.8% 2.0%	3 9.7% 0.9%	1 3.2% 0.3%	31 100.0% 1.6%
제조업	26 12.4% 19.5%	54 25.7% 19.2%	33 15.7% 16.3%	39 18.6% 13.3%	32 15.2% 8.0%	22 10.5% 6.8%	4 1.9% 1.2%	210 100.0% 10.6%
전기, 가스 및 수도	2 7.4% 1.5%	4 14.8% 1.4%	2 7.4% 1.0%	4 14.8% 1.4%	7 25.9% 1.7%	7 25.9% 2.2%	1 3.7% 0.3%	27 100.0% 1.4%
건설업	6 4.1% 4.5%	21 14.3% 7.5%	19 12.9% 9.4%	23 15.6% 7.8%	40 27.2% 10.0%	26 17.7% 8.1%	12 8.2% 3.6%	147 100.0% 7.5%
도매 및 소매업	11 6.6% 8.3%	35 21.1% 12.5%	15 9.0% 7.4%	28 16.9% 9.5%	44 26.5% 10.9%	23 13.9% 7.1%	10 6.0% 3.0%	166 100.0% 8.4%
숙박음식점업	16 15.2% 12.0%	33 31.4% 11.7%	17 16.2% 8.4%	17 16.2% 5.8%	18 17.1% 4.5%	3 2.9% 0.9%	1 1.0% 0.3%	105 100.0% 5.3%
운수업	5 8.5% 3.8%	10 16.9% 3.6%	5 8.5% 2.5%	17 28.8% 5.8%	16 27.1% 4.0%	6 10.2% 1.9%	0 0.0% 0.0%	59 100.0% 3.0%
통신업	3 15.0% 2.3%	4 20.0% 1.4%	3 15.0% 1.5%	0 0.0% 0.0%	6 30.0% 1.5%	3 15.0% 0.9%	1 5.0% 0.3%	20 100.0% 1.0%
금융 및 보험업	3 6.7% 2.3%	9 20.0% 3.2%	7 15.6% 3.5%	13 28.9% 4.4%	10 22.2% 2.5%	3 6.7% 0.9%	0 0.0% 0.0%	45 100.0% 2.3%
부동산 및 임대업	1 9.1% 0.8%	1 9.1% 0.4%	1 9.1% 0.5%	6 54.5% 2.0%	1 9.1% 0.2%	0 0.0% 0.0%	1 9.1% 0.3%	11 100.0% 0.6%
사업서비스업	8 9.2% 6.0%	16 18.4% 5.7%	13 14.9% 6.4%	19 21.8% 6.5%	21 24.1% 5.2%	8 9.2% 2.5%	2 2.3% 0.6%	87 100.0% 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 5.6% 6.0%	11 7.7% 3.9%	18 12.7% 8.9%	24 16.9% 8.2%	46 32.4% 11.4%	33 23.2% 10.2%	2 1.4% 0.6%	142 100.0% 7.2%
교육서비스업	4 3.0% 3.0%	7 5.3% 2.5%	8 6.0% 4.0%	11 8.3% 3.7%	19 14.3% 4.7%	50 37.6% 15.5%	34 25.6% 10.1%	133 100.0% 6.7%



〈계속〉

	최장 종사기간							Total
	5년 이내	6~10	11~15	16~20	21~30	31~40	41년 이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23.5% 3.0%	2 11.8% 0.7%	3 17.6% 1.5%	4 23.5% 1.4%	3 17.6% 0.7%	0 0.0% 0.0%	1 5.9% 0.3%	17 100.0% 0.9%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 10.0% 0.8%	2 20.0% 0.7%	2 20.0% 1.0%	1 10.0% 0.3%	2 20.0% 0.5%	1 10.0% 0.3%	1 10.0% 0.3%	10 100.0% 0.5%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6 12.2% 12.0%	31 23.7% 11.0%	16 12.2% 7.9%	24 18.3% 8.2%	28 21.4% 7.0%	15 11.5% 4.7%	1 0.8% 0.3%	131 100.0% 6.6%
가사서비스업	11 16.2% 8.3%	22 32.4% 7.8%	9 13.2% 4.5%	5 7.4% 1.7%	6 8.8% 1.5%	5 7.4% 1.6%	10 14.7% 3.0%	68 100.0% 3.4%
국제 및 외국기관	1 25.0% 0.8%	0 0.0% 0.0%	1 25.0% 0.5%	1 25.0% 0.3%	1 25.0% 0.2%	0 0.0% 0.0%	0 0.0% 0.0%	4 100.0% 0.2%
전 체	133 6.7% 100.0%	281 14.2% 100.0%	202 10.2% 100.0%	294 14.9% 100.0%	402 20.4% 100.0%	322 16.3% 100.0%	338 17.1% 100.0%	1,972 100.0%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직업분류별 종사기간 분포(〈표 4-19〉)에 따르면 농업, 수렵업, 임업 및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일수록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비교적 종사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최종 종사직업 직업분야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농업, 수렵업, 임업	525	18,7	28,1	28,1
어 업	24	0,9	1,3	29,3
광 업	17	0,6	0,9	30,3
제조업	159	5,7	8,5	38,7
전기, 가스 및 수도	23	0,8	1,2	40,0
건설업	142	5,1	7,6	47,6
도매 및 소매업	126	4,5	6,7	54,3
숙박음식점업	106	3,8	5,7	60,0
운수업	48	1,7	2,6	62,5
통신업	22	0,8	1,2	63,7
금융 및 보험업	38	1,4	2,0	65,7
부동산 및 임대업	22	0,8	1,2	66,9
사업서비스업	88	3,1	4,7	7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2,7	4,0	75,6
교육서비스업	110	3,9	5,9	8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4	1,2	1,8	83,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0	0,4	0,5	83,9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95	6,9	10,4	94,3
가사서비스업	105	3,7	5,6	99,9
국제 및 외국기관	2	0,1	0,1	100,0
합 계	1,871	66,6	100,0	
시스템 결측값	937	33,4		
표본수	2,808	100,0		

〈표 4-20〉에 제시된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최근 종사한 직업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최장 종사직업과 마찬가지로 농업, 수렵업, 임업(28.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0.4%), 제조업(8.5%), 건설업(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최종 종사직업 직업분류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5	2.0	3.1	3.1
전문가	105	3.7	5.9	9.0
기술공 및 준전문가	87	3.1	4.9	13.8
사무종사자	73	2.6	4.1	17.9
서비스종사자	145	5.2	8.1	26.1
판매종사자	144	5.1	8.1	34.1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478	17.0	26.8	6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8	2.8	4.4	65.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6	0.9	1.5	66.8
단순노무종사자	500	17.8	28.0	94.8
군 인	3	0.1	0.2	95.0
기 타	90	3.2	5.0	100.0
합 계	1,784	63.5	100.0	
시스템 결측값	1,024	36.5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최근 종사한 직업의 분류별 분포(〈표 4-21〉)에 따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가 전체 참여노인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종사자(28%), 판매종사자(8.1%), 서비스종사자(8.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장 종사직업의 직업 분류별 분포와 비교할 때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의 감소폭을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7.4%p 증가함으로써 흡수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4-22〉 최종 종사직업 고용형태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상용직	633	22.5	35.5	35.5
임시직	144	5.1	8.1	43.6
일용직	240	8.5	13.5	57.0
고용주	63	2.2	3.5	60.5
자영업자	481	17.1	27.0	87.5
무급가족종사자	137	4.9	7.7	95.2
기 타	86	3.1	4.8	100.0
합 계	1,784	63.5	100.0	
시스템 결측값	1,024	36.5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최근 종사한 직업의 고용형태별 분포에 따르면 상용직이 전체 참여노인 중에서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27%), 일용직(13.5%), 임시직(8.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장 종사직업의 고용형태별 분포와 비교할 때 상용직 및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든(6.3%p) 대신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늘어난(7.3%p) 점을 감안하면 최근 종사직업의 고용 안정성이 일정부문 불안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23〉 최장 고용형태별 최종 고용형태

(단위: 명, %)

최장 고용형태	최종고용형태							Total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기 타	
상용직	535	43	27	16	43	6	12	682
	78.4%	6.3%	4.0%	2.3%	6.3%	0.9%	1.8%	100.0%
	86.4%	30.5%	11.7%	25.8%	9.1%	4.5%	14.6%	39.1%
임시직	2	64	9	0	3	0	1	79
	2.5%	81.0%	11.4%	0.0%	3.8%	0.0%	1.3%	100.0%
	0.3%	45.4%	3.9%	0.0%	0.6%	0.0%	1.2%	4.5%
일용직	9	3	149	0	4	1	3	169
	5.3%	1.8%	88.2%	0.0%	2.4%	0.6%	1.8%	100.0%
	1.5%	2.1%	64.5%	0.0%	0.8%	0.7%	3.7%	9.7%
고용주	12	3	2	44	8	0	1	70
	17.1%	4.3%	2.9%	62.9%	11.4%	0.0%	1.4%	100.0%
	1.9%	2.1%	0.9%	71.0%	1.7%	0.0%	1.2%	4.0%
자영업자	43	21	27	2	409	8	5	515
	8.3%	4.1%	5.2%	0.4%	79.4%	1.6%	1.0%	100.0%
	6.9%	14.9%	11.7%	3.2%	86.3%	6.0%	6.1%	29.5%
무급가족 종사자	14	5	13	0	5	119	3	159
	8.8%	3.1%	8.2%	0.0%	3.1%	74.8%	1.9%	100.0%
	2.3%	3.5%	5.6%	0.0%	1.1%	88.8%	3.7%	9.1%
기 타	4	2	4	0	2	0	57	69
	5.8%	2.9%	5.8%	0.0%	2.9%	0.0%	82.6%	100.0%
	0.6%	1.4%	1.7%	0.0%	0.4%	0.0%	69.5%	4.0%
전 체	619	141	231	62	474	134	82	1,743
	35.5%	8.1%	13.3%	3.6%	27.2%	7.7%	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장 고용형태별 최종 고용형태의 분포(〈표 4-23〉)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고용안정성 훼손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최장 고용형태가 상용직인 참여노인의 경우 최종 고용형태를 보면 여전히 상용직(78.4%)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10% 정도는 임시·일용직으로의 신분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장 고용형태가 임시직인 참여노인의 경우에도 직업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일용직 신분으로 11.4% 가량이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고용주인 경우에도 최종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면 상용직(17.1%)이나 자영업자(11.4%)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24〉 최종 종사직업 종사 시작시점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년대 이전	83	3.0	5.3	5.3
50년대	216	7.7	13.8	19.1
60년대	271	9.7	17.3	36.3
70년대	224	8.0	14.3	50.6
80년대	276	9.8	17.6	68.2
90년대	316	11.3	20.1	88.3
2000년대	183	6.5	11.7	100.0
합 계	1,569	55.9	100.0	
시스템 결측값	1,239	44.1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최근에 종사한 직업의 최초 종사시점별 분포에 따르면 90년대에 2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5〉 최종 종사직업 종사 종료시점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년대 이전	2	0.1	0.1	0.1
50년대	3	0.1	0.2	0.3
60년대	14	0.5	0.9	1.2
70년대	53	1.9	3.4	4.6
80년대	135	4.8	8.7	13.3
90년대	505	18.0	32.4	45.7
2000년대	846	30.1	54.3	100.0
합 계	1,558	55.5	100.0	
시스템 결측값	1,250	44.5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최근에 종사한 직업의 최종 종사시점별 분포(〈표 4-25〉)에 따르면 1990~2000년대의 비중이 86.7%를 차지하고 있다.(최장 종사직업인 경우에는 73% 수준이었음)



〈표 4-26〉 최종 종사직업 종사기간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년 이내	410	14.6	24.2	24.2
6~10년 이내	309	11.0	18.3	42.5
11~15년 이내	138	4.9	8.2	50.6
16~20년 이내	145	5.2	8.6	59.2
21~30년 이내	202	7.2	11.9	71.1
31~40년 이내	216	7.7	12.8	83.9
41년 이상	273	9.7	16.1	100.0
합 계	1,693	60.3	100.0	
시스템 결측값	1,115	39.7		
표본수	2,808	100.0		

최종 종사직업의 종사기간별 분포(〈표 4-26〉)를 보면 10년 이내가 42.5%를 차지하고 있어 〈표 4-18〉에 제시된 최장 종사직업의 21.4%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장 종사직업에 비해 종사상 지위에 있어 최종 종사직업의 고용안정성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앞선 분석결과와 종사기간 측면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7〉 성별 최종 무직기간별 분포

최근 무직기간	성 별		Total
	남 성	여 성	
5년 이내	348	324	672
	51.8%	48.2%	100.0%
	41.7%	45.0%	43.2%
6년~10년	237	171	408
	58.1%	41.9%	100.0%
	28.4%	23.8%	26.3%
11년~20년	175	149	324
	54.0%	46.0%	100.0%
	21.0%	20.7%	20.8%
21년~30년	54	43	97
	55.7%	44.3%	100.0%
	6.5%	6.0%	6.2%
31년 이상	20	33	53
	37.7%	62.3%	100.0%
	2.4%	4.6%	3.4%
전 체	834	720	1,554
	53.7%	46.3%	100.0%
	100.0%	100.0%	100.0%

참여노인의 최종 무직기간별 분포(〈표 4-27〉)를 보면 응답한 참여노인의 69.5%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전 무직기간이 10년 이내이며, 성별로 보면 비교적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무직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0년 초과는 응답자의 9.6%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무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여부를 비교하면 일반노인이 참여노인에 비해 3.6%p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4-34〉 운전면허 여부별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운전면허여부		Total
	있 다	없 다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있음	192 22.0% 38.6%	682 78.0% 30.4%	874 100.0% 31.9%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없음	306 16.4% 61.4%	1,562 83.6% 69.6%	1,868 100.0% 68.1%
전 체	498 18.2% 100.0%	2,244 81.8% 100.0%	2,742 100.0% 100.0%

참여노인의 직전 1년 동안의 구직활동 경험비율을 운전면허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운전면허가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해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그룹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5.6%p)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5〉 자격증 여부별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자격증 여부		Total
	있 다	없 다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있음	93 11.3% 32.7%	732 88.7% 31.2%	825 100.0% 31.4%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없음	191 10.6% 67.3%	1,613 89.4% 68.8%	1,804 100.0% 68.6%
전 체	284 10.8% 100.0%	2,345 89.2% 100.0%	2,629 100.0% 100.0%

한편, 참여노인의 자격증 소유 여부에 따른 구직활동 경험비율을 보면 미미하나마 자격증을 소유한 참여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6〉 기술 및 경력여부별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기술 및 경력 여부		Total
	있 다	없 다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있음	87 10,7% 41,2%	728 89,3% 30,4%	815 100,0% 31,3%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없음	124 6,9% 58,8%	1,665 93,1% 69,6%	1,789 100,0% 68,7%
전 체	211 8,1% 100,0%	2,393 91,9% 100,0%	2,604 100,0% 100,0%

〈표 4-36〉에 제시된 참여노인의 기술 및 경력 보유 여부에 따른 구직활동 경험비율을 보더라도 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참여노인 일수록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이 높게(3.8%p)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형편은 어떠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약간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다    ⑤ 매우 좋다

〈표 4-37〉 주관적 경제형편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나쁘다	524	18,7	18,8	18,8
약간 나쁘다	862	30,7	30,9	49,7
보통이다	1,178	42,0	42,2	91,9
약간 좋다	184	6,6	6,6	98,5
매우 좋다	41	1,5	1,5	100,0
합 계	2,789	99,3	100,0	
시스템 결측값	19	0,7		
표본수	2,808	100,0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참여노인이 느끼는 주관적 경제형편 정도를 묻는 질문(〈표 4-37〉)에 있어서는 “나쁘다”고 응답한 비중(49.7%)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8.1%)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8〉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주관적 경제형편

	일반노인*	참여노인
매우 나쁘다	22.1	18.8
약간 나쁘다	27.9	30.9
보통이다	38.7	42.2
약간 좋다	9.0	6.6
매우 좋다	2.3	1.5
합 계	100,0(3,023)	100,0(2,789)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느끼는 주관적 경제형편 정도를 일반노인과 참여노인과 비교하는 경우 “나쁘다”는 견해는 양쪽 모두 50%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좋다”는 견해는 일반노인이 참여노인에 비해 3.2%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세하나마 일반노인의 주관적 경제형편 인식정도가 참여노인의 그것에 비해 긍정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39〉 주관적 경제형편별 주관적 건강상태 분포

주관적 경제형편	주관적 건강상태					Total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	77 14.8% 56.6%	151 29.1% 27.1%	132 25.4% 13.2%	79 15.2% 13.7%	80 15.4% 15.7%	519 100.0% 18.7%
약간 나쁘다	31 3.6% 22.8%	221 22.8% 39.7%	315 36.7% 31.6%	190 22.1% 33.0%	101 11.8% 19.8%	858 100.0% 30.9%
보통이다	26 2.2% 19.1%	166 14.1% 29.8%	500 42.6% 50.2%	249 21.2% 43.2%	233 19.8% 45.7%	1,174 100.0% 42.3%
약간 좋다	2 1.1% 1.5%	17 9.2% 3.1%	38 20.7% 3.8%	53 28.8% 9.2%	74 40.2% 14.5%	184 100.0% 6.6%
매우 좋다	0 0.0% 0.0%	2 4.9% 0.4%	12 29.3% 1.2%	5 12.2% 0.9%	22 53.7% 4.3%	41 100.0% 1.5%
전 체	136 4.9% 100.0%	557 20.1% 100.0%	997 35.9% 100.0%	576 20.7% 100.0%	510 18.4% 100.0%	2,776 100.0% 100.0%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주관적 경제형편 인식정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주관적 경제형편이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에서 53.7%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자료에 따르면 주관적 경제형편이 나쁘다고 응답한 참여노인은 반드시 주관적 건강상태도 나쁘다고 일반화 시킬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 관점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일반화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어르신을 포함하여 어르신 댁의 소득이 있는 각 가구원의 소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1) 근로 및 사업소득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 07년 월평균			2) 자산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 07년 월평균			3)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경로연금, 교통수당(일시금 제외) ※ 07년 월평균			4) 사적이전소득 자녀, 친인척, 사회단체로 부터의 보조금 및 현물환산액 ※ 06년 소득총액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본인												

〈표 4-40〉 참여노인 소득원별 기술통계량

(단위: 명, 만원)

	응답자	최소값	최대값	월평균	표준편차
근로 및 사업소득	655	1	300	26,01	31,687
자산소득	318	1	900	58,57	94,778
공적이전소득	1,684	1	360	15,73	46,969
사적이전소득	1,212	1	960	10,50	158,540

참여노인의 소득원별 통계(〈표 4-40〉)를 보면 전체 가구원 소득 중에서 우선 참여노인의 소득원별 통계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을 제외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은 655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은 26만원이며,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각각 58만 6천원, 15만 7천원, 10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sup>15)</sup>

15) 각 소득원별로 소득이 있는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41〉 참여노인 월평균 총소득 계층별 분포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만원 이하	1,906	67.9	83.9	83.9
50만원초과~100만원이하	179	6.4	7.9	91.8
100만원초과~150만원이하	64	2.3	2.8	94.6
150만원초과~200만원이하	52	1.9	2.3	96.9
200만원초과~300만원이하	45	1.6	2.0	98.9
300만원초과~400만원이하	14	0.5	0.6	99.5
4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4	0.1	0.2	99.7
500만원초과	7	0.2	0.3	100.0
합 계	2,271	80.9	100.0	
시스템 결측값	537	19.1		
표본수	2,808	100.0		

가구원 중 참여노인만의 월평균 총소득(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제외)을 소득계층별로 나누면 50만원 이하가 응답한 참여노인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참여노인이 이에 해당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2〉 참여노인 가구기준 월평균 총소득 계층별 분포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0만원 이하	1,557	55.4	64.6	64.6
50만원초과~100만원이하	299	10.6	12.4	77.0
100만원초과~150만원이하	167	5.9	6.9	83.9
150만원초과~200만원이하	109	3.9	4.5	88.4
200만원초과~300만원이하	148	5.3	6.1	94.6
300만원초과~400만원이하	63	2.2	2.6	97.2
4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39	1.4	1.6	98.8
500만원초과	29	1.0	1.2	100.0
합 계	2,411	85.9	100.0	
시스템 결측값	397	14.1		
표본수	2,808	100.0		

한편, 참여노인을 포함한 가구기준 월평균 총소득을 보더라도 50만원 이하의 가구가 응답자의 64.6%를 차지하며, 50~100만원의 가구도 12.4%나 됨으로써 응답 참여노인의 77%는 월평균 가구총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43〉 참여노인 및 가구소득 월평균 총소득 기술통계량

(단위: 만원)

	응답자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참여노인 월평균 총소득	2,271	1	901	34,6만원	67,1848
가구기준 월평균 총소득	2,411	1	969	74,8만원	116,2729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을 제외한 참여노인 개인의 월평균 소득 및 총가구원의 월평균 총소득은



각각 34만 6천원, 74만 8천원으로써 전체 가구원 소득 중 46%를 참여노인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4〉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소득원별 소득수준 비교

(단위: 명, 만원)

	일반노인*	참여노인
근로 및 사업소득	56.0 (841)	26.0 (655)
자산소득	61.0 (377)	58.6 (318)
공적이전소득	11.8 (2,805)	15.7 (1,684)
사적이전소득	17.6 (2,381)	10.5 (1,212)
총소득	48.6 (3,016)	34.6 (2,271)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소득원별 소득수준을 비교(〈표 4-44〉)하면 일반노인이 참여노인에 비해 근로 및 사업소득(참여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소득 제외)은 2.2배, 자산소득은 1.04배, 사적이전소득은 1.7배 높으며, 유일하게 공적이전소득의 경우만 참여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총소득 기준으로는 일반노인이 참여노인에 비해 14만원 많은 1.4배 높은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일반노인의 소득수준을 물가상승을 감안한 '07년 화폐가치로 환산<sup>16)</sup>하는 경우에는 53.1만원으로 배율은 1.4배에서 1.5배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4-45〉 사업유형별 · 연령계층별 참여노인 소득원 및 월평균 총소득

(단위: 만원)

		근로사업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월평균 총소득
사업유형	공익형	20.3	43.2	8.1	8.7	21.5
	교육형	46.2	89.7	62.4	15.7	94.8
	복지형	26.2	61.2	8.0	11.3	29.6
	시장형	26.0	40.0	11.2	11.3	30.2
연령계층	64세미만	47.7	69.2	76.6	10.5	77.8
	65~69	28.8	53.4	19.9	11.7	39.7
	70~74	22.8	62.9	11.7	10.5	30.2
	75~79	21.5	55.7	9.2	9.4	25.7
	80세이상	16.4	20.8	6.7	8.7	16.7

참여노인의 월평균 총소득을 참여하고 있는 사업유형별, 연령계층별로 구분(〈표 4-45〉)하여 비교하는 경우 사업유형에 있어서는 교육형일 경우가 가장 높은(94.8만원) 반면 공익형 참여

16)  $48.6 \times (1+0.03)^5 = 53.1$



노인이 가장 낮은 21만 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계층별일 경우는 전기고령자일수록 후기 고령자에 비해 월평균 총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영농(소득이 있는 텃밭 또는 농지경작, 가축사육이나 양봉)  
(☞ 16-1-1번으로)

② 단순노무(막노동, 경비업무 등)

③ 공동작업장(봉투접기 또는 부품조립 등)

④ 자영업

⑤ 재가 부업

⑥ 기타( )

16-1-1. 어르신께서는 영농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주로 내가 우리 집의 농사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② 다른 사람(배우자, 자녀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한다.

③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일부만 거든다.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하는 것이 좋아서                      ② 돈이 필요해서

③ 건강유지를 위해서                      ④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⑤ 시간이 남아서                              ⑥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⑦ 일손이 모자라서                          ⑧ 계속 해왔던 일이라서

⑨ 사회적 지위, 명예를 위해서            ⑩ 기타( )

〈표 4-46〉 (근로 및 사업소득 있는) 참여노인이 하고 있는 종류의 일

(단위: 명)

영 농	추가적인 일의 내용					전 체
	단순노무	공동작업장	자영업	재가부업	기 타	
181	80	11	14	21	115	422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을 제외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한(655명) 참여노인 중에서 64%인 422명이 하고 있는 종류의 일을 보면, 영농이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 노무가 20%로 뒤를 잇고 있다.



〈표 4-47〉 참여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영농” 일 경우 참여정도

(단위:명)

주요내가	참여정도		전 체
	다른 사람과 비슷	일부 보조	
111	34	18	163

주: “영농” 이라고 응답한 참여노인(422명) 중에서 163명(39%) 응답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을 제외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소득의 원천이 영농일 경우 참여정도를 묻는 정도에는 응답자(111명)의 68%가 주로 본인이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8〉 (근로 및 사업소득 있는) 참여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

이 유	비율(명)
일하는 것이 좋아서	4.5%(16)
돈이 필요해서	65.0%(230)
건강유지를 위해서	6.5%(23)
사람과 사귄 수 있어	1.1%(4)
시간이 남아서	0.6%(2)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2.3%(8)
일손이 모자라	1.1%(4)
계속 해와서	16.1%(57)
사회적 지위·명예	0.6%(2)
기 타	2.3%(8)
계	354

주: 참여노인 중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응답자(655명) 중에서 354명(54%) 응답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해서”가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해오던 일이라서”도 16.1%나 차지해 영농의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어르신 가구의 2007년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약 \_\_\_\_\_ 만원 ○

〈표 4-49〉 2007년 참여노인 가구기준 월평균 지출액

(단위:만원)

	응답자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월평균지출액	2,735	1	500	61,25	55,087

참여노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을 보면 61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독신가구 33.7만원, 노인부부가구 60.7만원, 자녀동거노인가구 88.5만원, 기타노인가구 56.9만원으로 나타나 노인독신가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월평균 지출액



수준이 낮아 전체 가구 평균의 55%에 불과하다.

한편, 참여노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노인일자리사업 소득 제외) 대비 월평균 지출액 비율은 7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1.3만원/74.8만원)

〈표 4-50〉 2007년 참여노인 가구기준 월평균 지출액 계층별 분포

(단위: 명, %)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20만원이하	548	19,5	20,0	20,0
20만원초과~50만원이하	1,234	43,9	45,1	65,2
50만원초과~100만원이하	609	21,7	22,3	87,4
100만원초과~150만원이하	169	6,0	6,2	93,6
150만원초과~200만원이하	108	3,8	3,9	97,6
200만원초과~300만원이하	61	2,2	2,2	99,8
300만원초과	6	0,2	0,2	100,0
합 계	2,735	97,4	100,0	
시스템 결측값	73	2,6		
표본수	2,808	100,0		

참여노인 가구기준 월평균 지출액을 계층별(〈표 4-50〉)로 보면 20~50만원 구간이 가장 높은 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참여노인 가구의 87.4%는 월평균 지출액 규모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제5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사업 참여실태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이용하고 있던 기관(경로당, 복지관 등)
- ②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 ③ 지역내 통·반장 또는 이장
- ④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
- ⑤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및 리플렛
- ⑥ 동네 또는 길거리 현수막
- ⑦ 인터넷
- ⑧ TV, 라디오 등 방송
- ⑨ 지역소식지 또는 신문
- ⑩ 기타( )

노인일자리사업을 처음 접하게 된 주된 경로를 묻는 질문(〈표 5-1〉)에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이용하고 있던 기관” 이라고 응답한 참여노인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이웃 등의 지인”을 통해서가 26.8%, “시군구나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는 14.1%, “지역 내 통반장 또는 이장”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3%로 나타남에 따라 열거한 상위 4가지 통로가 전체의 87%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상위 4개 통로의 의사전달체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폐쇄적임에 따라 현수막, 공중파 및 지역매체 등 열린 공간에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된 참여경로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위 4개 통로 중에서 “가족, 이웃 등 지인” 이라고 응답한 그룹 내에서 여성참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4개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열린 공간에서의 정보 획득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표 5-1〉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성 별		전 체
	남 성	여 성	
이용하고 있던 기관 (경로당, 복지관 등)	401	499	900
	44.6%	55.4%	100.0%
	32.7%	32.6%	32.6%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257	483	740
	34.7%	65.3%	100.0%
	20.9%	31.5%	26.8%
지역 내 통반장 또는 이장	154	212	366
	42.1%	57.9%	100.0%
	12.6%	13.8%	13.3%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	193	195	388
	49.7%	50.3%	100.0%
	15.7%	12.7%	14.1%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및 리플렛	80	31	111
	72.1%	27.9%	100.0%
	6.5%	2.0%	4.0%
동네 또는 길거리 현수막	31	24	55
	56.4%	43.6%	100.0%
	2.5%	1.6%	2.0%
인터넷	5	1	6
	83.3%	16.7%	100.0%
	0.4%	0.1%	0.2%
TV, 라디오 등 방송	27	20	47
	57.4%	42.6%	100.0%
	2.2%	1.3%	1.7%
지역소식지 또는 신문	45	26	71
	63.4%	36.6%	100.0%
	3.7%	1.7%	2.6%
기 타	34	40	74
	45.9%	54.1%	100.0%
	2.8%	2.6%	2.7%
전 체	1,227	1,531	2,758
	44.5%	55.5%	100.0%
	100.0%	100.0%	100.0%

연령계층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를 구분(〈표 5-2〉)하면 전기고령자(65~74세)는 “이용하고 있던 기관”이나 “가족, 이웃 등 지인”에 응답한 비율이 적절히 분산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후기고령자(75~84세)인 경우에는 “이용하고 있던 기관”에 응답비율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린 공간에서의 정보 획득력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우위에 있다고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연령계층에 있어서도 후기고령자에 비해 전기고령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열린 공간에서의 홍보효과 실질적 제고 노력과 함께 정보 취득력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여성과 후기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2〉 연령계층별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연령계층							전 체
	64미만	65~69	70~74	75~79	80~84	85~89	90이상	
이용하고 있던 기관 (경로당, 복지관 등)	73	230	342	182	54	8	1	890
	8.2%	25.8%	38.4%	20.4%	6.1%	0.9%	0.1%	100.0%
	33.0%	28.8%	32.8%	34.7%	45.8%	29.6%	33.3%	32.5%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84	229	281	111	21	4	1	731
	11.5%	31.3%	38.4%	15.2%	2.9%	0.5%	0.1%	100.0%
	38.0%	28.7%	26.9%	21.2%	17.8%	14.8%	33.3%	26.7%
지역내 통반장 또는 이장	13	99	147	84	17	6	0	366
	3.6%	27.0%	40.2%	23.0%	4.6%	1.6%	0.0%	100.0%
	5.9%	12.4%	14.1%	16.0%	14.4%	22.2%	0.0%	13.4%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	12	109	152	90	16	6	1	386
	3.1%	28.2%	39.4%	23.3%	4.1%	1.6%	0.3%	100.0%
	5.4%	13.7%	14.6%	17.2%	13.6%	22.2%	33.3%	14.1%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및 리플렛	5	33	40	25	6	2	0	111
	4.5%	29.7%	36.0%	22.5%	5.4%	1.8%	0.0%	100.0%
	2.3%	4.1%	3.8%	4.8%	5.1%	7.4%	0.0%	4.1%
동네 또는 길거리 현수막	7	20	21	5	2	0	0	55
	12.7%	36.4%	38.2%	9.1%	3.6%	0.0%	0.0%	100.0%
	3.2%	2.5%	2.0%	1.0%	1.7%	0.0%	0.0%	2.0%
인터넷	1	3	1	1	0	0	0	6
	16.7%	50.0%	16.7%	16.7%	0.0%	0.0%	0.0%	100.0%
	0.5%	0.4%	0.1%	0.2%	0.0%	0.0%	0.0%	0.2%
TV, 라디오 등 방송	5	21	15	5	1	0	0	47
	10.6%	44.7%	31.9%	10.6%	2.1%	0.0%	0.0%	100.0%
	2.3%	2.6%	1.4%	1.0%	0.8%	0.0%	0.0%	1.7%
지역소식지 또는 신문	11	29	21	8	0	0	0	69
	15.9%	42.0%	30.4%	11.6%	0.0%	0.0%	0.0%	100.0%
	5.0%	3.6%	2.0%	1.5%	0.0%	0.0%	0.0%	2.5%
기 타	10	25	24	13	1	1	0	74
	13.5%	33.8%	32.4%	17.6%	1.4%	1.4%	0.0%	100.0%
	4.5%	3.1%	2.3%	2.5%	0.8%	3.7%	0.0%	2.7%
전 체	221	798	1,044	524	118	27	3	2,735
	8.1%	29.2%	38.2%	19.2%	4.3%	1.0%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읍면동)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를 구분(〈표 5-3〉)하면 경로당, 복지관 등의 “이용하고 있던 기관” 이라고 응답한 그룹 내에서 전체 평균(32.9%)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낮은(30.6%, 27.6%)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지역 거주자는 높게(35.1%) 나타나고 있어, 이는 거주지별 이용기관의 인프라 격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 내 통반장 또는 이장”인 경우 읍면지역 특히 면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참여자 모집과정의 폐쇄성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표 5-3〉 거주지별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거주지			전 체
	읍	면	동	
이용하고 있던 기관 (경로당, 복지관 등)	94	163	608	865
	10.9%	18.8%	70.3%	100.0%
	30.6%	27.6%	35.1%	32.9%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98	105	494	697
	14.1%	15.1%	70.9%	100.0%
	31.9%	17.8%	28.5%	26.5%
지역 내 통반장 또는 이장	64	188	104	356
	18.0%	52.8%	29.2%	100.0%
	20.8%	31.9%	6.0%	13.5%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	32	97	244	373
	8.6%	26.0%	65.4%	100.0%
	10.4%	16.4%	14.1%	14.2%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및 리플렛	6	16	82	104
	5.8%	15.4%	78.8%	100.0%
	2.0%	2.7%	4.7%	4.0%
동네 또는 길거리 현수막	6	6	41	53
	11.3%	11.3%	77.4%	100.0%
	2.0%	1.0%	2.4%	2.0%
인터넷	1	0	5	6
	16.7%	0.0%	83.3%	100.0%
	0.3%	0.0%	0.3%	0.2%
TV, 라디오 등 방송	1	3	40	44
	2.3%	6.8%	90.9%	100.0%
	0.3%	0.5%	2.3%	1.7%
지역소식지 또는 신문	3	1	63	67
	4.5%	1.5%	94.0%	100.0%
	1.0%	0.2%	3.6%	2.5%
기 타	2	11	53	66
	3.0%	16.7%	80.3%	100.0%
	0.7%	1.9%	3.1%	2.5%
전 체	307	590	1,734	2,631
	11.7%	22.4%	65.9%	100.0%
	100.0%	100.0%	100.0%	100.0%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계비 마련                      ② 용돈 마련                      ③ 사회참여  
 ④ 건강증진                          ⑤ 소외감 해소                      ⑥ 자기발전  
 ⑦ 기타(                                  )





〈표 5-5〉에 제시된 연령계층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이유를 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생계비 마련이 주된 참여이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64세미만의 참여노인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생계비 마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사회참여 목적이 높아 용돈마련 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연령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발전이 순위권 내에 진입해 있다. 한편, 보편적으로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마련이나 용돈마련에 대한 비중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 연령계층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연령계층							전 체
	64미만	65-69	70-74	75-79	80-84	85-89	90이상	
생계비 마련	80	421	583	295	66	15	2	1,462
	5.5%	28.8%	39.9%	20.2%	4.5%	1.0%	0.1%	100.0%
	35.2%	53.2%	55.9%	56.4%	55.9%	55.6%	66.7%	53.5%
용돈 마련	36	163	224	125	27	8	0	583
	6.2%	28.0%	38.4%	21.4%	4.6%	1.4%	0.0%	100.0%
	15.9%	20.6%	21.5%	23.9%	22.9%	29.6%	0.0%	21.3%
사회참여	66	120	87	46	13	2	1	335
	19.7%	35.8%	26.0%	13.7%	3.9%	0.6%	0.3%	100.0%
	29.1%	15.2%	8.3%	8.8%	11.0%	7.4%	33.3%	12.3%
건강증진	13	37	81	33	7	1	0	172
	7.6%	21.5%	47.1%	19.2%	4.1%	0.6%	0.0%	100.0%
	5.7%	4.7%	7.8%	6.3%	5.9%	3.7%	0.0%	6.3%
소외감 해소	3	7	11	6	2	0	0	29
	10.3%	24.1%	37.9%	20.7%	6.9%	0.0%	0.0%	100.0%
	1.3%	0.9%	1.1%	1.1%	1.7%	0.0%	0.0%	1.1%
자기발전	25	35	35	12	2	1	0	110
	22.7%	31.8%	31.8%	10.9%	1.8%	0.9%	0.0%	100.0%
	11.0%	4.4%	3.4%	2.3%	1.7%	3.7%	0.0%	4.0%
기 타	4	9	22	6	1	0	0	42
	9.5%	21.4%	52.4%	14.3%	2.4%	0.0%	0.0%	100.0%
	1.8%	1.1%	2.1%	1.1%	0.8%	0.0%	0.0%	1.5%
전 체	227	792	1,043	523	118	27	3	2,733
	8.3%	29.0%	38.2%	19.1%	4.3%	1.0%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표 5-6〉)를 보면, 생계비 마련에 대한 욕구는 공익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형의 경우 사회참여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 유형 내에서도 생계비 마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력과견형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사회참여가 29.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 뿐만 아니라 노인시험감독관과 같은 파견형 참여노인도 표본에 다수 포함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형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유형의 참여노인들은 각 항목에 대한 비중은 상호 다를지라도 경제적 보충, 사회참여, 건강증진 순의 큰 흐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5-6〉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사업유형						전 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	통합형	
생계비 마련	936	59	383	81	11	1	1,471
	63.6%	4.0%	26.0%	5.5%	0.7%	0.1%	100.0%
	64.9%	17.7%	50.5%	44.8%	40.7%	50.0%	53.6%
용돈 마련	299	47	184	48	5	0	583
	51.3%	8.1%	31.6%	8.2%	0.9%	0.0%	100.0%
	20.7%	14.1%	24.3%	26.5%	18.5%	0.0%	21.3%
사회참여	87	127	91	20	8	1	334
	26.0%	38.0%	27.2%	6.0%	2.4%	0.3%	100.0%
	6.0%	38.1%	12.0%	11.0%	29.6%	50.0%	12.2%
건강증진	75	30	48	20	1	0	174
	43.1%	17.2%	27.6%	11.5%	0.6%	0.0%	100.0%
	5.2%	9.0%	6.3%	11.0%	3.7%	0.0%	6.3%
소외감 해소	12	3	10	4	0	0	29
	41.4%	10.3%	34.5%	13.8%	0.0%	0.0%	100.0%
	0.8%	0.9%	1.3%	2.2%	0.0%	0.0%	1.1%
자기발전	26	53	26	4	1	0	110
	23.6%	48.2%	23.6%	3.6%	0.9%	0.0%	100.0%
	1.8%	15.9%	3.4%	2.2%	3.7%	0.0%	4.0%
기 타	7	14	16	4	1	0	42
	16.7%	33.3%	38.1%	9.5%	2.4%	0.0%	100.0%
	0.5%	4.2%	2.1%	2.2%	3.7%	0.0%	1.5%
전 체	1,442	333	758	181	27	2	2,743
	52.6%	12.1%	27.6%	6.6%	1.0%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2007년 이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① 예 (☞ 20-1번으로)

② 아니오 (☞ 21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표 5-7〉)과 관련해서는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참여노인 중 45.8%는 그 이전(2004~2006년)에 한번이라도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참여경력 여부를 비교하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계층에 따른 참여경력 여부는 85~89세의 연령계층을 제외하고 고연령계층으로 갈수록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참여경력 여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있다”와 “없다”가 45 : 55의 고정적인 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사업유형에 따른 참여경력 여부는 공익·복지·시장형, 특히 시장형인 경우에는 참여경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있다”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형은 참여 여부 비중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한 년도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2004년

② 2005년

③ 2006년

어르신께서는 2006년 한해 총 몇 개월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_\_\_\_\_ 개월

어르신께서는 2007년 초에 본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 기간에도 2006년에 하셨던 활동(강의제공, 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하셨습니다?

① 예( \_\_\_\_\_ 개월)

② 아니오

어르신께서는 20-2 및 20-3에서 응답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까?

① 예(☞ 21번으로)

② 아니오(☞ 20-4-1번으로)

어르신께서는 공식적인 예산지급 종료 후인 2006년 말 ~ 2007년초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자원봉사)로 활동하였다.

② 예산기간보다 급여를 적게 받으며 활동하였다.

③ 기타( \_\_\_\_\_ )

2007년 이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2006년 참여경력자 비율은 89.7%, 2005년 참여경력자 비율 35%, 2004년 참여경력자 비율 15%로 나타나, 2007년 참여노인의 41%(1,119명/2,723명)는 2006년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9〉)



〈표 5-9〉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연도별 참여경력

	빈 도	퍼센트
2004년 참여	187	15.0% (1,248)
2005년 참여	437	35.0% (1,248)
2006년 참여	1,119	89.7% (1,248)

2007년 이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총참여경력 연(年)수(〈표 5-10〉)를 보면 1년 참여경력 응답자가 69%에 조금 못 미치며 3년 참여경력자도 10.9%나 존재하고 있어, 전체 참여노인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된 2004년부터 현재 까지 매년 참여해 온 노인의 비중은 4.9%로 나타났다.

〈표 5-10〉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 총 참여경력 (2004~2006)

	빈 도	퍼센트
1년	847	69.0%
2년	247	20.1%
3년	134	10.9%
합 계	1,228	

주: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1,248명) 중에서 1,228명(98%) 응답

참여노인의 참여경력연수를 성별로 나누어 볼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경력연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거주지별 참여경력연수는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없으나, 면지역의 경우에는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1년 참여경력자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2년 참여경력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업유형별 참여경력연수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년 참여경력자, 특히 3년 참여경력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11〉)



〈표 5-11〉 성별 · 거주지별 · 사업유형별 참여경력연수

		참여경력연수			전 체
		1년	2년	3년	
성 별	남 성	390	123	71	584
		66.8%	21.1%	12.2%	100.0%
		46.1%	50.0%	53.8%	47.7%
	여 성	456	123	61	640
		71.3%	19.2%	9.5%	100.0%
		53.9%	50.0%	46.2%	52.3%
	전 체	846	246	132	1,224
		69.1%	20.1%	10.8%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	읍	93	28	15	136
		68.4%	20.6%	11.0%	100.0%
		11.4%	11.9%	11.9%	11.6%
	면	190	43	26	259
		73.4%	16.6%	10.0%	100.0%
		23.3%	18.3%	20.6%	22.0%
	동	533	164	85	782
		68.2%	21.0%	10.9%	100.0%
		65.3%	69.8%	67.5%	66.4%
	전 체	816	235	126	1,177
		69.3%	20.0%	10.7%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유형	공익형	461	142	74	677
		68.1%	21.0%	10.9%	100.0%
		54.4%	57.5%	55.2%	55.1%
	교육형	94	40	35	169
		55.6%	23.7%	20.7%	100.0%
		11.1%	16.2%	26.1%	13.8%
	복지형	247	52	19	318
		77.7%	16.4%	6.0%	100.0%
		29.2%	21.1%	14.2%	25.9%
	시장형	45	13	6	64
		70.3%	20.3%	9.4%	100.0%
		5.3%	5.3%	4.5%	5.2%
	전 체	847	247	134	1,228
		69.0%	20.1%	10.9%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12〉 (2006년 참여경력자 중에서) 2006년 실제 참여개월

2006년 참여개월	1개월	13 (1.2%)
	2개월	38 (3.4%)
	3개월	64 (5.8%)
	4개월	47 (4.2%)
	5개월	75 (6.5%)
	6개월	133 (12.0%)
	7개월	532 (48.1%)
	8개월	72 (6.5%)
	9개월	32 (2.9%)
	10개월	45 (4.1%)
	11개월	11 (1.0%)
	12개월	45 (4.1%)
전 체		1,107 (100.0%)

주: 2006년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1,119명) 중에서 1,107명(98%) 응답

2006년 참여경력자 중에서 2006년 실제 참여개월 분포(〈표 5-12〉)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7개월이라고 대답했으며, 중도탈락 등 기타의 사유로 7개월을 채우지 못한 참여자는 33.4%에 이르며,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예산사업기간(7개월)을 초과하는 8개월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노인도 18.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표에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개월을 사업유형별<sup>17)</sup>로 보면 7개월 미만인 경우는 공익형 38.5%, 교육형 17.2%, 복지형 29.3%, 시장형 40%로 시장형 및 공익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월 초과인 경우는 공익형 13.1%, 교육형 30%, 복지형 12.4%, 시장형 28.4%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형과 시장형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3〉 2007년 본사업이 진행되기 전 (2006년과 동일한 사업내용) 활동 지속 여부

활동 지속 여부		전 체
예	아니오	
256 (25%)	749 (75%)	1,005

주: 2006년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1,119명) 중에서 1,005명(90%) 응답

2006년 참여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에서 2007년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 2006년과 동일한 사업내용을 2007년에도 지속했는가를 묻는 항목에는 25%(256명)가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4명중 1명은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13〉)

17) '07년 사업참여유형과 '06년 사업참여유형이 동일하다고 전제



〈표 5-14〉 (2006년 사업참여 개월이 7개월 이상인 참여노인 중) 동일한 급여 수령 여부

		2006년 참여개월						전 체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급여동일여부	예	318	39	20	22	8	32	439(72.6%)
	아니오	111	19	6	15	3	12	166(27.4%)
전 체		429	58	26	37	11	44	605(100%)

주 : 2006년 참여경력이 있고 2006년 참여개월이 7개월 이상이 참여노인(737명) 중에서 605명(82%) 응답

2006년 사업참여개월이 7개월 이상인 참여노인 중에서 참여기간 내내 동일한 급여를 받았는가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72.6%가 동일한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표 5-14〉)하였으며,

〈표 5-15〉 (2007년에 2006년과 동일한 활동을 지속한 참여노인 중) 동일한 급여 수령 여부

		활동 지속 여부		전 체
		예	아니오	
급여동일여부	예	162 (65.3%)	436	598
	아니오	86 (34.7%)	129	215
전 체		248 (100.0%)	565	813

주 : 2006년 참여경력이 있고 2007년 본사업 시작전 활동을 지속한 참여노인(256명) 중에서 248명(97%) 응답

2007년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2006년의 활동내용과 동일한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참여노인 중에서 2007년에 동일한 급여를 받았는가를 묻는 항목에는 65.3%가 그렇다고 응답(〈표 5-15〉)하고 있다.

〈표 5-16〉 사업참여방식 1

사업참여방식			
급여받지않고 무보수	예산기간보다 급여적게	기 타	계
69(68%)	13(13%)	20(19%)	102(100%)

주 : 2006년 참여경력이 있고 2006년 사업 참여개월이 7개월 이상인 참여노인 중에서 동일기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참여노인의 사업참여방식

2006년 참여경력이 있고 2006년 사업 참여개월이 7개월 이상인 참여노인 중에서 동일기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참여노인의 사업참여방식(〈표 5-16〉)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68%는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활동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5-17〉 사업참여방식 2

사업참여방식			
급여받지않고 무보수	예산기간보다 급여적게	기 타	계
85(65%)	18(14%)	28(21%)	131(100%)

주 : 2006년 참여경력이 있고 2007년 본사업 시작 전 2006년의 활동을 지속한 참여노인 중에서 동일기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참여노인의 사업참여방식



2006년 참여경력이 있고 2007년 본사업 시작 전 2006년의 활동을 지속한 참여노인 중에서 동일기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참여노인의 사업참여방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65%는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활동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7>)

<표 5-18> 사업참여방식 3

사업참여방식			계
급여받지않고 무보수	예산기간보다 급여적게	기 타	
45(76%)	10(17%)	4(7%)	59(100%)

주: 2006년 참여경력이 있고 사업 참여개월이 7개월 이상이며 2007년 본사업 시작 전 활동을 지속한 참여노인 중에서 동일기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참여노인의 사업참여방식

2006년 참여경력이 있고 사업 참여개월이 7개월 이상이며 2007년 본사업 시작 전 활동을 지속한 참여노인 중에서 동일기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참여노인의 사업참여방식을 살펴 보면 응답자의 75%는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표 5-18>)

어르신께서 하고 계신 활동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모두 표시)

1) 공익·교육·복지형 참여자

1-①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 1-② 산, 강, 하천, 계곡, 바다 등의 환경관리 1-③ 학교주변 및 골목 순찰 1-④ 노점상 정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1-⑤ 공영주차장 관리 1-⑥ 공원 및 놀이터 환경관리 1-⑦ 공공기관 환경관리(학교, 도서관 등) 1-⑧ 공공기관 업무지원(학교, 도서관 등) 1-⑨ 교통질서 및 주정차 단속계도 1-⑩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1-⑪ 보육시설 환경관리 및 급식보조 1-⑫ 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경로당 포함) 1-⑬ 문화재 및 문화시설 관리 1-⑭ 재활용 1-⑮ 산불예방 및 감시	3-① 가사지원(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 3-② 정서지원(말벗 등) 3-③ 위생지원(세면, 세발, 목욕 등) 3-④ 행정업무 지원 및 병원동행 3-⑤ 치료지원(투약관리, 욕창방지, 재활치료 등) 3-⑥ 단순 안전확인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요구르트 배달) 3-⑦ 취미·여가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3-⑧ 도배, 장판 또는 보일러 등 주거환경 개선 3-⑨ 문화공연 및 문화체험지원 (아동극, 음악, 풍물 등) 3-⑩ 건강 서비스(숙, 뜸, 침, 체조, 안마 등) 3-⑪ 무선페이지 관리 3-⑫ 상담 및 멘토링 3-⑬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보조 3-⑭ 보육 및 교육 지원(환경관리 및 급식보조 제외) 3-⑮ 기타( )
2-① 전문해설제공(해설사) 2-② 학습지도(한글, 한문, 영어, 독서 등) 2-③ 전통문화 및 예절지도	2-④ 여가활동 및 건강활동 지도 2-⑤ 홍보활동 2-⑥ 동화구연 및 아동극





〈표 5-19〉 공익·교육·복지형 참여자 활동내용

	공익·교육·복지형 활동내용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소 계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	1,039	13	58	1,110
산,강,하천,계곡,바다 등의 환경관리	284	15	20	319
학교주변 및 골목 순찰	63	6	18	87
노점상 정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87	3	6	96
공영주차장 관리	25	0	1	26
공원 및 놀이터 환경관리	249	3	12	264
공공기관 환경관리(학교, 도서관 등)	84	4	7	95
공공기관 업무지원(학교, 도서관 등)	20	2	6	28
교통질서 및 주정차 단속계도	94	2	33	129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53	0	3	56
보육시설 환경관리 및 급식보조	8	5	9	22
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경로당 포함)	47	8	53	108
문화재 및 문화시설 관리	49	8	5	62
재활용	37	1	2	40
산불예방 및 감시	13	1	1	15
소 계	2,152	71	234	2,457
	95.0%	14.8%	13.9%	55.6%
전문해설제공(해설사)	2	58	1	61
학습지도(한글, 한문, 영어, 독서 등)	2	106	6	114
전통문화 및 예절지도	2	41	3	46
여가활동 및 건강활동 지도	1	36	2	39
홍보활동	2	12	3	17
동화구연 및 아동극	1	27	0	28
소 계	10	280	15	305
	0.4%	58.5%	0.9%	6.9%
가사지원(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	14	5	341	360
정서지원(말벗 등)	14	9	405	428
위생지원(세면, 세발, 목욕 등)	10	7	206	223
행정업무 지원 및 병원 동행	4	3	106	113
치료지원(투약관리, 욕창방지, 재활치료)	4	1	43	48
단순 안전확인(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등)	5	0	62	67
취미, 여가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1	17	22	40
도배, 장판 또는 보일러 등 주거환경 개선	1	7	49	57
문화공연 및 문화체험지원(아동극, 음악, 풍물)	1	11	13	25
건강서비스(숙, 뜸, 침, 체조, 안마 등)	1	12	39	52
무선페이징 관리	3	2	21	26
상담 및 멘토링	1	7	16	24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보조	5	2	60	67
보육 및 교육지원(환경관리 및 급식보조 제외)	1	19	12	32
기 타	37	26	35	98
소 계	102	128	1,430	1,660
	4.5%	26.7%	85.2%	37.5%
총 계	2,264	479	1,679	4,422
	(51.2%)	(10.8%)	(38.0%)	(100.0%)



〈표 5-19〉는 유형별 참여노인의 참여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공익형 참여노인의 실제 활동 내용을 보면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에 종사한 비율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순수하게 공익형에 분류된 사업내용에 참여한 비율이 95%에 이르고 있다.

복지형 참여노인의 활동내용은 “가사지원”이나 “정서지원”이 44.4%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 복지시설 환경관리(경로당 포함)”나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 등과 같은 공익형으로 분류된 사업내용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도 13.9%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교육형 참여노인의 경우 “학습지도”나 “전문해설” 등과 같은 고유영역의 활동내용은 58.5%에 불과하고, 복지형으로 분류된 사업에 26.7%, 공익형으로 분류된 사업에 14.8%나 참여하고 있어, 중복응답이 허용된 문항임을 감안하더라도 교육형 참여노인의 실제 활동내용에 대한 규정과 현실사이의 괴리는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시장형 참여자

4-① 재활용품 수거	4-⑧ 음식 조리
4-② 농축산물 재배 또는 사육	4-⑨ 매장 운영, 판매(음식점, 카페, 노점 포함)
4-③ 단순 임가공	4-⑩ 세차, 세탁, 청소
4-④ 농산물 가공	4-⑪ 운전
4-⑤ 수선 또는 봉제	4-⑫ 물품 배달(택배)
4-⑥ 전통공예품 제작	4-⑬ 가사, 간병, 베이비시터
4-⑦ 기타 생활용품 제작	4-⑭ 기타( )

〈표 5-20〉 시장형 참여자 활동내용

시장형 활동내용	빈 도
재활용품 수거	10
농축산물 재배 또는 사육	45(26.8%)
단순 임가공	26(15.5%)
농산물 가공	16
수선 또는 봉제	5
전통공예품 제작	12
기타 생활용품 제작	23(13.7%)
음식 조리	13
매장운영, 판매(음식점, 카페, 노점 포함)	17
세차, 세탁, 청소	5
운 전	2
물품 배달(택배)	7
가사, 간병, 베이비시터	3
기 타	21
총 계	168(100.0%)



시장형 참여자의 활동내용(〈표 5-20〉)을 보면 전체 응답자 168명 중에서 가장 많은 45명이 (26.8%) “농축산물 재배 또는 사육”이라고 응답했으며, 단순 임가공(15.5%), 기타 생활용품 제작 (13.7%) 순으로 조사되었다.

### 3) 인력파견형 참여자

- |                    |                          |
|--------------------|--------------------------|
| 5-① 주유원            | 5-⑧ 주례사                  |
| 5-② 시험감독관          | 5-⑨ 농가인력지원               |
| 5-③ 물품배달원(택배)      | 5-⑩ 경비원                  |
| 5-④ 주차원            | 5-⑪ 도우미(가사, 간병, 베이비시터 등) |
| 5-⑤ 세차원            | 5-⑫ 건물청소/미화원             |
| 5-⑥ 무가지 배포원        | 5-⑬ 기타( )                |
| 5-⑦ 관리원(골프장, 정원 등) |                          |

〈표 5-21〉 인력파견형 참여자 활동내용

인력파견형 참여자 활동내용	빈 도
시험감독관	7
관리원(골프장, 정원 등)	1
주례사	3
경비원	4
건물청소, 미화원	3
기 타	5
계	22

한편, 인력파견형 참여노인의 경우 “시험감독관” 참여자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표본응답 수가 22명에 불과해 전체 인력파견형의 활동실태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2〉 참여자 활동 1순위(상위 10위까지)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 환경관리	992	35.3	36.8	36.8
가사지원(청소, 세탁, 반찬만들기 등)	334	11.9	12.4	49.1
정서지원(말벗 등)	112	4.0	4.1	53.3
학습지도(한글, 한문, 영어, 독서 등)	101	3.6	3.7	57.0
교통질서 및 주차차 단속계도	99	3.5	3.7	60.7
공원 및 놀이터 환경관리	81	2.9	3.0	63.7
산, 강, 하천, 계곡, 바다 등의 환경관리	77	2.7	2.9	66.5
기 타	76	2.7	2.8	69.4
전문해설제공(해설사)	58	2.1	2.1	71.5
농축산물 재배 또는 사육	51	1.8	1.9	73.4

참여노인 활동 1순위를 살펴보면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 환경관리” 35.3%, 청소나 반찬 만들기 등의 “가사지원” 11.9%, 말벗 등의 “정서지원” 이 4%로 상위 3개의 활동내용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표5-23〉 참여자 활동 2순위(상위 10위까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정서지원(말벗 등)	269	9.6	19.9	19.9
산, 강, 하천, 계곡, 바다 등의 환경관리	201	7.2	14.8	34.7
공원 및 놀이터 환경관리	136	4.8	10.0	44.7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	111	4.0	8.2	52.9
가사지원(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	87	3.1	6.4	59.3
노점상 정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44	1.6	3.2	62.6
위생지원(세면, 세발, 목욕 등)	42	1.5	3.1	65.7
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경로당 포함)	34	1.2	2.5	68.2
공공기관 환경관리(학교, 도서관 등)	33	1.2	2.4	70.6
교통질서 및 주차차 단속계도	27	1.0	2.0	72.6

〈표 5-23〉은 참여자 활동 2순위 중 상위 10까지의 활동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참여자 활동 1순위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 환경관리”에 응답했던 참여 노인 중에서 37.3%가 활동 2순위를 “산, 강, 하천, 계곡, 바다 등의 환경관리”로 선택했으며, 활동 1순위 중 “가사지원”을 선택했던 응답자의 74%가 활동 2순위로 말벗 등의 “정서지원”을 선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활동 1순위 중 “정서지원”을 선택했던 응답자의 48.4%가 활동 2순위로 “가사지원”을 선택하였다.

아울러, 앞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교육형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활동 1순위 중 “학습지도(한글, 한문, 영어, 독서 등)”를 선택한 경우 활동 2순위가 복지형 영역인 “보육 및 교육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3%나 되며, 또한, 전문해설제공을 활동 1순위라고 응답한 참여 노인 중 활동 2순위가 공익형 영역인 “산, 강, 하천, 계곡, 바다 등의 환경관리”에 7.4%, 복지형 영역인 “문화공연 및 문화체험 지원”에 7.4% 응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및 건강활동 지도”가 1순위인 경우에는 2순위에 “정서지원” 27.3%, “가사지원” 9.1%, “문화공연 및 문화체험지원” 9.1%, “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 9.1% 등 서로 다른 영역에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르신께서 참여하고 계신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1) 주당	_____ 일	(2) 일일	_____ 시간
(3) 교육형(해설사) 일일 평균 대기시간 ※ 숲해설, 문화재해설 등 해설사 참여자만 응답			_____ 시간



〈표 5-24〉 공익·교육·복지·시장형 참여노인 주당 근무일수

	주당 근로일수							전 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공익형	7	40	875	288	205	10	10	1,435
교육형	39	130	130	18	15	1	1	334
복지형	10	43	584	75	46	3	2	763
시장형	7	29	80	11	40	4	5	176
계	63	242	1,669	392	306	18	18	2,708

유형별 참여노인의 주당 근무일수를 보면, 공익형의 경우 주3일 근무가 전체의 61%이며, 4~5일도 34%를 차지한 반면, 교육형은 주2일 근무와 3일 근무가 공히 39%씩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형은 주3일 근무가 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5〉 공익·교육·복지·시장형 참여노인 일일 근무시간

	일일 근무시간									전 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이상	
공익형	4	88	466	846	5	5	3	2	8	1,427
교육형	25	108	81	78	26	10	2	2	2	334
복지형	7	33	174	491	20	11	2	8	10	756
시장형	0	10	20	77	22	12	6	21	7	175
계	36	239	741	1,492	73	38	13	33	27	2,692

공익·복지·시장형의 일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 각각 59%, 65%, 44%로 가장 보편적이며, 교육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교육형(해설사) 일일 평균 대기시간

	일일 평균 대기시간				전 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교육형	26	6	2	13	47

교육형(해설사) 참여노인의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이 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인력파견형

(1) 고용형 ※ 도움말참고	① 고용지속기간		_____ 개월	
	② 주당	_____ 일	③ 일일	_____ 시간
(2) 파견형 ※ 도움말참고	2007년 1월~9월 총 파견횟수		_____ 회	
	일일		_____ 시간	



〈표 5-27〉 인력파견형(고용형) 고용지속개월

	고용지속기간						전 체
	5개월	6개월	7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이상	
인력파견형	1	1	3	1	2	3	11명

〈표 5-28〉 인력파견형(고용형) 주당 근로일수

	주당 근로일수					전 체
	1일	3일	4일	5일	7일	
인력파견형	3	2	2	4	2	13명

〈표 5-29〉 인력파견형(고용형) 일일 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전 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14시간	16시간	24시간	
인력파견형	1	1	2	1	4	1	1	2	13명

〈표 5-30〉 인력파견형(파견형) 2007년 총 파견횟수

	2007년 총 파견횟수										전 체
	1회	3회	4회	7회	15회	20회	21회	50회	70회	80회	
인력파견형	1	4	2	1	1	2	1	1	1	1	15명

〈표 5-31〉 인력파견형(파견형) 일일 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전 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9시간	
인력파견형	1	1	1	5	1	5	1	15명

인력파견형의 경우 표본이 충분치 않아 대표성 부족으로 각 문항별 별도의 해석이 곤란하나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소득은 월 평균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항 목	급 여		
1)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 인력파견형은 월 급여 기입			만원
2) 수요처 추가 지급 ※ 24-1 추가질문			만원
3) 합 계			만원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 사업단은 어떠한 근무관리 체계를 갖추고 계십니까? 해당번호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근무관리 체계	① 해당	② 비해당
1) 팀장제		
2) 조희 또는 종례(소속기관 또는 수요처 담당자)		
3) 업무활동일지		
4) 동료참여자 및 실무자와의 정기적인 모임(간담회)		
5) 소속기관 실무자의 활동현장방문		
6) 기타( )		

사업유형별 근무관리 체계(〈표 5-36〉)와 관련해서는 사업유형의 기본적인 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익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형식적이거나 기본적인 근무관리의 틀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시장형의 경우 “팀장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10% 미만만 해당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교육·복지형의 경우에도 시장형 만큼은 아니나 근무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6〉 참여노인 소속사업단 근무관리 체계

			사업유형				전 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근 무 관 리 체 계	팀장제	해 당	888	167	385	127	1,567
			56.7%	10.7%	24.6%	8.1%	100.0%
			66.8%	52.7%	53.0%	76.0%	61.7%
		비해당	441	150	342	40	973
			45.3%	15.4%	35.1%	4.1%	100.0%
			33.2%	47.3%	47.0%	24.0%	38.3%
		전 체	1,329	317	727	167	2,540
			52.3%	12.5%	28.6%	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회또는 종례 (소속기관 또는 수요처 담당자)	해 당	841	114	287	78	1,320
			63.7%	8.6%	21.7%	5.9%	100.0%
			63.0%	37.1%	40.5%	46.4%	52.4%
		비해당	494	193	422	90	1,199
			41.2%	16.1%	35.2%	7.5%	100.0%
			37.0%	62.9%	59.5%	53.6%	47.6%
		전 체	1,335	307	709	168	2,519
			53.0%	12.2%	28.1%	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업무활동일지	해 당	797	278	604	111	1,790
			44.5%	15.5%	33.7%	6.2%	100.0%
			60.0%	87.4%	81.6%	66.9%	70.1%
		비해당	531	40	136	55	762
			69.7%	5.2%	17.8%	7.2%	100.0%
			40.0%	12.6%	18.4%	33.1%	29.9%
		전 체	1,328	318	740	166	2,552
			52.0%	12.5%	29.0%	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료참여자 및 실무자와의 정기적인 모임 (간담회)	해 당	669	269	508	119	1,565
42.7%			17.2%	32.5%	7.6%	100.0%	
51.3%			84.9%	69.8%	71.3%	62.2%	
비해당		634	48	220	48	950	
		66.7%	5.1%	23.2%	5.1%	100.0%	
		48.7%	15.1%	30.2%	28.7%	37.8%	
전 체		1,303	317	728	167	2,515	
		51.8%	12.6%	28.9%	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속기관 실무자의 활동현장방문	해 당	1,169	261	587	154	2,171	
		53.8%	12.0%	27.0%	7.1%	100.0%	
		88.5%	83.4%	80.4%	91.7%	85.7%	
	비해당	152	52	143	14	361	
		42.1%	14.4%	39.6%	3.9%	100.0%	
		11.5%	16.6%	19.6%	8.3%	14.3%	
	전 체	1,321	313	730	168	2,532	
		52.2%	12.4%	28.8%	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드는 교통비는 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원

〈표 5-39〉 월평균 교통비

		사업유형				전 체	거주지			전 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읍	면	동	
교통비	없음	649	70	325	80	1,124	150	262	645	1,057
		57.7%	6.2%	28.9%	7.1%	100.0%	14.2%	24.8%	61.0%	100.0%
		71.4%	24.5%	59.4%	62.0%	60.1%	72.1%	57.3%	58.2%	59.6%
	2만원 이내	182	129	139	31	481	36	131	293	460
		37.8%	26.8%	28.9%	6.4%	100.0%	7.8%	28.5%	63.7%	100.0%
		20.0%	45.1%	25.4%	24.0%	25.7%	17.3%	28.7%	26.4%	25.9%
	2만원 초과 5만원 이내	76	70	72	16	234	20	59	148	227
		32.5%	29.9%	30.8%	6.8%	100.0%	8.8%	26.0%	65.2%	100.0%
		8.4%	24.5%	13.2%	12.4%	12.5%	9.6%	12.9%	13.4%	12.8%
	5만원 초과 10만원 이내	1	12	11	1	25	2	5	15	22
		4.0%	48.0%	44.0%	4.0%	100.0%	9.1%	22.7%	68.2%	100.0%
		0.1%	4.2%	2.0%	0.8%	1.3%	1.0%	1.1%	1.4%	1.2%
	10만원 초과	1	5	0	1	7	0	0	7	7
		14.3%	71.4%	0.0%	14.3%	100.0%	0.0%	0.0%	100.0%	100.0%
		0.1%	1.7%	0.0%	0.8%	0.4%	0.0%	0.0%	0.6%	0.4%
	전 체	909	286	547	129	1,871	208	457	1,108	1,773
		48.6%	15.3%	29.2%	6.9%	100.0%	11.7%	25.8%	6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참여노인의 사업참여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형 참여노인이 가장 적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교육형 참여노인의 교통비가 타유형 참여노인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월평균 교통비 차이를 보면 교통비가 없거나 2만원 이내인 비율이 거주지별로 각각 89.4%(읍), 86%(면), 84.6%(동)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제6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효과 및 욕구









어르신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 항	① 매 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 통	④ 만 족	⑤ 매 우 만 족	⑥ 비해당
	1점	2점	3점	4점	5점	
1)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해 당 없 음
2) 월 보수						
3) 업무의 내용						
4) 업무의 강도						
5) 근무 환경						
6) 동료와의 관계						
7) 소속기관 외 수혜자, 수혜기관, 수요처와의 관계						

참여자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표 6-1〉)는 5점 척도 기준 3.94점으로 나타났다. 동료관계 만족도(4.10) 및 기타관계 만족도(4.05)는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 높았으나, 월보수·업무내용·업무강도·근무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보수 만족도의 경우 3점<sup>18)</sup>에 불과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6-1〉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관측치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전반적 만족도	2,777	1	5	3.94	0.791
월보수 만족도	2,783	1	5	3.00	0.979
업무내용 만족도	2,783	1	5	3.80	0.710
업무강도 만족도	2,785	1	5	3.69	0.744
근무환경 만족도	2,784	1	5	3.73	0.775
동료관계 만족도	2,706	1	5	4.10	0.719
기타관계 만족도	2,551	1	5	4.05	0.718

18) 100점 만점 기준 환산 시 60점



한편, 전반적 만족도를 기준으로 여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구한 각 만족도의 편상관계수 (<표 6-2>)에 따르면 “월보수 만족도”가 0.224<sup>19)</sup>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업무강도 만족도(0.074)”가 다른 변수에 비해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전반적 만족도” 기준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편상관계수	통제변수
월보수 만족도	0.224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기타관계
업무내용 만족도	0.135	월보수,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기타관계
업무강도 만족도	0.074	월보수, 업무내용, 근무환경, 동료관계, 기타관계
근무환경 만족도	0.098	월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동료관계, 기타관계
동료관계 만족도	0.089	월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기타관계
기타관계 만족도	0.145	월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표 6-3〉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연령계층별·거주지별·사업유형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월보수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업무강도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동료관계 만족도	기타관계 만족도
성 별	남 성	3.87	2.93	3.79	3.71	3.74	4.09	4.03
	여 성	4.00	3.06	3.81	3.67	3.72	4.10	4.08
연 령 계 층	~64세	4.00	2.85	3.84	3.70	3.71	4.14	4.08
	65~69	3.89	2.90	3.81	3.69	3.72	4.09	4.05
	70~74	3.95	3.02	3.79	3.69	3.74	4.09	4.07
	75~79	3.97	3.12	3.81	3.70	3.74	4.11	4.05
	80~84	4.08	3.08	3.83	3.66	3.75	4.16	4.12
	85~89	3.89	3.37	3.67	3.59	3.70	4.08	3.96
	90세~	4.33	2.67	4.00	3.67	3.33	4.33	4.33
거주지	읍	3.90	3.05	3.82	3.69	3.70	4.14	4.08
	면	3.85	3.00	3.69	3.61	3.64	4.05	4.02
	동	3.99	2.99	3.83	3.71	3.76	4.10	4.06
사 업 유 형	공 익	3.89	2.99	3.76	3.68	3.69	4.08	3.99
	교 육	4.02	2.91	3.97	3.80	3.87	4.11	4.13
	복 지	4.04	3.07	3.84	3.68	3.72	4.11	4.13
	시 장	3.88	2.90	3.71	3.57	3.81	4.21	4.06
	인력파견	3.44	2.96	3.52	3.44	3.63	3.81	3.83

만족도를 성별로 구분하는 경우 전반적 만족도를 비롯한 여타 만족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강도나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연령계층 및 거주지에 따른 만족도 수준은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19) 유의수준 0.01에서 두 변수에 대한 편상관관계는 유의







		돈을 벌 수 있는 것	새로운 동료, 또는 서비스 대상자와 만나는 것	아직 내가 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	건강이 증진 되는 것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없 음	기 타	전 체
거주지	읍	141	28	66	28	24	2	1	290
		48.6%	9.7%	22.8%	9.7%	8.3%	0.7%	0.3%	100.0%
		13.2%	12.7%	10.2%	9.8%	8.5%	22.2%	4.5%	11.4%
	면	304	44	112	54	45	2	2	563
		54.0%	7.8%	19.9%	9.6%	8.0%	0.4%	0.4%	100.0%
		28.5%	19.9%	17.4%	18.9%	16.0%	22.2%	9.1%	22.2%
	동	623	149	467	204	213	5	19	1,680
		37.1%	8.9%	27.8%	12.1%	12.7%	0.3%	1.1%	100.0%
		58.3%	67.4%	72.4%	71.3%	75.5%	55.6%	86.4%	66.3%
	전 체	1,068	221	645	286	282	9	22	2,533
42.2%		8.7%	25.5%	11.3%	11.1%	0.4%	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유형	공익형	735	119	281	172	94	8	6	1,415
		51.9%	8.4%	19.9%	12.2%	6.6%	0.6%	0.4%	100.0%
		65.2%	52.2%	41.0%	58.3%	31.9%	88.9%	25.0%	53.1%
	교육형	40	32	118	35	88	1	10	324
		12.3%	9.9%	36.4%	10.8%	27.2%	0.3%	3.1%	100.0%
		3.5%	14.0%	17.2%	11.9%	29.8%	11.1%	41.7%	12.2%
	복지형	274	65	227	67	109	0	7	749
		36.6%	8.7%	30.3%	8.9%	14.6%	0.0%	0.9%	100.0%
		24.3%	28.5%	33.1%	22.7%	36.9%	0.0%	29.2%	28.1%
	시장형	78	12	59	21	4	0	1	175
		44.6%	6.9%	33.7%	12.0%	2.3%	0.0%	0.6%	100.0%
		6.9%	5.3%	8.6%	7.1%	1.4%	0.0%	4.2%	6.6%
	전 체	1,127	228	685	295	295	9	24	2,663
		42.3%	8.6%	25.7%	11.1%	11.1%	0.3%	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해 가족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 ① 싫어하는 편이다
- ② 보통이다
- ③ 좋아하는 편이다
- ④ 가족이 본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모르고 있다
- ⑤ 비해당(예: 가족이 없는 경우)



〈표 6-5〉 성별·연령계층별·거주지별·사업유형별 사업 참여에 대한 가족의 반응

		싫어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가족이 모르고 있음	비해당	전 체
성별	남 성	35	208	890	39	47	1,219
		2.9%	17.1%	73.0%	3.2%	3.9%	100.0%
		30.7%	37.3%	50.9%	26.9%	28.7%	44.7%
	여 성	79	349	859	106	117	1,510
		5.2%	23.1%	56.9%	7.0%	7.7%	100.0%
		69.3%	62.7%	49.1%	73.1%	71.3%	55.3%
	전 체	114	557	1,749	145	164	2,729
		4.2%	20.4%	64.1%	5.3%	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계 층	~64세	6	46	152	7	8	219
		2.7%	21.0%	69.4%	3.2%	3.7%	100.0%
		5.4%	8.4%	8.7%	4.9%	4.9%	8.1%
	65~69	25	161	510	47	39	782
		3.2%	20.6%	65.2%	6.0%	5.0%	100.0%
		22.5%	29.4%	29.3%	32.6%	23.9%	28.9%
	70~74	43	213	667	43	72	1,038
		4.1%	20.5%	64.3%	4.1%	6.9%	100.0%
		38.7%	38.9%	38.3%	29.9%	44.2%	38.4%
	75~79	25	96	331	39	33	524
		4.8%	18.3%	63.2%	7.4%	6.3%	100.0%
		22.5%	17.5%	19.0%	27.1%	20.2%	19.4%
	80~84	8	30	60	7	9	114
		7.0%	26.3%	52.6%	6.1%	7.9%	100.0%
		7.2%	5.5%	3.4%	4.9%	5.5%	4.2%
	85~89	4	2	17	1	2	26
		15.4%	7.7%	65.4%	3.8%	7.7%	100.0%
		3.6%	0.4%	1.0%	0.7%	1.2%	1.0%
	90세~	0	0	3	0	0	3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2%	0.0%	0.0%	0.1%
전 체	111	548	1,740	144	163	2,706	
	4.1%	20.3%	64.3%	5.3%	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참여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보면 “싫어하는 편이다”가 4%, “좋아하는 편이다”는 64% 수준으로 전반적인 가족의 반응은 좋다고 볼 수 있다. 사업참여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 반응이 호의적임을 알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사실을 가족이 모르고 있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속)

		싫어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가족이 모르고 있음	비해당	전 체
거주지	읍	12	63	196	18	18	307
		3.9%	20.5%	63.8%	5.9%	5.9%	100.0%
		11.4%	11.9%	11.6%	13.2%	12.0%	11.8%
	면	20	125	374	30	33	582
		3.4%	21.5%	64.3%	5.2%	5.7%	100.0%
		19.0%	23.7%	22.2%	22.1%	22.0%	22.4%
	동	73	340	1,115	88	99	1,715
		4.3%	19.8%	65.0%	5.1%	5.8%	100.0%
		69.5%	64.4%	66.2%	64.7%	66.0%	65.9%
	전 체	105	528	1,685	136	150	2,604
		4.0%	20.3%	64.7%	5.2%	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유형	공익형	68	323	877	83	103	1,454
		4.7%	22.2%	60.3%	5.7%	7.1%	100.0%
		59.1%	57.9%	50.0%	57.2%	62.8%	53.2%
	교육형	5	49	268	4	11	337
		1.5%	14.5%	79.5%	1.2%	3.3%	100.0%
		4.3%	8.8%	15.3%	2.8%	6.7%	12.3%
	복지형	31	143	503	47	42	766
		4.0%	18.7%	65.7%	6.1%	5.5%	100.0%
		27.0%	25.6%	28.7%	32.4%	25.6%	28.0%
	시장형	11	43	105	11	8	178
		6.2%	24.2%	59.0%	6.2%	4.5%	100.0%
		9.6%	7.7%	6.0%	7.6%	4.9%	6.5%
	전 체	115	558	1,753	145	164	2,735
		4.2%	20.4%	64.1%	5.3%	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85~89세의 연령계층에서는 “싫어하는 편”과 “좋아하는 편”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노인이 고령층일수록 사업참여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 사업참여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별다른 특징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유형에 따른 가족의 반응의 경우, 교육형 참여노인의 가족반응이 가장 호의적이며, “좋아하는 편이다”의 응답률을 기준으로 하면 복지형>공익형>시장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전에 비하여 참여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다음 각 항목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항	①	②	③	④	⑤ 변화 없다	⑥ 비해당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점	2점	3점	4점		
1)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해당없음
2) 급여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다						
3) 건강상태가 좋아졌다						
4)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표 6-8〉은 참여노인의 사업참여 후 그 사업참여에 따른 효과를 묻는 항목으로 그 결과를 보면 차원별(가족관계 개선, 경제적 보탬, 건강상태 호전, 인간관계 호전)로 3.3~3.5의 점수<sup>20)</sup>를 보이고 있어 개선의 효과가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각 차원별 개선정도의 우열을 가리기에는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6-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효과 문항별 기술통계량<sup>21)</sup>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가족관계 개선	1,792	1.00	4.00	3.31	0.68326
경제적 보탬	2,628	1.00	4.00	3.40	0.65860
건강상태 호전	2,337	1.00	4.00	3.35	0.68898
인간관계 호전	2,489	1.00	4.00	3.54	0.57217

〈표 6-9〉는 성별·연령계층별·거주지별·사업유형별로 사업 참여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사업참여 효과를 보면 “가족관계 개선”이나 “건강상태 호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적 보탬” 측면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주지에 따른 사업참여 효과는 읍면지역 참여노인의 경우 동지역 참여노인에 비해 “경제적 보탬” 개선효과가 크지만, “가족관계 개선”이나 “건강상태 호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동지역 참여노인이 개선효과가 조금 크게 조사되었다.

사업유형별 사업 참여효과의 경우 “경제적 보탬” 측면에서는 공익형이 효과가 가장 큰 반면 교육형이 제일 낮았으며, “가족관계 개선”이나 “건강상태 호전”은 교육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미미하나 앞서고 있다.

20) 4점 척도 기준, 100점으로 환산 시 83-89점의 분포

21) 변화 없다(가족관계 개선 28.5%, 급여의 경제적 보탬 2.8%, 건강상태 호전 13.8%, 인간관계 호전 7.7%)



〈표 6-9〉 성별 · 연령계층별 · 거주지별 · 사업유형별 사업 참여효과

		가족관계 개 선	경제적 보 탸	건강상태 호 전	인간관계 호 전
성 별	남 성	3,36	3,30	3,43	3,54
	여 성	3,26	3,47	3,28	3,53
연 령 계 층	~64세	3,28	3,20	3,37	3,54
	65~69	3,32	3,35	3,32	3,54
	70~74	3,33	3,43	3,37	3,54
	75~79	3,29	3,44	3,35	3,52
	80~84	3,32	3,47	3,37	3,55
	85~89	3,05	3,40	3,26	3,60
	90세~	4,00	3,33	3,66	4,00
거주지	읍	3,25	3,52	3,26	3,55
	면	3,25	3,41	3,27	3,49
	동	3,35	3,37	3,39	3,55
사 업 유 형	공익형	3,29	3,47	3,32	3,52
	교육형	3,36	3,07	3,46	3,55
	복지형	3,33	3,41	3,36	3,56
	시장형	3,27	3,32	3,29	3,52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일의 근무시간, 참여일수 등의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편이다                      ② 낮은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은 편이다

급여수준 적절성(〈표 6-10〉)은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나타나,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참여노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수준 적절성에 대한 성별 견해차이를 보면 참여노인의 성비를 기준(남성 4.5 : 여성 5.5)으로 하는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급여수준 불만족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령계층별 급여수준 적절성에 대한 견해는 뚜렷한 경향이나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0〉 성별 · 연령계층별 · 거주지별 · 사업유형별 급여수준 적절성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적당하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전 체
성 별	남 성	77	635	489	12	5	1,218
		6.3%	52.1%	40.1%	1.0%	0.4%	100.0%
		56.2%	47.4%	40.8%	26.7%	35.7%	44.5%
	여 성	60	705	711	33	9	1,518
		4.0%	46.4%	46.8%	2.2%	0.6%	100.0%
		43.8%	52.6%	59.3%	73.3%	64.3%	55.5%
	전 체	137	1,340	1,200	45	14	2,736
		5.0%	49.0%	43.9%	1.6%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령 계 층	~64세	11	117	83	4	3
5.0%			53.7%	38.1%	1.8%	1.4%	100.0%
8.0%			8.8%	7.0%	9.1%	23.1%	8.0%
65~69		53	387	328	10	5	783
		6.8%	49.4%	41.9%	1.3%	0.6%	100.0%
		38.7%	29.1%	27.6%	22.7%	38.5%	28.9%
70~74		42	512	472	14	1	1,041
		4.0%	49.2%	45.3%	1.3%	0.1%	100.0%
		30.7%	38.5%	39.7%	31.8%	7.7%	38.4%
75~79		25	246	240	13	3	527
		4.7%	46.7%	45.5%	2.5%	0.6%	100.0%
		18.2%	18.5%	20.2%	29.5%	23.1%	19.4%
80~84		4	59	48	3	1	115
		3.5%	51.3%	41.7%	2.6%	0.9%	100.0%
		2.9%	4.4%	4.0%	6.8%	7.7%	4.2%
85~89		2	8	16	0	0	26
		7.7%	30.8%	61.5%	0.0%	0.0%	100.0%
		1.5%	0.6%	1.3%	0.0%	0.0%	1.0%
90세~		0	2	1	0	0	3
		0.0%	66.7%	33.3%	0.0%	0.0%	100.0%
		0.0%	0.2%	0.1%	0.0%	0.0%	0.1%
전 체	137	1,331	1,188	44	13	2,713	
	5.0%	49.1%	43.8%	1.6%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속)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적당하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전 체
거주지	읍	14	148	138	5	2	307
		4.6%	48.2%	45.0%	1.6%	0.7%	100.0%
		10.9%	11.5%	12.1%	12.2%	14.3%	11.8%
	면	20	285	266	11	2	584
		3.4%	48.8%	45.5%	1.9%	0.3%	100.0%
		15.5%	22.1%	23.3%	26.8%	14.3%	22.4%
	동	95	854	736	25	10	1,720
		5.5%	49.7%	42.8%	1.5%	0.6%	100.0%
		73.6%	66.4%	64.6%	61.0%	71.4%	65.9%
	전 체	129	1,287	1,140	41	14	2,611
		4.9%	49.3%	43.7%	1.6%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유형	공익형	72	700	647	30	8	1,457
		4.9%	48.0%	44.4%	2.1%	0.5%	100.0%
		52.6%	52.1%	53.8%	66.7%	57.1%	53.1%
	교육형	25	189	119	3	2	338
		7.4%	55.9%	35.2%	0.9%	0.6%	100.0%
		18.2%	14.1%	9.9%	6.7%	14.3%	12.3%
	복지형	25	354	376	10	4	769
		3.3%	46.0%	48.9%	1.3%	0.5%	100.0%
		18.2%	26.4%	31.3%	22.2%	28.6%	28.0%
	시장형	15	100	61	2	0	178
		8.4%	56.2%	34.3%	1.1%	0.0%	100.0%
		10.9%	7.4%	5.1%	4.4%	0.0%	6.5%
	전 체	137	1,343	1,203	45	14	2,742
		5.0%	49.0%	43.9%	1.6%	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또한, 거주지에 따른 급여적절성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유형별 참여 노인에 따른 급여적절성 인식을 보면 “매우 낮은 편이다”와 “낮은 편이다”의 합이 공익형은 52.9%, 교육형은 63.3%, 복지형은 49.3%, 시장형은 64.6%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조건이나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시장형 참여노인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지형 참여노인의 불만족 정도가 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은 근무시간, 참여일수 등의 근무조건 또는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월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만원

〈표 6-11〉 원하는 급여수준

	빈 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5만원이내	4	0,1	0,1
5만원초과 10만원이내	12	0,4	0,6
10만원초과 15만원이내	32	1,2	1,7
15만원초과 20만원이내	711	25,8	27,5
20만원초과 25만원이내	195	7,1	34,6
25만원초과 30만원이내	1,338	48,6	83,2
30만원초과 40만원이내	272	9,9	93,1
40만원초과 50만원이내	154	5,6	98,7
50만원 초과	37	1,3	100,0
합 계	2,755	100,0	

참여노인의 근무시간, 참여일수 등의 근무조건 또는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급여 수준을 묻는 항목(〈표 6-11〉)에는 응답노인의 48.6%가 25~30만원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의외로 15~20만원 사이도 25.8%나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20만원이라고 응답한 결과이므로 25.8%는 현행의 급여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라는 해석이 보편 타당할 것이다.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현재의 급여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근무시간, 참여일수 등의 근무조건 또는 노동강도를 높인다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한편, 참여노인의 근무시간, 참여일수 등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를 높이는 대신에 현재의 급여 수준을 약간 인상한다면 이에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표 6-12〉)에는 응답자의 81%가 이에 동의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에 비해 5.9%p 떨어짐에 따라 여성이 현행수준 유지에 대한 욕구가 남성에 비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연령계층으로 구분할 경우 전기고령자(65~74세)가 후기고령자(75~84세)에 비해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별 구분에 따르면 먼지역 참여노인이 읍이나 동지역 참여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높은 편이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사업 유형의 경우 공익형 참여노인의 동의율이 가장 높고, 시장형의 동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6-12〉 동의여부

		동의여부		전 체			동의여부		전 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성 별	남 자	1,031	190	1,221	거 주 지	읍	236	70	306
		84.4%	15.6%	100.0%			77.1%	22.9%	100.0%
		46.3%	36.8%	44.5%			11.1%	14.4%	11.7%
	여 자	1,194	327	1,521		면	485	99	584
		78.5%	21.5%	100.0%			83.0%	17.0%	100.0%
		53.7%	63.2%	55.5%			22.7%	20.4%	22.3%
	전 체	2,225	517	2,742		동	1,411	316	1,727
		81.1%	18.9%	100.0%			81.7%	18.3%	100.0%
		100.0%	100.0%	100.0%			66.2%	65.2%	66.0%
연 령 계 층	64세미만	170	50	220	전 체	2,132	485	2,617	
		77.3%	22.7%	100.0%		81.5%	18.5%	100.0%	
		7.7%	9.8%	8.1%		100.0%	100.0%	100.0%	
	65~69	649	136	785	공익형	1,227	233	1,460	
		82.7%	17.3%	100.0%		84.0%	16.0%	100.0%	
		29.4%	26.7%	28.9%		55.0%	45.0%	53.1%	
	70~74	859	183	1,042	교육형	278	60	338	
		82.4%	17.6%	100.0%		82.2%	17.8%	100.0%	
		38.9%	35.9%	38.3%		12.5%	11.6%	12.3%	
	75~79	425	101	526	복지형	595	176	771	
		80.8%	19.2%	100.0%		77.2%	22.8%	100.0%	
		19.2%	19.8%	19.3%		26.7%	34.0%	28.1%	
	80~84	84	33	117	시장형	130	49	797	
		71.8%	28.2%	100.0%		72.6%	27.4%	100.0%	
		3.8%	6.5%	4.3%		5.8%	9.5%	6.5%	
	85~89	19	7	26	전 체	2,230	518	2,748	
		73.1%	26.9%	100.0%		81.1%	18.9%	100.0%	
		0.9%	1.4%	1.0%		100.0%	100.0%	100.0%	
	90세이상	3	0	3					
		100.0%	0.0%	100.0%					
		0.1%	0.0%	0.1%					
전 체	2,209	510	2,719						
	81.2%	18.8%	100.0%						
	100.0%	100.0%	100.0%						



(인력파견형 및 시장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기간 동안 같은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보수가 없어도 할 의향이 있다
- ② 보수가 있다면 할 의향이 있다
- ③ 할 의향이 없다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속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표 6-13〉)에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 정도이나, 이 중에서 47.7%는 실비나 활동비 등의 보수가 없어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에 따른 자원봉사 의향을 살펴 보면 교육형과 복지형에서 보수가 없어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공익형에서는 보수가 있다면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표 6-13〉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 의향

사업유형	자원봉사의향			전 체
	보수가 없어도 할 의향이 있다	보수가 있다면 할 의향이 있다	할 의향이 없다	
공익형	431	754	274	1,459
	29.5%	51.7%	18.8%	100.0%
	39.1%	62.4%	66.8%	53.6%
교육형	198	102	38	338
	58.6%	30.2%	11.2%	100.0%
	18.0%	8.4%	9.3%	12.4%
복지형	428	269	71	768
	55.7%	35.0%	9.2%	100.0%
	38.8%	22.2%	17.3%	28.2%
시장형	45	84	27	156
	28.8%	53.8%	17.3%	100.0%
	4.1%	6.9%	6.6%	5.7%
전 체	1,102	1,209	410	2,721
	40.5%	44.4%	15.1%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제로 어르신께서는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① 보수와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 ② 용돈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일주일에 2~3회)
- ③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일주일에 5회 이상)
- ④ 자영업(창업)
- 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 ⑥ 기타( )

원하는 일의 형태를 묻는 질문(〈표 6-15〉)에 응답노인의 52.3%가 “용돈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를 선택했으며,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가 4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6-15〉 실제 원하는 일의 형태

	빈 도	퍼센트	유 호 퍼센트	누 적 퍼센트
보수와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일	133	4.7	4.8	4.8
용돈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	1,457	51.9	52.3	57.0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	1,143	40.7	41.0	98.0
자영업(창업)	14	0.5	0.5	98.5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11	0.4	0.4	98.9
기 타	30	1.1	1.1	100.0
합 계	2,788	99.3	100.0	
시스템 결측값	20	0.7		
표본수	2,808	100.0		

〈표 6-16〉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실제 원하는 일의 형태 비교

	일반노인*	참여노인**
보수와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일	23.7%	4.8%
용돈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	36.4%	52.3%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	37.0%	41.0%
자영업(창업)	2.9%	0.5%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타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구성비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한편, 일반노인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원하는 일의 형태에 있어 참여노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용돈이든 생활비든 경제적 문제에 93%나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제7장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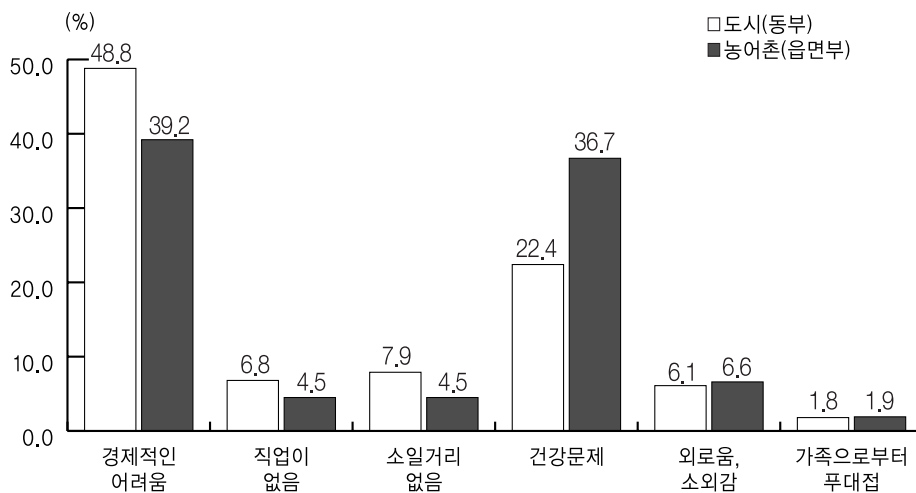


## 1. 시점별(중기·장기) 정책대상자의 명확화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노인 4고(① 경제적 문제, ② 건강문제, ③ 역할상실문제, ④ 고독과 소외감 문제) 등의 해소(또는 최소화)를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적 도구 기능을 하고 있다.

2005년 사회통계조사(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강문제(27.1%)」, 「소일거리 없음(6.8%)」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역별로 구분할 때 도시지역의 노인들은 농어촌지역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음」에 대해,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자료: 사회통계조사, 2005, 통계청

또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비노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다. 가구수준에서 볼 때 비노인가구의 9.4%만이 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데 비하여 노인가구의 경우 29.7%에 달하고 있다. 둘째, 신체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90.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36.3%가 기능상의 제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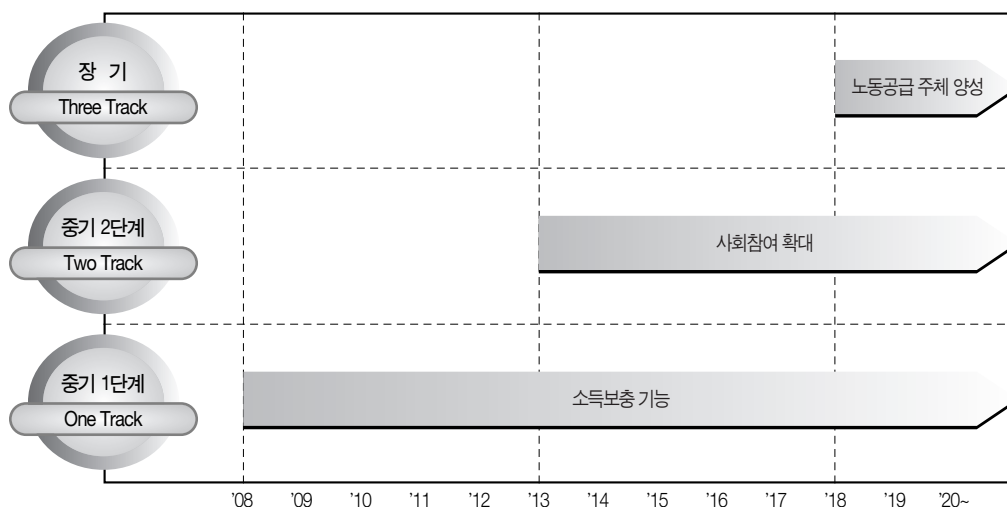


경험하고 있어 노인의 대다수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셋째,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30.8%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참여율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율이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한편,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가장 큰 참여이유는 생계비(53.4%) 및 용돈(21.7%) 마련 등의 경제적 측면이 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참여가 12.1%로 그 뒤를 잇고 있어 실상 이 두 가지 사유가 참여이유의 거의 전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로 인해 가장 좋은 점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응답한 비율이 42.2%에 불과하며, “아직 내가 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2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전의 기대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보탬 효과가 크지 못했거나, 참여전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자존감 및 건강증진 등의 효과가 두드러진 결과라고 해석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다만, 경제보탬 효과와 자존감 및 건강증진 효과는 상호 대체재 성격보다는 보완재 성격이 짙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 및 건강증진 효과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제적 보탬의 부차적인 산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원하는 일의 형태에 있어서도 시간제 및 종일제 근로 모두 일반노인에 비해 참여노인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거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별로 정책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림 7-2) 단계별 중점 정책기조





### 〈 중기 1단계(One Track) 〉 : 2008~2012년

- **소득보충 기능의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부조나 사회보장 지출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맹점이나 구조적 모순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 소득보충(공공분야)이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지원(민간분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적 보탬이 건강유지 및 사회적 역할 부여 등의 부가적 효과도 동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중기 2단계(Two Track) 〉 : 2013~2017년

- **소득보충 기능**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지원
- **사회참여 확대 도모** :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도 갖추었지만 역할 상실로 인한 소외감이 큰 노인에게 실비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동시에 개선

### 〈 장기(Three Track) 〉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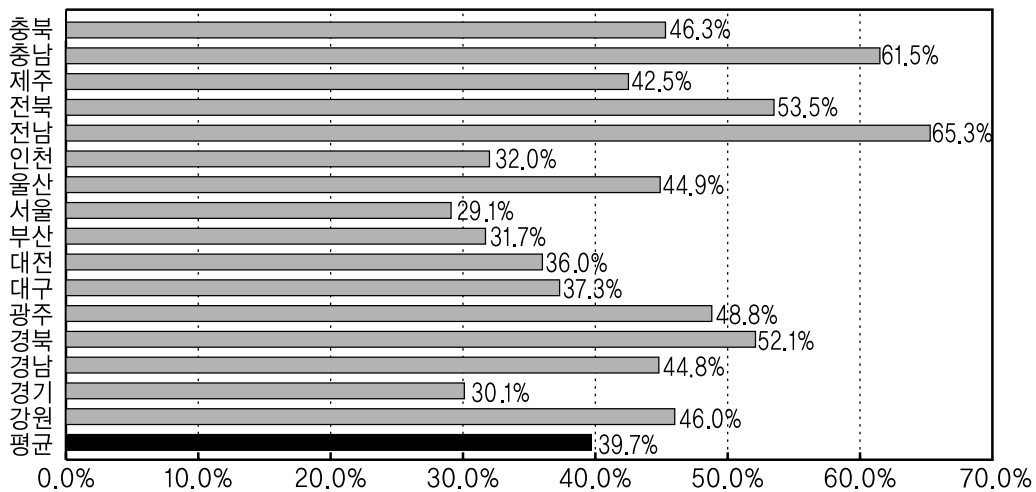
- **소득보충**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지원
- **사회참여 확대** :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도 갖추었지만 역할 상실로 인한 소외감이 큰 노인에게 실비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기회 부여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동공급의 주체 양성** : 생산가능인구 개념의 재정립이 대두될 시점으로,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수단으로 부각될 노인인력 수요에 대비하는 노동시장 진입 직전의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



## 2. 시도별 중기 1단계(5개년) 계획 수립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충족률(2007년 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인용한 19% 수준<sup>22)</sup>(11만명/57만명)으로 인지되어 왔으나, 시도별 구분이 가능한 통계청의 「인력실태조사(2006)」에 의하면 전국 평균 39.7%(11만명/28만명)로 나타나 기준통계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인력실태조사에 근거한 수요충족률이 사실과 근접하더라도 향후 고령자의 근로욕구는 교육 수준 증가, 건강수명의 연장, 사회적 수요 등으로 인해 현재수준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3) 『인력실태조사』에 근거한 시도별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한편, 그간 형식적 수요조사로 인해 수요조사 결과와 시도별 사업량 배정 사이에 유기적 연결고리가 부재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각 시도는 체계적 수요조사(노인 및 유관기관) 실시 후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중기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추진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2) 미취업노인 비율(69.2%)×미취업노인 중 미취업 사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인 비율(17.1%)=11.8%. 따라서, 2007년 기준 전체노인 481만명 중에서 57만명이 일자리를 원하고, 이는 노인일자리사업량 11만명을 고려하면 전체 수요충족률은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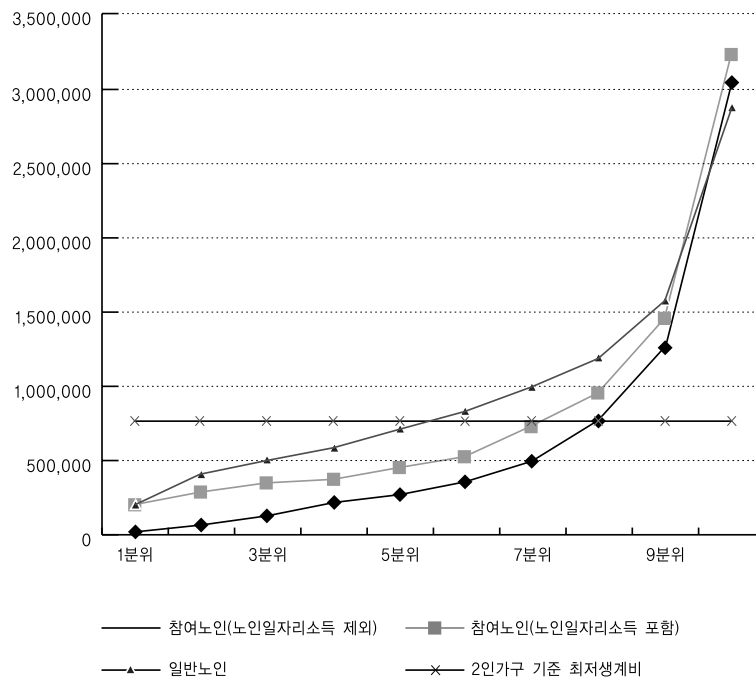




### 3. 정책수요자의 욕구(Need)에 부응

참여노인의 참여동기 중 75%가 생계비나 용돈 마련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인한 10분위 기준 노인부부가구 빈곤율('07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완화 효과는 8분위에서 7분위 수준으로의 변화에 불과해, 일반 노인부부가구의 5분위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일반노인과 참여노인의 월평균 총소득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는 연간사업 기준 18.5만원이거나 7개월 사업기준 31.7만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7-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2인가구 기준 빈곤완화 효과



더욱이, 참여노인과 일반노인의 월평균 소득이 일치되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급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5분위 이하의 참여노인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제약의 한계를 가지는 정부지원 일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분야의 노인전략직종 일자리 개발을 통해 그 괴리를 메우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참여노인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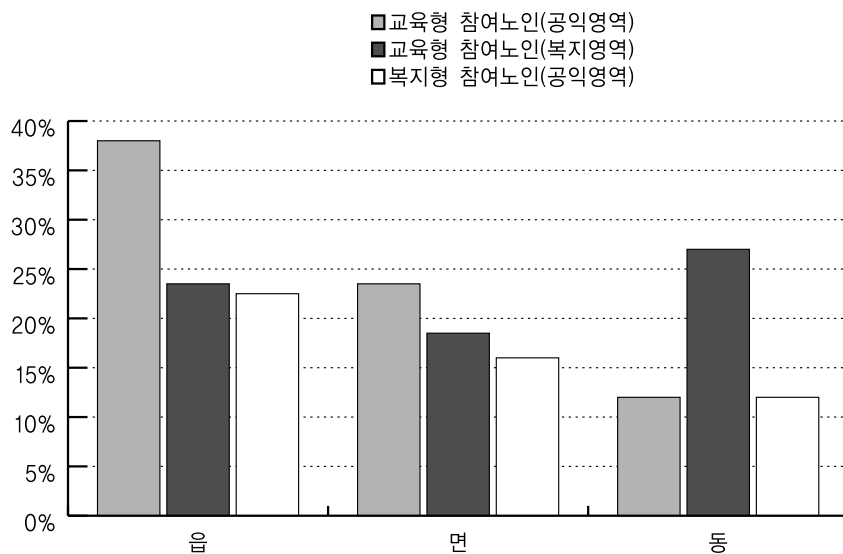
#### 4. 참여노인 모집과정의 투명성 제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처음 접하게 된 주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이용하고 있던 기관”, “가족이나 이웃 등의 지인”, “시군구나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지역 내 통반장 또는 이장”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통로의 의사전달 체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폐쇄적임에 따라 현수막, 공중파 및 지역매체 등 열린 공간에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5. 사업영역(공익·교육·복지)간 불명확성 해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형 참여노인의 활동내용을 보면 복지영역에 분류된 사업에 26.7%, 공익영역으로 분류된 사업에 14.8% 참여하고 있어 “학습지도”나 “전문해설” 등과 같은 교육형 고유영역의 활동내용은 58.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복지형 참여노인의 경우에도 공익형으로 분류된 사업내용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13.9%나 차지하고 있다.

[그림 7-5] 교육·복지형 참여노인의 활동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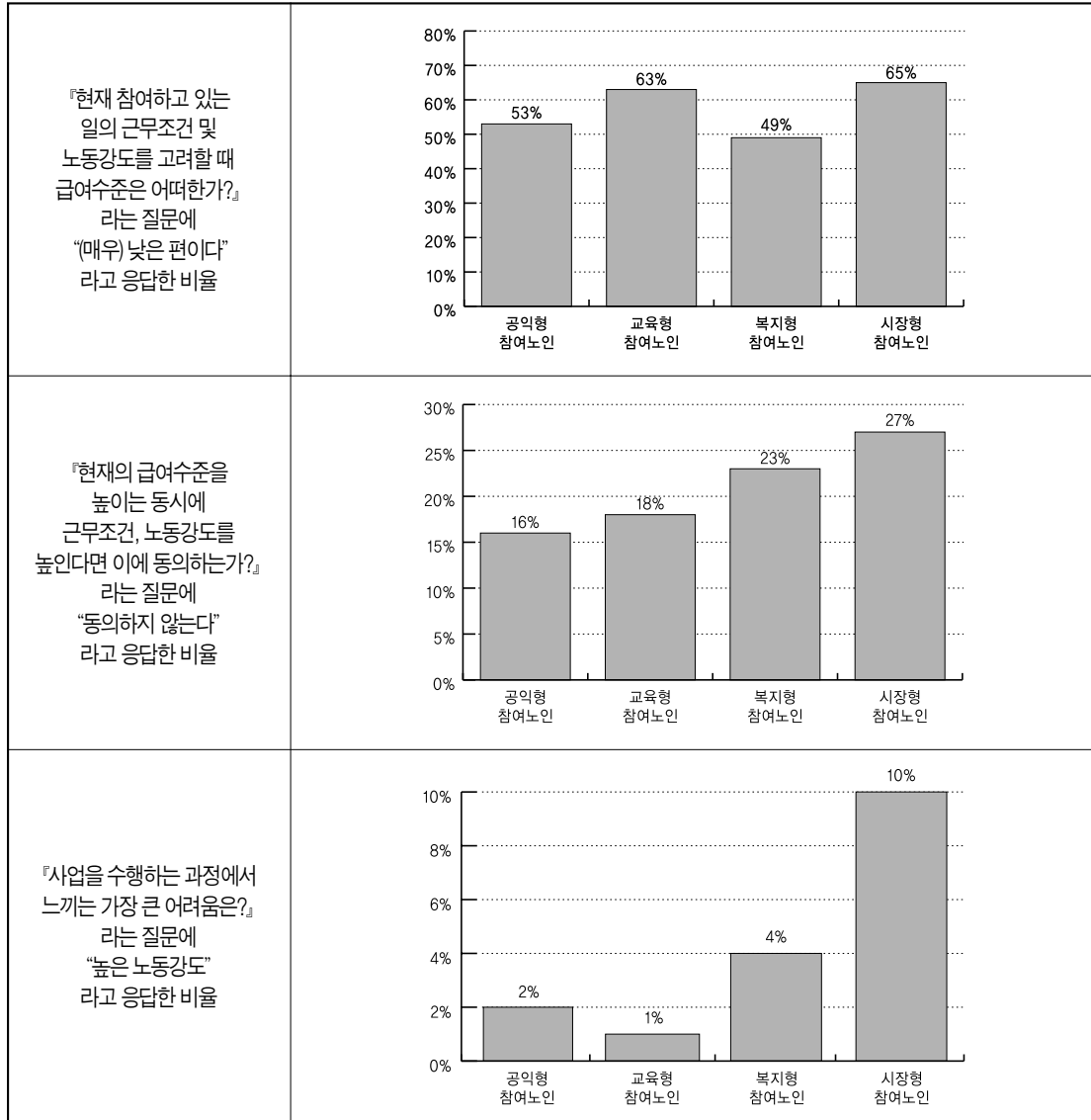


한편, 공익영역의 활동에 종사하는 교육형 참여노인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교육형 참여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평균 14.8%), 복지영역 활동에 종사하는 교육형 참여노인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 교육형 참여노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평균 26.7%). 또한, 복지형 참여노인의 경우에도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참여노인의 공익영역 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평균 13.9%)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형 및 복지형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참여노인의 전문성 부족, 수요처 및 수혜자 발굴의 어려움, 사업수행기관의 인프라부족 등)이 존재했었음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그 제약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① 전체적인 사업량 중에서 이들 유형에 대한 비율 재조정을 검토하거나, ②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유형배분에 따른 폐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도별 범위내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③ 영역별 구분의 엄격성을 일정수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한 '08년 사업추진방향을 보면 노인의 자존감 증진, 사회기여,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공익·복지·교육형을 사회공헌형으로 통합운영 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에 유형비율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의 표준화 장치를 통해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시장형의 정체성 확립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2007)에 의한 시장형의 정의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로, 일정기간 지원 후에는 매출규모에 따라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포함한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의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를 고려한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장형 참여노인의 65%가 낮다고 응답함에 따라 인력과견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급여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근무조건, 노동강도를 높인다면 이에 동의하는가의 물음에도 시장형 참여노인의 2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이 역시 모든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높은 노동강도라고 응답한 시장형 참여노인의 비율도 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시장형 참여노인은 다른 유형의 참여노인에 비해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만족도 및 급여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의 노동강도에 대한 부담으로 추가적 노동력 제공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밝힌 시장형의 정의 및 목적과 현재의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어 주력업종의 변경이나 지원체계의 재설계 등 실현가능성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그간 시장형사업 아이템 중에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직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과정을 통해 시장형사업단의 자립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경련 경영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한 멘토-멘티 기능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될 본원 지역사업본부의 전략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7. 인력파견형 일자리의 활성화

'07년 노인일자리사업 배정 일자리수에 의한 인력파견형의 비율은 5% 정도이나 9월 기준 실제 참여자 수는 1% 수준에 불과해, 사실 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표본추출도 여의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 자체도 불가능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민간분야 노인전략직종 일자리 개발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를 원하는 참여노인이 41%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08년 중점 추진되고 있는 보호된 시장(지자체 및 공공기관 고유사업 중 노인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시설관리공단 협력사업 등) 및 인력파견시장(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중소기업체 work-sharing 등) 등에 대한 사업부서의 역량 집중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확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8. 『사회적 가치』 성과분석 필요

공익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로, 복지형 일자리는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익형(52.4%) 및 복지형(27.7%) 일자리 참여노인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은 노인빈곤을 감소 및 의료비 절감 효과 등 제한적 시각에 국한되어 왔다. 즉, 참여노인의 상태변화에만 집중함에 따라 또 다른 축인 근로 제공의 결과로 발생된 사회적 가치 평가는 도외시 되면서 결과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과소평가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참여노인의 상태변화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호전 정도 및 지역적 가치와 같은 비계량적 요소 등의 포괄적인 효과성 입증 과정을 거쳐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체감도를 높임과 동시에 노인인력활용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8장 결 론









노인일자리사업이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구체적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정책 계획이 입안되고 집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전국적 확률표집을 통한 최초의 조사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몇 년 간 만족도조사 등 일부 노인일자리 관련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조사도구의 제한성, 표집 방법의 한계, 노인 자기기입방식 등 조사 진행상의 난점으로 이 결과들을 일반화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기타, 제대로 된 전국규모 실태조사는 노인생활실태의 일부로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욕구정도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는 노인일자리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며, 이는 본 조사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겠다.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노인인구 구성에 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에 비해 전기고령자(65~74세)의 비중(67%)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상태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만성질환의 절대적 수치에서도 동일한 결과이다. 전기고령자 및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건강수준 등 일할 수 있는 전제조건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노인인구 전체분포와 비교하여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이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임업, 수렵업이 29.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일차 산업 종사비율이 매우 높은 읍면지역에 비해 도시에 노인 적합 일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형 일자리의 경우 동지역 참여노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1-3세대 통합프로그램 등 교육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의 고학력 필요성 등의 상호조건들을 적절히 잘 개발하고 매칭한 긍정적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공익영역의 활동에 종사하는 교육형 참여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적절한 인프라 결여와 지역사회의 해당 프로그램 수요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침으로 내려진 사업배당비율의 경직성 탓으로 해석된다.

셋째,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가구는 일반 노인 가구에 비해 노인독신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공식자원망의 해체와 자원결핍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욕구가 큰 집단임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유로 '경제적 이유(생계비 마련 53.6%; 용돈 마련 21.3%)'가 약 75%를 차지하는 결과와 함께, 참여노인이 노인 일자리사업 이외의 별도 일을 하는 이유로 65%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참여소득을 포함한 월 평균 총소득수준(46.5만원)은 일반노인의 월 평균 총소득수준(53.1만원)에 비해 6.6만원이 부족한 8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2개월 계속사업 기준으로 월평균 참여소득이 18.5만원이 되거나 연중 7개월 사업기준으로 31.7만원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제언은 참여노인에게 근무시간, 참여일수 등의 근무조건이나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급여수준으로 15만원 초과 30만원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총 81.5%에 이른 결과와도 일치된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가 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육형의 경우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급 자원봉사를 유료형 일자리로 전환시킨 결과라는 비판의 가능성이 예기된다. 그런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현재에도 일반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비율 4%에 비해 노인 일자리 참여노인의 경우 13.8%로 3.5배 정도 높은 것을 감안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자원봉사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반화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원하는 일의 형태에 있어 52.3%가 '용돈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를 선택했고, 다음으로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를 41%가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노인과 비교하여 대략 20% 가량 높은 수치이다. 용돈이든 생활비든 간에 오로지 경제적 문제에 93% 이상의 일자리 참여 노인인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건대,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정책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 30만개의 달성이라는 양적 성장에 급급했던 소위 노인일자리정책 1기 5개년(2003~2007년)에 비해 차기 5년(2008~2012년) 동안에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완전노령연금액 수급자 발생 등 변화된 노인복지 환경을 반영한 정책대상자 선정과 정책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세부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평가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 전망과 경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탐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력과건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의무고용을 위반에 대한 비용효과를 감안한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노인고용 장벽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장벽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만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이나 심화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인력과건형 재취업을 위한 인적자본 개발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연구의 후속연구로 무엇보다도 본 연구대상자들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이탈요인과 생존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과학적 노인일자리 정책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연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연구를 통해 노인취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노인인력운영센터,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설문 분석결과』, 2005
-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2006
- \_\_\_\_\_,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만족도조사』, 2006
- \_\_\_\_\_, 『노인일자리사업 '07년 10월 통계』, 2006
- \_\_\_\_\_,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06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006
- \_\_\_\_\_, 『장래인구추계』, 2006
- \_\_\_\_\_, 『인력실태조사』, 2006
- \_\_\_\_\_, 『사회통계조사』, 2005



# 부 록

참여노인 실태조사 지침서 (문항별 지침)









## 부록. 참여노인 실태조사 지침서(문항별 지침)

### 조사번호

--	--	--	--

**【도움말】** 조사대상자 명단에 나와 있는 기본 ID 번호를 위의 칸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참여 어르 신	성 별	①남                      ②여	소속기관	기관명: _____ 기관분류번호: _____
	실 연령	만 _____ 세	사 업 명	
	거 주 지	①읍            ②면            ③동	사업유형	①      ②      ③      ④      ⑤
조 사 원	소 속	_____ 시·도	조 사 일	2007. . . . .
		_____ 시·군·구	성 명	
	소속기관			

### 【도움말】

- 어르신들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연령과 실제 연령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아닌 실제 연령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응답자가 출생년도나 띠 또는 간지로 응답시 [별첨 1]을 참고하여 환산 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의 좌측 '간지 및 띠별 연령조건표'는 실연령이므로, 만 연령으로 환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소속기관' 및 '사업명'은 정확한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읍면동) 소속은 소속기관에 시군구 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작성 후 기관분류번호를 아래에서 찾아 기입하여 주십시오.
- 기관분류번호 : ① 지자체 ② 노인복지관 ③ 종합복지관 ④ 시니어클럽 ⑤ 대한노인회  
⑥ 노인복지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 단기 및 주간보호센터 포함)  
⑦ 자활후견기관 ⑧ 노인학대예방센터 ⑨ 실버인력뱅크 ⑩ 지방문화원 ⑪ 기타
- 사 업 유 형 : ① 공익형 ② 교육형 ③ 복지형 ④ 시장형 ⑤ 인력파견형

조사순서 : 표지작성 ⇒ III. 참여실태 ⇒ II. 사회경제적 특성 ⇒ IV. 참여효과 및 욕구 ⇒ I. 일반적 특성



## I. 일반적 특성

### ■ [1~3 : 교육수준 및 가구특성]

1.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           |              |           |
|-----------|--------------|-----------|
| ① 글자 모름   | ② 무학이나 글자 해독 | ③ 서당      |
| ④ 초등학교 중퇴 | ⑤ 초등학교 졸업    | ⑥ 중학교 중퇴  |
| ⑦ 중학교 졸업  | ⑧ 고등학교 중퇴    | ⑨ 고등학교 졸업 |
| ⑩ 대학교 재학  | ⑪ 대학교 중퇴     | ⑫ 대학교 졸업  |
| ⑬ 대학원 재학  | ⑭ 대학원 중퇴     | ⑮ 대학원 졸업  |

#### 【도움말 1】

- 최종학력을 말합니다. 중퇴 경력이 있더라도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면, 상급학교, 즉 최종학교만 유효합니다.
- 무학인 경우에는 글자해독(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따라 글자해독이 가능하지 않으면 ①번, 가능하면 ②번에 해당합니다.
- '전문대학'은 대학교에 포함되며, '경로대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근 9개월 동안 함께 거주하시는 가구원의 인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가구원	인 원	가구원	인 원
1) 배우자	( )명	5) 미혼자녀	( )명
2) 기혼자녀	( )명	6) 형제 및 자매	( )명
3) 기혼자녀의 배우자	( )명	7) 노부모	( )명
4) 손자녀	( )명	8) 기타	( )명
9) 본인 제외 총 가구원수	( )명		

#### 【도움말 2】

- '몇 명이 함께 사는지' 먼저 질문한 뒤 세부질문을 하면 편리합니다.
- 가족일지라도 장기출태(결혼, 유학 등)로 인해 주 거주지가 응답자의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시키지 마시고, 주 거주지가 응답자와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된 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9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다면 '기타'에 인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배우자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3번에 대한 응답을 유도하여 주십시오.
- 기입한 1)~8)의 인원수를 모두 합하여 가장 하단의 9) 본인 제외 총 가구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본인 제외 총 가구원수'를 '0'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II. 사회경제적 특성

### ■ [9 : 사회활동]

9. (인력과전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직전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9-1~3번으로)

② 없다(☞ 10번으로)

#### 【도움말 9】

- 인력과전형 참여자는 10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 '주기적 자원봉사활동'의 기준은 2개월에 1회 이상 특정 조직에 속하여, 또는 동일한 대상자 또는 기관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를 말하며, 무급 및 실비 자원봉사활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 일차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직전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는 ②에 해당하며,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중 위의 주기적 자원봉사활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도 ②에 해당합니다.
- ①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9-1~3번을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9-1. 어떠한 경로로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 ① 종교단체활동을 통해서
- ② 이용기관(경로당, 복지관 등)을 통해서
- ③ 기타 소속단체 활동을 통해서
- ④ 지인의 권유로
- ⑤ 기타( )

9-2.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를 받으셨습니까?

- ① 받았다(☞ 월 \_\_\_\_\_ 원)
- ② 받지 않았다

**【도움말 9-2】**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현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얼마 정도를 받았는지를 추가적으로 물어 그 액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9-3. 현재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 [10 : 삶의 질]

10.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현재 어르신의 삶의 질(행복감)은 어떤 편이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도움말 10】 ‘동년배의 다른 노인’ 은 노인 전체를 말합니다.**

## ■ [11~14 : 직업력 및 기술]

11.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최장 종사직업) 및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업(최종 종사 직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최장 종사직업	(2) 최종 종사직업
1) 직업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2) 직업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참고		
3) 고용형태 ※ 고용형태분류 참고		
4) 종사기간	① _____년부터 ② _____년까지 ③ 총 _____년	① _____년부터 ② _____년까지 ③ 총 _____년
5) (그만둔) 직전월소득	약 _____만원	약 _____만원

### 【도움말 11】

- 아래의 도움말 11-1~3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에게 직업을 먼저 물은 뒤 해당되는 직업분야와 직업분류를 찾아 기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력파견형 참여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예 : 경비원, 시험감독관, 주례사 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월소득이 없으므로 월소득란에는 '0' 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한 번도 직업이 없었던 응답자에 한해서는 (1) 최장종사직업의 1) 직업분야를 0으로 기입한 후 12번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호한 직업의 경우 [별첨 2]의 '세부직업예시표' 를 참고하셔서 해당직업을 찾으신 후, 가장 좌측의 대분류명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근로 등 정부지원 일자리는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이 해당되는 경우 주 소득원인 직업을 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장 종사직업과 최종 종사직업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직업분류와 3) 고용형태에 대하여 응답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정확한 직업정보 파악을 위하여, 가능한 한 2)와 3)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자세하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 4)의 종사기간은 가능한 한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및 (2)에 현재도 종사하고 있는 경우 4) 종사기간에 현재 시점까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4)의 종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를 년수로 환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은 반올림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6개월간 참여한 경우,  $6/12 = 0.5$  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5)의 월소득은 그만두기 직전의 월소득입니다. 이 때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년도의 화폐가치에 따라 응답하도록 유도하여 주십시오.

**【도움말 11-1】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
| 0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02) 어업                  | 03) 광업        |
| 04) 제조업                | 0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06) 건설업       |
| 07) 도매 및 소매업           | 08) 숙박 및 음식점업           | 09) 운수업       |
| 10) 통신업                | 11) 금융 및 보험업            | 12) 부동산 및 임대업 |
| 13) 사업서비스업             |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15) 교육 서비스업            | 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 1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
| 19) 가사 서비스업            | 20) 국제 및 외국기관           |               |

**【도움말 11-2】 한국표준직업분류**

- |                       |                    |                |
|-----------------------|--------------------|----------------|
| 0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02) 전문가            | 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
| 04) 사무종사자             | 05) 서비스종사자         | 06) 판매종사자      |
| 0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
| 0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10) 단순노무종사자        |                |
| 11) 군인                | 12) 기타             |                |

**【도움말 11-3】 고용형태분류**

01) 상 용 직	임금(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02) 임 시 직	임금(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03) 일 용 직	임금(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04) 고 용 주	한 사람 이상 유급 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05) 자영업자	유급 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06) 무 급 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07) 기 타	







■ [15~17 : 경제상태]

15.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어르신은 경제적인 형편은 어떠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 ② 약간 나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좋다
- ⑤ 매우 좋다

**【도움말 15】 ‘동년배의 다른 노인’ 은 노인 전체를 말합니다.**

16. 어르신을 포함하여 어르신 댁의 소득이 있는 각 가구원의 소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1) 근로 및 사업소득				2) 자산소득				3) 공적이전소득				4) 사적이전소득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 '07년 월평균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 '07년 월평균				공적연금, 경로연금, 교통수당 (일시금 제외) ※ '07년 월평균				자녀, 친인척, 사회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및 현물환산액 ※ '06년 소득총액			
본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도움말 16】**

-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각 가구원을 좌측에 기입, 각 가구원의 소득원에 따른 소득액을 우측에 기입 하되, 1)~3)는 2007년 월평균 소득, 4)는 2006년 연간 소득총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버림)해 주십시오.
-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1)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단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006년의 연간 소득을 묻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2006년 월환산 소득을 1)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어느 가구원의 소득인지 불분명할 경우(예를 들어 자녀의 사적이전소득이 노인부부에게 동시에 주어진 경우) 대표적인 가구원 1인에만 포함시켜 주십시오.
- 가구원의 소득을 타가구원이 지급받는 경우 1인에만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 동거자녀의 300만원 소득 중 30만원을 응답자에게 준다면, 동거자녀의 수입은 270만원, 응답자의 사적소득은 30만원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어르신 본인의 경우 1)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노인일자리사업 소득 이외의 소득입니다.** 수요처에서 추가적으로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인력파견형 참여자의 경우 파견(또는 고용)된 일을 통한 근로소득을 1)의 근로소득에 절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그러나 어르신 본인이 아닌 배우자, 형제 자매 등 타 가구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1) 근로 및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구가 아닌, 자녀세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원별, 소득원별 소득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가 아는 한 최대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 각 소득원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임금소득 :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 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제외.
- 2) 사업 및 부업소득 :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 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임.
- 3)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 그러나 자신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4)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공무원·군인 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연금</li> <li>• 장해연금</li> <li>• 유족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li> <li>• 장해(상이)연금</li> <li>• 유족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해연금</li> <li>• 유족급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연금</li> </ul>

- 5) 경로연금 : 노인의 경우 기초보장대상자와 저소득층은 경로연금을 받게 되어 있으며, 금액은 약 월 3만원~5만원임.
- 6) 교통수당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대하여 신청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따라 지급하므로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경우에는 3(개월)으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여 활용할 것.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지 않으므로 모두가 받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주의할 것.

- **응답자 본인의 1)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16-1~2번을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17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 16-1.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

- ① 영농(소득이 있는 텃밭 또는 농지경작, 가축사육이나 양봉) (☞ 16-1-1번으로)
- ② 단순노무(막노동, 경비업무 등)
- ③ 공동작업장(봉투접기 또는 부품조립 등)
- ④ 자영업
- ⑤ 재가 부업
- ⑥ 기타 ( )









■ [21~26 : 참여현황]

21. 어르신께서 하고 계신 활동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모두 표시)

1) 공익·교육·복지형 참여자

1-①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 1-② 산, 강, 하천, 계곡, 바다 등의 환경관리 1-③ 학교주변 및 골목 순찰 1-④ 노점상 정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1-⑤ 공영주차장 관리 1-⑥ 공원 및 놀이터 환경관리 1-⑦ 공공기관 환경관리(학교, 도서관 등) 1-⑧ 공공기관 업무지원(학교, 도서관 등) 1-⑨ 교통질서 및 주정차 단속계도 1-⑩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1-⑪ 보육시설 환경관리 및 급식보조 1-⑫ 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경로당 포함) 1-⑬ 문화재 및 문화시설 관리 1-⑭ 재활용 1-⑮ 산불예방 및 감시	3-① 가사지원(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 3-② 정서지원(말벗 등) 3-③ 위생지원(세면, 세발, 목욕 등) 3-④ 행정업무 지원 및 병원동행 3-⑤ 치료지원(투약관리, 욕창방지, 재활치료 등) 3-⑥ 단순 안전확인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요구르트 배달) 3-⑦ 취미·여가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3-⑧ 도배, 장판 또는 보일러 등 주거환경 개선 3-⑨ 문화공연 및 문화체험지원 (아동극, 음악, 풍물 등) 3-⑩ 건강 서비스(숙, 뜸, 침, 체조, 안마 등) 3-⑪ 무선페이징 관리 3-⑫ 상담 및 멘토링 3-⑬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보조 3-⑭ 보육 및 교육 지원 (환경관리 및 급식보조 제외) 3-⑮ 기타( )
2-① 전문해설제공(해설사) 2-② 학습지도(한글, 한문, 영어, 독서 등) 2-③ 전통문화 및 예절지도	2-④ 여가활동 및 건강활동 지도 2-⑤ 홍보활동 2-⑥ 동화구연 및 아동극

2) 시장형 참여자

4-① 재활용품 수거 4-② 농축산물 재배 또는 사육 4-③ 단순 임가공 4-④ 농산물 가공 4-⑤ 수선 또는 봉제 4-⑥ 전통공예품 제작 4-⑦ 기타 생활용품 제작	4-⑧ 음식 조리 4-⑨ 매장 운영, 판매(음식점, 카페, 노점 포함) 4-⑩ 세차, 세탁, 청소 4-⑪ 운전 4-⑫ 물품 배달(택배) 4-⑬ 가사, 간병, 베이비시터 4-⑭ 기타( )
--	---

3) 인력파견형 참여자

5-① 주유원 5-② 시험감독관 5-③ 물품배달원(택배) 5-④ 주차원 5-⑤ 세차원 5-⑥ 무가지 배포원 5-⑦ 관리원(골프장, 정원 등)	5-⑧ 주례사 5-⑨ 능가인력지원 5-⑩ 경비원 5-⑪ 도우미(가사, 간병, 베이비시터 등) 5-⑫ 건물청소/미화원 5-⑬ 기타( )
--	---



**【도움말 21】**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참여자의 경우 1-① ~ 3-⑩의 모든 해당항목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면서 어떤 일 하세요?’ 등의 열린 질문으로 시작하여 응답자가 언급하는 모든 사업 내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22. 위에서 언급한 활동내용 중 주로 수행하는 활동내용 순으로 2순위까지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1순위		2) 2순위	
--------	--	--------	--

**【도움말 22】**

-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 중 가장 많이 수행하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2가지 활동내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1순위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21번에서 한 가지 항목만 체크했을 경우, 1순위에만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23. 어르신께서 참여하고 계신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1) 주당	_____ 일	(2) 일일	_____ 시간
(3) 교육형(해설사) 일일 평균 대기시간 ※ 숲해설, 문화재해설 등 해설사 참여자만 응답			_____ 시간

2) 인력과견형

(1) 고용형 ※ 도움말참고	① 고용지속기간		_____ 개월	
	② 주당	_____ 일	③ 일일	_____ 시간
(2) 파견형 ※ 도움말참고	2007년 1월~9월 총 파견횟수		_____ 회	
	일일		_____ 시간	

**【도움말 23】**

- 응답자의 사업참여 빈도 및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인력과견형 참여자와 기타유형(공익·교육·복지·시장형) 참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사원께서는 우선 응답자의 참여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십시오.
- 활동일수 및 활동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평균치로 되물어 응답을 유도하여 주십시오.



- 교육형 중 숲해설, 문화재해설 등 해설사의 경우, 해설 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추가로 질문하여 1일당 평균 대기시간을 (3)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의 활동시간 중 1시간을 대기하고 주로 3시간 정도 활동한다면, 첫 번째 줄의 일일 활동시간은 4시간이며, 두 번째 줄의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입니다.
- 응답자가 인력파견형 참여자일 경우 '고용형' 과 '파견형' 으로 구분되는데, 이 때 '고용형' 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과 같이 특정 파견처에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형태를 말하며, '파견형' 은 주례사나 시험감독관 등과 같이 파견처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활동사유 발생시 해당 파견처에 투입되어 일회성으로 활동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조사원께서는 먼저 응답자가 고용형인지 파견형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1) 고용형의 ① 고용지속기간은 '현재' 고용된 장소에서 고용이 지속된 기간입니다. 기간을 기입 후 ② 주당 근무일수 및 ③ 일일 근무시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2) 파견형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파견된 총 횟수를 ①에 기입하신 후, 일일 파견시 활동하는 시간을 ②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24.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아업 참여 소득은 월 평균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항 목	급 여			
1) 노인일자리아업 급여 ※ 인력파견형은 월급여 기입				만원
2) 수요처 추가 지급 ※ 24-1 추가질문				만원
3) 합 계				만원

#### 【도움말 24】

- 응답자가 노인일자리아업 급여를 '정부(또는 지자체) 보조 금액' 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질문하십시오.
- 시장형의 수익금을 통한 추가급여는 1)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인력파견형의 급여는 반드시 1)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인력파견형 중 시험감독관 참여자는 다른 유형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감독관을 통한 급여만 1)에 기입하여 주시고, 다른 유형 참여에 따른 급여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 2)의 수요처 추가지급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참여자 중 해당되는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2)를 기입 하였다면 24-1의 추가문항을 질문하시고, 2)를 기입하지 않았다면 25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 24-1. 수요처 추가지급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① 가끔 받고 있다

②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25. 어르신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소득을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 |              |                            |
|--------------|----------------------------|
| ① 생활비        | ② 약값 및 의료비                 |
| ③ 손자녀 용돈 지급  | ④ 자녀보조                     |
| ⑤ 경조사비       | ⑥ 저축                       |
| ⑦ ①~⑥ 외 기타용돈 | ⑧ 기타(                    ) |

**【도움말 25】**

- 인력파견형 참여자에게는 ‘월 급여를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라고 질문해 주십시오.
- 응답자가 매달 주된 활용처가 다르다고 응답할 경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기타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이 항목은 주관식으로 물을 경우 ‘용돈’으로 포괄해서 답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모두 읽어주시고 응답자가 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십시오.

26. (인력파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의 사업단은 어떠한 근무관리 체계를 갖추고 계십니까? 해당번호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근무관리 체계	① 해당	② 비해당
1) 팀장제		
2) 조회 또는 종례(소속기관 또는 수요처 담당자)		
3) 업무활동일지		
4) 동료참여자와 실무자와의 정기적인 모임(간담회)		
5) 소속기관 실무자의 활동현장방문		
6) 기타(                    )		

**【도움말 26】**

- 인력파견형 참여자는 30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 1)~6)의 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을 설명하신 후, 각 근무관리방법을 받고 있으면 ① 해당, 받고 있지 않으면 ② 비해당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1)~6) 각각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의 활동장소가 수행기관일 경우에도 실무자의 관리 방법에 따라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팀장제는 사업단 내 1인이 팀장을 맡아 전체적인 출결 관리 및 수요처 및 수행기관, 소속 수행기관과의 접촉을 통하여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등 팀장을 통해서 근무관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조회 또는 종례는 활동현장의 담당자나 수행기관 담당자가 출결체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회 또는 종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업무활동일지는 소속 수행기관 실무자 또는 수요처(수혜기관) 담당자에게 각 근무일의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정기적인 모임(간담회)은 올해 참여 시작부터 지금까지 개최된 경우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 5) 소속기관 실무자의 활동현장방문은 응답자가 활동하는 장소에 수행기관 담당자가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회 또는 종례를 위한 현장방문은 5)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V. 참여 효과 및 욕구

### ■ [30 : 만족도]

30. 어르신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비해당
	1점	2점	3점	4점	5점	
1)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해당 없음
2) 월 보수						
3) 업무의 내용						
4) 업무의 강도						
5) 근무 환경						
6) 동료와의 관계						
7) 소속기관 외 수혜자, 수혜기관, 수요처와의 관계						

### 【도움말 30】

- 만족하는 것에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항목에 대해 만족 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보고 1점~5점 중에서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준다면 각각 몇 점을 줄 것인지 응답하도록 설명하십시오.
- 3) 업무의 내용은 활동하는 내용 자체를 말합니다.
- 4) 업무의 강도는 참여일수 및 참여시간 등의 근무조건, 일의 세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5) 근무 환경은 근무 장소, 작업 환경(설비, 규모, 기자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6) 동료와의 관계는 응답자가 활동하는 사업단 내 동료를 말합니다. 사업단 내 동료가 없는 경우는 ⑥ 비해당에 해당합니다.
- 7) 소속기관 외 수혜자, 수혜기관, 수요처와의 관계는 파견되는 장소의 담당자, 수혜자, 고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응답자의 활동내용에 따라 접촉하는 수혜자, 수혜기관, 수요처 등이 없는 경우 ⑥ 비해당에 해당합니다.

※ 인력파견형 참여자는 39번으로 넘어갈 것



### ■ [31~37 : 참여 효과 및 파견]

31. (인력과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돈을 벌 수 있는 것
- ② 새로운 동료, 또는 서비스 대상자와 만나게 된 것
- ③ 아직 내가 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
- ④ 건강이 증진되는 것
- ⑤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 ⑥ 없음
- ⑦ 기타( )

32. (인력과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해 가족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 ① 싫어하는 편이다(☞ 32-1번으로)
- ② 보통이다(☞ 33번으로)
- ③ 좋아하는 편이다(☞ 32-2번으로)
- ④ 가족이 본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모르고 있다(☞ 33번으로)
- ⑤ 비해당(예 : 가족이 없는 경우)(☞ 33번으로)

#### 【도움말 32】

- 가족은 가구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응답자가 독거노인일 경우라도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의 반응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⑤번에 해당합니다.
- 가족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32-1번으로, 반대로 가족의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32-2번으로 가서 각각의 이유를 질문해 주십시오.
- 가족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 주된 경향을 물어 선택하여 주십시오.
- 가족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④번에 해당합니다.

#### 32-1. 싫어하는 이유

- ① 일이 힘들기 때문에
- ② 일하는 것에 비해 급여가 적어서
- ③ 집안일을 돕지 못해서
- ④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 ⑤ 주위의 이목 때문에
- ⑥ 기타( )

【도움말 32-1】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인력과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은 근무시간, 참여일수 등의 근무조건 또는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월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만원

**【도움말 35】 근무조건 또는 노동 강도만 고려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인력과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현재의 급여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근무시간, 참여일수 등의 근무조건 또는 노동강도를 높인다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도움말 36】 수요처 또는 판로 확보 부족 등 타 사유는 모두 배제하고, 현재 근무조건 또는 노동강도를 기준으로만 고려하여 주십시오.**

37. (인력과견형 및 시장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는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기간 동안 같은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보수가 없어도 할 의향이 있다

② 보수가 있다면 할 의향이 있다

③ 할 의향이 없다

### ■ [38~40 : 문제점 및 제언]

38. (인력과견형 참여자 제외) 어르신께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교통문제(이동문제)

② 동료와의 관계

③ 수혜자(수요처)와의 관계

④ 소속 기관과의 관계

⑤ 기술력 또는 전문성(수행능력)의 부족

⑥ 주변의 이목

⑦ 높은 노동강도

⑧ 없음

⑨ 기타( )

### 【도움말 38】

■ 활동 중의 어려움에 대한 문항으로, 급여수준 인상이나 참여기간 확대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상 문제점은 제외하고 활동 중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십시오.

■ 응답자가 복수의 응답을 할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주십시오.



39. 실제로 어르신께서는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① 보수와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 ② 용돈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일주일에 2-3회)
- ③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일주일에 5회 이상)
- ④ 자영업(창업)
- 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 ⑥ 기타( )

**【도움말 39】** ①~⑤의 항목을 모두 읽어준 후 원하는 항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40.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움말 40】** 이 문항은 설문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후 응답자에게 가볍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가 끝났습니다. 장시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1] 연령조건표

간지 및 띠별 연령조건표

연령	서기	간지	띠	연령	서기	간지	띠
51	1957	정유	닭	76	1932	임신	잔나비
52	1956	병신	잔나비	77	1931	신미	양
53	1955	을미	양	78	1930	경오	말
54	1954	갑오	말	79	1929	기사	뱀
55	1953	계사	뱀	80	1928	무진	용
56	1952	임진	용	81	1927	정묘	토끼
57	1951	신묘	토끼	82	1926	병인	범
58	1950	경인	범	83	1925	을축	소
59	1949	기축	소	84	1924	갑자	쥐
60	1948	무자	쥐	85	1923	계해	돼지
61	1947	정해	돼지	86	1922	임술	개
62	1946	병술	개	87	1921	신유	닭
63	1945	을유	닭	88	1920	경신	잔나비
64	1944	갑신	잔나비	89	1919	기미	양
65	1943	계미	양	90	1918	무오	말
66	1942	임오	말	91	1917	정사	뱀
67	1941	신사	뱀	92	1916	병진	용
68	1930	경진	용	93	1915	을묘	토끼
69	1939	기묘	토끼	94	1914	갑인	범
70	1938	무인	범	95	1913	계축	소
71	1937	정축	소	96	1912	임자	쥐
72	1936	병자	쥐	97	1911	신해	돼지
73	1935	을해	돼지	98	1910	경술	개
74	1934	갑술	개	99	1909	기유	닭
75	1933	계유	닭	100	1908	무신	잔나비

날짜별 만연령 조건표

2007년 9월 30일 기준

연령	출생년월일 (양력)	연령	출생년월일 (양력)
51	1955. 10. 1~1956. 9. 30	76	1930. 10. 1~1931. 9. 30
52	1954. 10. 1~1955. 9. 30	77	1929. 10. 1~1930. 9. 30
53	1953. 10. 1~1954. 9. 30	78	1928. 10. 1~1929. 9. 30
54	1952. 10. 1~1953. 9. 30	79	1927. 10. 1~1928. 9. 30
55	1951. 10. 1~1952. 9. 30	80	1926. 10. 1~1927. 9. 30
56	1950. 10. 1~1951. 9. 30	81	1925. 10. 1~1926. 9. 30
57	1949. 10. 1~1950. 9. 30	82	1924. 10. 1~1925. 9. 30
58	1948. 10. 1~1949. 9. 30	83	1923. 10. 1~1924. 9. 30
59	1947. 10. 1~1948. 9. 30	84	1922. 10. 1~1923. 9. 30
60	1946. 10. 1~1947. 9. 30	85	1921. 10. 1~1922. 9. 30
61	1945. 10. 1~1946. 9. 30	86	1920. 10. 1~1921. 9. 30
62	1944. 10. 1~1945. 9. 30	87	1919. 10. 1~1920. 9. 30
63	1943. 10. 1~1944. 9. 30	88	1918. 10. 1~1919. 9. 30
64	1942. 10. 1~1943. 9. 30	89	1917. 10. 1~1918. 9. 30
65	1941. 10. 1~1942. 9. 30	90	1916. 10. 1~1917. 9. 30
66	1940. 10. 1~1941. 9. 30	91	1915. 10. 1~1916. 9. 30
67	1939. 10. 1~1940. 9. 30	92	1914. 10. 1~1915. 9. 30
68	1938. 10. 1~1939. 9. 30	93	1913. 10. 1~1914. 9. 30
69	1937. 10. 1~1938. 9. 30	94	1912. 10. 1~1913. 9. 30
70	1936. 10. 1~1937. 9. 30	95	1911. 10. 1~1912. 9. 30
71	1935. 10. 1~1936. 9. 30	96	1910. 10. 1~1911. 9. 30
72	1934. 10. 1~1935. 9. 30	97	1909. 10. 1~1910. 9. 30
73	1933. 10. 1~1934. 9. 30	98	1908. 10. 1~1909. 9. 30
74	1932. 10. 1~1933. 9. 30	99	1907. 10. 1~1908. 9. 30
75	1931. 10. 1~1932. 9. 30	100	1906. 10. 1~1907. 9. 30





## [별첨 2] 세부직업 예시표

대분류 ※ 조사표 기입시 대분류번호 기입	연번	세부직업분류 예시 항목
0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101	의회의원
	0102	고위공무원(국장급 이상)
	0103	고위임직원(부장급 이상)
	0104	정부산하기관 고위임직원(부장급 이상)
	0105	정부산하기관 기관장
	0106	정부산하기관 관리직(부장급 이상)
	0107	사회단체(정당, 경제단체 등)
	0108	중위급 공무원(서기관, 사무관)
	0109	(5인 이상)기업체 경영주
	0110	(5인 이상)기업체 고위 임직원(부장급 이상)
	0111	(5인 미만)기업체 경영주
	0112	기업체 관리직(과장급 이상)
	0113	군인(장성급, 경찰(총경 이상)
	0114	군인(영관급), 경찰(경위 이상)
	0115	군인(위관급)
	0116	생산 부서 관리직
	0117	기타 고위임직원, 법인관리직 및 종합 관리직
	0118	공사현장 관리자(현장감독)
02. 전문가	0201	변호사
	0202	판사, 검사
	0203	법무사, 공증인
	0204	기타 법률전문가
	0205	의사
	0206	수의사
	0207	약사
	0208	조산사
	0209	간호사
	0210	한의사
	0211	기타 보건의료전문가
	0212	학령전 교사
	0213	초등교사
	0214	특수학교 교사
	0215	중·고교 교사
	0216	대학교사(조교수 이상)
	0217	공인회계사
	0218	세무사
	0219	변리사, 특허 전문가
	0220	광고대리인, 특허대리인
	0221	기록보관원, 사서
	0222	저술가, 기고가
	0223	작가 및 창작인(소설가, 시인 등)
	0224	기자, 평론가, 편집자
	0225	작곡가, 대중가요가, 안무가
	0226	성악가, 합창단 지휘자, 관현악단 지휘자
	0227	영화배우, 연극배우
	0228	탤런트, 코미디언



02. 전 문 가	0229	컴퓨터 전문가
	0230	엔지니어
	0231	학자, 연구직(자연, 인문, 사회과학 학사급)
	0232	학자, 연구직(자연, 인문, 사회과학 석사급)
	0233	학자, 연구직(자연, 인문, 사회과학 박사급)
	0234	대학교수(전임강사급)
	0235	성직자, 선교사
0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0236	기타 전문직
	0301	컴퓨터 보조원, 조직원(키 펀처)
	0302	선박 및 항공기 조종사
	0303	선박 및 항공기 기술공(기관사, 관제사, 항법사 등)
	0304	박제사, 농경 및 임업 기술공
	0305	보건 준 전문가(의료보조원, 위생사, 안경사, 기공사, 물리치료사, 안마사, 지압사 등), 영양사
	0306	간호 및 조산 준 전문가(간호조무사, 조산보조원), 신앙치료사
	0307	학령전 교육 준교사
	0308	초등교육 준교사
	0309	시간강사, 학습지 강사(지도원), 과외강사 및 상담원
	0310	연예인 관리자, 경기 프로모터
	0311	부동산중개인
	0312	금융 및 판매 준 전문가(증권·금융 취급인 및 중개인)
	0313	보험대리인
	0314	여행상담원 및 여행사직원
	0315	판매대리인(자동차, 전자장비 등)
	0316	보석감정사, 경매사
	0317	속기사, 관리비서, 집달관, 보험사무원, 변호사 사무장
	0318	조세공무원
	0319	경찰수사관(경사 이하), 사립탐정
	0320	실내장식가, 상업, 상품 및 의상 디자이너
	0321	아나운서, 연예사회자, DJ
	0322	경음악단 지휘자, 마술사, 곡예사, 동물조련사, 광대
	0323	업소의 가수, 무용수
	0324	직업운동선수, 코치, 경기심판, 바둑기사, 헬스크럽강사
	0325	(주사 이하)하위급 공무원 (단,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제외)
	0326	군 인(하사관)
0327	기타 준 전문직(성직자, 선교사 보조원)	
04. 사무종사자	0401	비서 및 타자수
	0402	부기, 급여, 업무통계 사무원
	0403	자재수발 및 운송 사무원
	0404	우편배달원, 우편분류 사무원
	0405	도서 및 자료정리 사무원
	0406	인쇄교정 사무원
	0407	경리, 대금수납원, 은행출납원
	0408	전당업자, 마권영업자
	0409	여행사 사무원
	0410	호텔 및 병원 접수계원
	0411	전화교환원
	0412	기타 사무직원
	0413	직급, 내용을 알 수 없는 회사원
05. 서비스종사자	0501	여행접대원, 관광안내원
	0502	선실승무원, 항공기내 승무원, 여객차장, 버스안내원
	0503	파출부
	0504	호텔 집사, 조리사, 웨이터, 바텐더
	0505	보 모



05. 서비스종사자	0506	간병인, 가정개인간호인
	0507	구급요원, 약사보조원, 수의사보조원
	0508	이용사, 미용사, 무대분장사, 장의사, 피부관리
	0509	개인시중원, 말벗
	0510	점성가, 예언자, 수상가
	0511	조사원
	0512	소방관, 일반경찰관(수사관 제외), 교통경찰관, 해양경찰관, 교도관(경사 이하, 주사급 이하)
	0513	청원경찰, 경호원, 구조요원
06. 판매종사자	0601	상점판매원, 선전원, 슈퍼
	0602	지정판매원, 거리매점판매원
	0603	생활설계사
	0604	기타 서비스 및 시장판매 근로자, 싸빙
0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0701	선 주
	0702	외판원(영업직)
	0703	출하용 농·목축·임업·어업 생산자(대농)
	0704	출하용 농·목축·임업·어업 생산자(중농)
	0705	출하용 농·목축·임업·어업 생산자(소농)
	0706	출하용 농·목축·임업·어업 생산자(빈농 및 소작농)
	0707	자급 농업 및 어업
	0708	타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구분이 어려운 농업)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801	숙련공 및 기능공 설비, 재봉사
	0802	건설공 및 비숙련공(숙련공 및 기능공의 보조)
	0803	기타 기능원
09.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901	개인택시 운전사
	0902	영업용 택시 운전사
	0903	자기용 승용차 운전사
	0904	영업용 버스 운전사
	0905	(학원, 교회 등)자기용 버스 운전사
	0906	영업용 트럭 운전사
	0907	자기용 트럭 운전사
	0908	중장비 운전사
	0909	철도 기관사
	0910	선박갑판 승무원
	0911	기타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0. 단순노무종사자	1001	방문 및 전화 외판원, 배달원
	1002	식품행상인, 노점상
	1003	구두미화원, 심부름원
	1004	가사조력원 및 청소원
	1005	객실 종사원, 세탁원
	1006	건물 및 아파트 관리인, 세차원
	1007	신문배달원, 문서송달원
	1008	수위, 경비원, 집표원
	1009	환경미화원, 거리미화원
	1010	상점점원, 주유원
	1011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
	1012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1013	기타 단순노무직 근로자(부업), 취로사업
11. 군 인	1101	군 인
12. 기 타	1201	기 타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

2008년 1월 인쇄

2008년 1월 발행

---

발행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69-9 성령빌딩 6층

Tel : 02) 6203-6901~7 Fax : 02) 6203-6908~9

---